

계간

ISSN 3022-0300

북한 지역연구

봄

2026

통권 제12호

이번호 주제: 평양(平壤)직할시 2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 평양소재
교회가 주는 역사적 교훈

북한의 수도 평양의 공간구조

김정은 집권 2기 평양 살림집 건설의 특징

평양의 교회를 찾아서 (평양대부흥 이후 - 현재)

평양에 설립되었던 감리교회의 신학교육 기관들

평안남도에 세워진 성결교회

평양신학교의 설립 목적과 발전

여성 목회자의 산실,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

서평 『평양,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양 출신의 유명인

평양의 대표 음식

평양의 사람 사는 이야기

언론에 비친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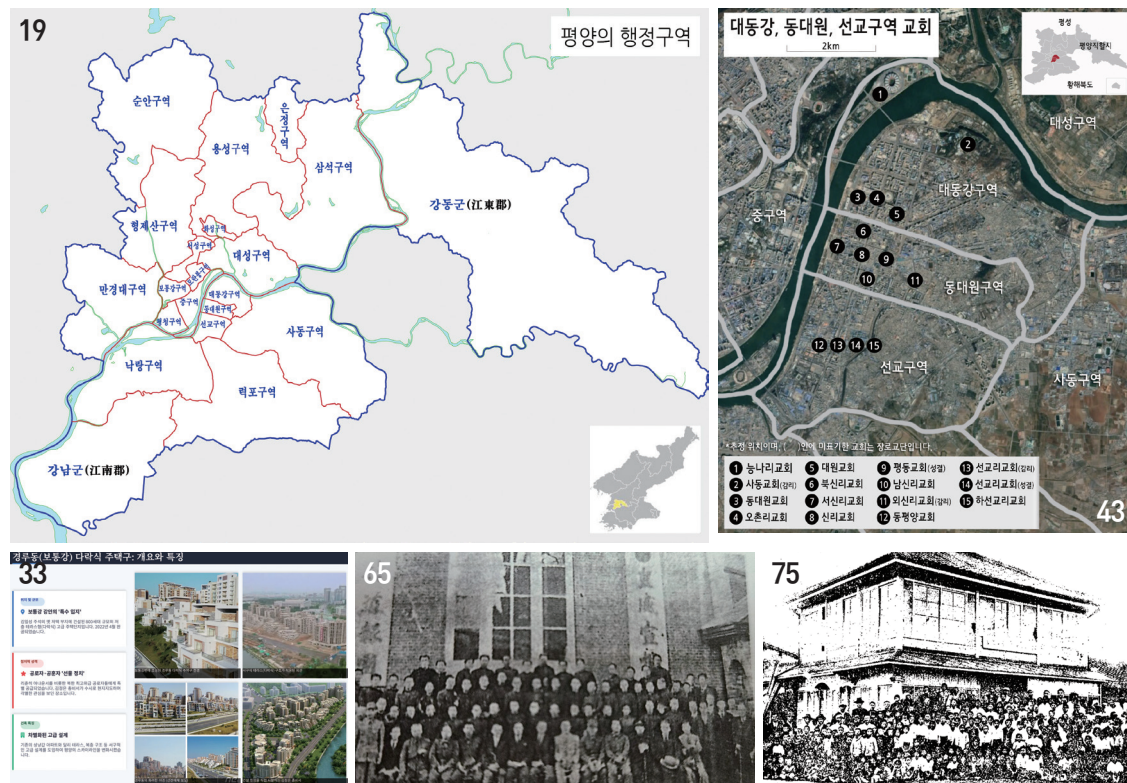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 봄 통권 제12호

이번호 주제 : **평양(平壤)직할시 2**



- 02 권두언** -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 평양소재 교회가 주는 역사적 교훈
- 19 컬럼 1** - 북한의 수도 평양의 공간구조
- 33 컬럼 2** - 김정은 집권 2기 평양 살림집 건설의 특징_ 한지만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북한도시연구단 공동연구원)
- 43 컬럼 3** - 평양의 교회를 찾아서 (평양대부흥 이후 - 현재)
- 65 컬럼 4** - 평양에 설립되었던 감리교회의 신학교육 기관들_ 고성은 (목원대학교 강사)
- 75 컬럼 5** - 평안남도에 세워진 성결교회_ 이한복 목사(정선교회)



Cover Story

주체사상탑에서 바라본 김일성광장 모습. 평양직할시에 위치한 중앙광장으로, 대동강의 서쪽에 있으며, 뒷편에는 인민대학습당이 있고, 앞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량,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6년 4월 6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90 컬럼 6** - 평양신학교의 설립 목적과 발전_ 전준봉 (칼빈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 100 컬럼 7** - 여성 목회자의 산실,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_ 김일환 (서울장신대학교 객원교수)
- 106 서평** - 『평양,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 108 평양 출신의 유명인**_ 평양 출신 귀순 인사들 / 문학·예술가
- 113 평양의 대표 음식**_ 녹두지짐 / 대동강송어국
- 114 평양의 사람 사는 이야기**
- 122 언론에 비친 평양**_ 최근 1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평양 소식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 평양소재 교회가 주는 역사적 교훈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평양은 조선시대부터 서울(한양) 다음가는 제2의 도시로서 중국과의 외교와 무역의 핵심 중계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평양은 제2의 도시로서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대륙 침략 야욕의 중점 병참기지로 발전되었습니다. 일제는 1905년에 경의선 철도망을 개설한 이후에 평양역 인근인 남문 외곽 지역에 일본인 거주지역을 개발하고, 만주사변 이후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조선비료, 조선전립 등 대규모 일본 자본의 공업기지를 세웠습니다. 이후로 노동수요가 늘어나면서 1930년대 후반 평양의 인구는 급격히 팽창하여 서울(경성)에 이은 제2의 대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1. 평양지역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평양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개신교 선교사는 영국 웨일스 출신인 회중교회 소속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그는 1863년 중국 상해에 정착하여 몇 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디는 중 조선에 복음을 전할 선교의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셔먼호에 통역사 겸 안내자로 승선하였는데 배는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던 시기여서 결국 조선 관군과 충돌하게 되었고 배는 화공공격을 받아 대동강 쪽

섬 모래톱에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순교 직전에 자신을 처형하려던 포졸 박춘권에게 모리스 중국어 번역 성경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3~4권의 중국어 성경을 쑥섬에 모여든 사람들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이때 대동문을 관리하던 포졸 중 하나인 박영식이 성경 한 권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서 방 벽지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박영식의 조카였던 14살 소년 최치량은 우연히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박영식은 자신의 집을 주막으로 개조하였고, 이후 최치량이 물산 객주로 일하며 번 돈으로 그 주막을 사들여 운영하였습니다. 박영식은 자신이 벽지로 사용한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치량도 박영식에게서 구입한 주막을 운영하면서 성경벽지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처형을 집행하였던 포졸 박춘권도 토마스 목사가 죽어가면서 간절하게 전하였던 한자 성경을 몰래 숨겨서 자기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토마스 목사를 죽인 것에 대한 마음에 두려움과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았습니다. 1890년 8월에 사무엘 마펏(마포삼열), 헨리 아펜젤러(아편설라), 호머 헐버트(할보) 선교사는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마펏 선교사는 평양에 약 2주 동안 홀로 머물렀습니다. 그는 제너럴셔먼호의 닻줄이 걸려 있었던 대동문 근처 최치량의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방 벽에 한자성경이 벽지로 사용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펏 선교사는 1891년 2월에 평양, 의주, 중국 봉천(심양)을 방문하고, 서상륜의 안내로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인 존 로스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9월에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의주와 북부지역을 답사하였습니다. 그는 3차 여행 시에 의주와 평양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다가 평양에 선교기지를 세울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의주 방문 때 서상륜을 통해 이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23살의 청년 한석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펏은 1892년 5월에 휴 브라운(부라운) 의료선교사를 대동하고, 4개월 동안 의주 및 그 주변 지역들을 순회선교 활동을 하면서 15일 동안 신학반을 운영하며 12명의 신자를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양반 가문 출신의 한석진을 선교사를 돕는 조사로 임명했습니다. 1893년 3월에 5차 평양을 방문할 때 윌리엄 스왈론(소알론), 그래함 리(이길함) 선교사를 대동하고, 조사인 한석진의 도움을 통해 최치량의 주막집을 구입하여 선교기지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대동문 안에 소재한 애련당 연못 앞에 위치한 널다리골(판교) 홍종대의 집으로 옮겨서 널다리골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평양에 개신교회가 세워진 데는 중국 봉천(심양)을 중심으로 북한의 압록강

맞은편 안동(단동)과 봉황성 근처 고려문(고리툰)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인 존 로스 목사의 활동과 그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의주 사람인 이응찬, 백홍중, 서상륜, 이성하, 김진기 등이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입국할 수 없었던 존 로스 선교사를 대신하여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북한 말로 번역된 쪽복음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내지로 들여와서 우선적으로 의주와 그 주변 마을과 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보급하였습니다. 백홍준은 고향인 의주에 1882년 자생적인 교회모임을 만들었으며 평안도 지역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여러 차례 체포되어 옥에 갇혔었는데 1892년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서상륜은 고향인 의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1883년 처가가 있는 황해도 장연군 솔내로 가서 자생적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솔내를 거점으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다니면서 수백 권의 성경을 보급하고, 전도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서상륜은 자신의 동생인 서경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한 서경조는 형이 준 성경을 읽다가 깊은 감화를 받고, 예수 믿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1887년 1월 언더우드를 만나러 서울로 온 서경조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의 조사로 잠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는 서울에 머무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새문안교회를 창설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황해도 솔내와 평양을 방문하여 복음의 구도자들에게 성경을 공부시키고, 세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서울에 주재하면서 1887년과 1888년에 두 번에 걸쳐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1888년에는 언더우드와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서울 다음에 제2의 감리교 선교기지로써 평양을 염두에 두고, 1887년에 배재학당 출신의 권서인들을 보내서 성경을 보급시키며 전도하게 했습니다. 마펏 선교사는 이렇듯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속에서 선임 선교사들이 뿌려 놓은 복음의 씨앗과 토대 위에서 평양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이 교회에서 1894년 김종섭, 길선주, 최치량, 한태교, 전재숙, 문홍준, 이동순, 조상현, 박연규 등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최초의 입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박영식과 박춘권도 마펏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넬다리골교회는 평양중앙교회, 제일교회 등으로 불리다가 1903년 평양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장대재 언덕 위에 약 2년에 걸쳐서 조선식 한옥으로 약 120평 규모 72칸의 기억자형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교회 이름이 장대현교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장대현교회는 1898년 마펏과 그레함 리(이길함) 선교사의 자비량 모금 호소에 호응하여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전 교인들이 참여하는 건축헌금을 모았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한 교인이 평균 현

재 돈 가치로 230만원의 헌금을 드렸고, 그 결과 수십억 원의 헌금이 모아져서 100퍼센트 조선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서양식 건축양식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으나 한석진, 길선주, 김종섭 등의 강한 의견으로 조선 한옥 형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펏 선교사는 교인들을 철저하게 성경공부 및 개혁주의신조 및 교리교육을 시켰을 뿐 아니라 1901년 신학반을 시작하여 길선주, 김종섭, 한석진 등을 교육시켜서 장대현교회의 장로가 되게 하였고, 1907년 조선 장로교 최초의 7인 목사 중의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감리교회는 1893년에 윌리엄 홀 의료선교사 가정이 평양에 정착하여 기흥병원을 세우고, 남산현교회를 세워서 활동했습니다. 홀 선교사는 1894년에 가난한 가정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광성학교를 세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와 그의 부인인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는 의료선교사로서 병원을 중심으로 평양 주민들을 치료했을 뿐 아니라 교회 및 학교를 세워서 감리교의 평양선교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평양을 떠나지 않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던 홀 선교사는 전염병인 발진티푸스에 걸려서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인 로제타 홀 선교사는 첫 딸인 에디스를 병으로 또한 잃었지만 한국을 떠나지 않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평양에서 활동하며 광혜여원, 맹인학교와 농아학교 및 선교사 자녀학교인 외국인 학교를 세우고, 서울로 옮겨서 40년이 넘게 성공적인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윌리엄 홀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윌리엄 아서 노블(노보울) 선교사가 평양 감리교선교부의 책임자로 부임하여서 광성학교를 크게 발전시키고, 정의여학교를 세워서 여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장로교 선교사와 연합하여 교육 및 의료선교를 강화하였고, 그의 부인인 매티 노블 선교사는 산모를 위한 근대식 태교와 육아양육에 관한 여성계몽교육에 힘을 썼으며 전도부인을 양성했습니다. 노블 선교사는 전도자 김창식의 도움을 받으며 남산현교회를 성장시켰으며 주변 지역인 강서, 용강, 삼화, 증산 등 평양 이북지역을 함께 순회하며 39개의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창식은 1901년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노블 선교사는 평양 중심으로 북지방회 책임자가 되었고, 김창식 목사는 평양 서지방 감리사로 활동했습니다.

평양은 이렇듯이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의 헌신과 선교활동으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평양의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서북지역 선교의 중심 거점이었고, 북한의 서북지역은 1900년대에는 남북한 전체 교인의 약 75퍼센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2. 평양지역 교회의 성장과 부흥: 선교사들의 효과적인 선교전략과 토착 지도력 개발

장로교의 마펏 선교사는 평양에서 동료 선교사들과 각자의 은사와 소명에 따른 공동체적 팀 선교와 토착화된 사랑방 전도와 토착 교회지도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공부와 신학공부를 개척시기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는 동료 선교사로서 그레함 리(이길함), 윌리엄 마틴 베어드(배위량), 윌리엄 스왈론(소안론), 윌리엄 뉴턴 블레어(방위량), 찰스 프란시스 번하이젤(편하설), 조지 새논 맥쿤(윤산온) 등과 함께 평양 지역을 나누어서 함께 책임을 지고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평양의 주요 구역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개척된 교회를 또한 함께 책임을 분담하여 돌보았습니다. 평양 동부 지역은 마펏 선교사가 사역하였고, 강동지역은 번하이젤, 북부지역인 안주, 영유, 순안은 블레어, 서평양지역은 베어드, 서부지역은 스왈론, 중화, 황주, 곡산 지역은 그레함 리, 남평양지역은 맥쿤이 맡았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을 각자 맡은 지역에 따라 선교사들이 분담해서 돌보았습니다. 1903년 장대현교회에서 개척된 남문밖(남문외)교회는 스왈론 선교사가 돌보았고, 1905년에 세워진 사창골교회(창동교회)는 그레함 리와 블레어, 1906년에 평양 북쪽 지역에 세워진 산정현교회는 번하이젤, 1909년에 세워진 평양 서부 지역에 설립된 서문밖교회는 마펏, 1913년 평양 동북부 지역에 세워진 연화동교회는 찰스 필립스(필립보) 선교사가 돌보았습니다.

마펏 선교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선교사들은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맥코믹 신학교 출신이었고, 마펏, 베어드, 번하이젤, 필립스 선교사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소재한 하노바 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스왈론 선교사는 농과대학 출신이었고, 그레함 리 선교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블레어 선교사는 캔자스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고전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구프린스톤 신학교의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노선을 따르는 학교로서 성경의 권위와 찰스 핫지의 교의신학과 전통적인 영국, 네덜란드의 청교도 신학과 신앙을 고수하는 학교였습니다. 또한 하노바 대학은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실천적 지도자를 키우는데 학교 설립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펏 선교사는 하노바 대학에서 자연공학을 전공해서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학부 과정에서 개혁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쌓았고, 또한 맥코믹 신학교에서 동일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과 신앙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대는 평양에서의 교회 개척과 순회 선교 활동은 물론, 고등 교육 기관과 평양신학교(1901)

의 설립 및 교과과정 운영, 그리고 의료선교를 수행하는 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910년도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서북지역의 학교는 500개가 넘었고, 한반도의 선교사가 세운 학교의 약 70퍼센트가 되었습니다. 1922년에 평양 노회가 중심이 된 남 평안노회는 평양, 평서, 안주의 세 노회로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1945년도에 보고된 평양지역의 장로교 교회 수효는 약 270개이었고, 학교도 약 130개가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 인구가 30만으로 알려졌는데 개신교인들의 수효가 8만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복음화 비율은 약 3퍼센트였는데 평양만은 예외적으로 거의 30퍼센트의 주민들이 신자였습니다. 보수적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과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평양 신자는 주일성수를 철저히 지키므로 주일은 교회 중심으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일반 상점은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고, 모두가 교회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펏과 베어드 선교사는 1897년에 숭실학당을 세웠고, 이후 1907년에 대학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장로교 공의회와 감리교 선교부가 서로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되었는데 대학교의 명칭에서 하노바 대학교의 학풍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장로교 선교부는 1903년에 여성교육을 위해서 숭의여학교를 세웠습니다. 1923년에는 장로교 선교부와 감리교 선교부가 각기 따로 운영하던 장로교 래드병원과 감리교의 기흥병원과 통합하여 평양 연합기독교병원을 세웠습니다.

감리교 선교부는 1930년에 남북감리회가 기독교조선감리회가 되었고, 평양지역 중심으로 서부연회를 세웠습니다. 노블, 아서 베커(백가), 존 무어(문요한) 선교사와 김창식, 박석훈, 신석구, 이윤영 목사 등의 활약이 있었고, 교회 설립, 학교교육, 의료선교 등 다방면에 걸쳐서 종합적인 선교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1940년도 중반부에 평양지역에 약 140개의 감리교회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80여 개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장로교는 교회설립을 우선으로 하는 선교사역을 수행하였다면 감리교는 교회설립뿐 아니라 우매한 민중을 계몽하고,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교육과 의료혜택을 베푸는 교육과 복지 측면의 선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리교회는 평양 사회의 지성인과 지배계층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성결교회는 1913년에 경성성서학당 출신의 이장하, 강태온 전도사가 평양에 파송 받아서 대동문 근처 하수구골 지역에 평양복음전도소를 세웠습니다.

평양복음전도소가 평양성결교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1925년에는 이건 전도사와 김제근 전도사가 상수리지역에 와서 상수리교회를 세우고, 주변 지역으로 많은 성결교회를 세웠습니다. 1931년에 평양성결교회에 이성봉 목사가 부임하므로 평양에 머무른 기간은 7개월 정도였지만 부흥사로의 이성봉 목사의 활약에 힘입어서 교회 수효는 적으나 신앙적 열정과 노방전도, 천막 부흥회 등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1940년도에 평양과 주변 지역에 약 43개의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동아기독교(침례교회)는 원산에 선교본부를 두고 활동하였던 말콤 펜윅(편의익) 선교사의 선교정책에 의하여 평양에 원산 성경학교 출신의 전도사들을 파송하여 평양 외곽이나 농촌지역에 전도소를 세워서 펜윅 선교사가 번역한 만민대중 신약전서를 보급하면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성경공부 중심의 예배 처소를 전도소라는 이름으로 세워 나갔습니다. 1910년대부터 서막 전도소, 남산현 전도소, 동막 전도소 및 평양 북부 농촌지역에 수많은 순회 전도거점인 기도처소를 세웠습니다. 동아기독교의 특징은 원산 성경학교 출신인 조선 전도사들이 교회당을 세우거나 대중적인 전도집회를 통해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및 기독교 전도문서를 보급하면서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중심의 사역을 가난한 일반 서민과 농촌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평양지역에 성경학원을 세워서 전도인들을 양성하였으며 전도소나 기도처소에서 양성된 전도자들을 원산이나 남쪽 지역의 본부인 공주에 보내어 단기 성경학교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구세군 선교부는 1908년에 내한한 로버트 호가드(허가두) 구세군 초대사령관이 1910년에 평양에 구세군 영(교회)을 세우고, 평양시내의 빈민들을 위해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추운 겨울 자선냄비를 통해 모금된 돈으로 빈민들에게 식량과 땀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과 함께 술과 담배 및 도박퇴치운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1920년에 윌리엄 스티븐스(설빈) 선교사가 평양지역 구세군 책임자가 되어서 강서호, 황종률 등의 조선 구세군 사관등과 협력하여 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고아원 등 사회복지 사역을 강화하였습니다. 평양 전역에 구세군 영(교회)이 7개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평양 지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선교사들의 올바른 선교전략과 지역 토착교회지도력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토착교회 지도자들을 동역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 있습니다. 1890년의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선교정책 8개 조항과 1893년의 장로회 연합선교공의회의 10개 조항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층을 우선적인 전도대상으로 하고, 부녀자 및 어린 여성 교육을 실시하며, 초등학교는 현지 교회가 세우도록 하며, 고

등교육은 선교사가 교과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조선어로 성경번역과 신앙 자료들을 번역하여 보급하고, 외국 선교부의 자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현지 교회의 자급, 자치, 자전 능력을 함양하며 성경공부, 교리학습반, 농한기 때를 이용한 겨울 사경회 및 단기 신학반 등을 통해서 토착교회 지도력을 양성하며, 신학교육을 통해서 조선인 교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나 병원을 세우는데 있어서 복음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고, 병원에서의 환자치료는 단지 육체적 치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를 통한 영혼구원과 가정 구원과 지역 교회설립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보수적 개혁주의 청교도신학에서 나오는 복음전도 우선의 선교 전략이며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기독교세계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펏 선교사는 평양 개척선교 초기에 단기 신학반을 운영하며 토착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다가 1901년에 방기창, 김종섭 두 학생을 데리고 그의 사랑방에서 평양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평양신학교는 평양에 주재하는 맥코믹 신학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거의 교수로 참여했습니다. 장로교 연합공의회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호주 장로교 선교사인 겔손 앵겔(왕길지)과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인 플로이드 해밀턴(함일돈)과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이며 버지니아주의 유니온 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한 윌리엄 레이놀즈(이눌서) 선교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이 편성한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성경주석은 경건한 개혁주의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 주석과 멕시코 선교사 출신이며 연합장로교 목사였던 제임스 데일 주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데일 주석은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학문적이기보다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며 실제적인 예화와 선교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조직신학은 마펏 선교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기초로 하여 성경교리를 가르쳤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자인 찰스 하지의 신학사상이 주로 전달되었습니다. 찰스 알렌 클라크(곽안련) 선교사는 맥코믹 신학교와 시카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주로 실천신학 분야의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친 교과목은 목회학, 설교학, 장로교 정치문답, 권징조례 등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 예전과 예배학 및 목회학 등에 지금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앵겔 선교사는 독일계 호주인으로 성경언어에 정통했으며, 히브리어와 헬라어 및 성경원문 교육을 실시했고, 유럽의 개혁교회 역사에 해박하여 교회사를 가르쳤습니다. 유니온 장로교신학교 출신인 레이놀즈 선교사는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한국교회에 당시 중국의 조직신학자로서 가옥명의 신도학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가르쳤습니다. 가옥명의 신도학은 전부 5권으로 구성되었는데 기존의 조

직신학의 전통적 분류를 따르면서도 중국교회 특유의 영성과 토착적 신학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는 가옥명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신도학을 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재로 채택하였습니다.

가옥명에게 있어서 신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생명적 신학이며, 신자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충만을 통해서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옥명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는 고난의 신학화를 논하였습니다. 가옥명은 중국에서 영성훈련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중국교회 지도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가옥명의 이런 신학사상은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에게 일제 식민시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기도와 그리스도와 내적 연합을 통한 거룩함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일제 제국주의의 핍박이 거세질 때 환란과 핍박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자들의 당연한 십자가의 몫이며 성화의 필수 과정이며 이를 성령충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신학적 세계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종말론은 고난의 시기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한국교회 안에 세대주의 신학이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놓았습니다. 평양신학교는 이렇듯이 체계 있게 보수적인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과 신앙을 가르쳤으며 한국교회 상황에 맞는 실천신학적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최초의 평양신학교는 1년에 3개월 정도 집중 학교수업을 하며(3월~6월), 나머지 9개월은 각자의 사역지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신학연장교육 체계였습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1회 졸업생인 방기창, 한석진, 길선주, 이기풍, 서경조, 송인서, 양전백 등 7인의 목사가 1907년도에 배출이 되었고, 이들 중에 길선주, 송인서, 한석진 등이 평양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평양지역 출신이지만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제주도와 호남 지방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당시 순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선교사와 함께 이렇게 개척되어진 교회들을 돌보고,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장대현 교회를 섬겼으며 전국적인 부흥사로서 만주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1907년 1월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평양대부흥의 주역으로서 한국교회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성교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1907년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안애리), 벨마 스누

쿠(설마누) 여성선교사들이 평양여자성경학원을 세웠습니다. 정규 과정이기보다 1년에 몇 주씩 단기간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형태로서 주로 지역교회 여전도사와 순회 여성전도인을 양육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과과정은 일반 성경주해, 교리 및 요리문답과 기본적인 조직신학 기초 등을 교수했습니다. 실천과목으로는 개인전도법, 주일학교교수법 등을 가르쳤고, 한글, 위생학, 아동양육법, 가사관리 등도 가르쳤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자에 준하는 전문 여성교회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1923년 마가렛 베스트(배마가렛) 선교사가 평양여자신학원을 세웠습니다. 3년 정규 과정이었으며 교과과정도 평양신학교에 준하는 신학과정을 교육시켰습니다. 일반 신학과목은 거의 평양신학교와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으나 실천신학과목은 여성사역자의 필요에 부합하여 심방학, 주일학교 운영법, 교회음악, 타 종교연구 등을 가르쳤습니다. 평양여성신학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일본 요코하마여성신학교와 연계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학교 출신으로 수많은 전도부인을 양육하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했으며, 최초의 중국에 보낸 여성선교사로서 김순호 전도사와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김마리아 등이 배출되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다양하면서도 각 교단 배경 특유의 고유한 신학적 실천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로 경쟁적이거나 다투지 않고, 연합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임재와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와 도덕적 순결성의 회복과 사회변혁 운동을 일으켰고, 개 교단 차원뿐 아니라 초교단적으로 모든 교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백낙준 박사가 평가하듯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삼일 밤 수요찬양예배와 새벽기도회를 한국교회의 영적 전통으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3. 평양 교회의 영광과 배교: 한국교회에 주시는 경계와 경고

일제 군국주의자들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대륙의 침략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1930년도 중엽부터 평양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소위 황국신민화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반대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송실학교와 송의여학교, 평양신학교 등이 무기 휴

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로는 평양 산정현교회의 주기철, 창동교회의 채정민, 신현교회의 이유택, 평양신학교 교수인 박형룡, 김인준 목사, 순회 전도 목사인 최봉석 등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감옥에 갇혔으며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주기철, 최봉석, 채정민 목사 등은 순교했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의 장로이며 의사인 박관준 장로가 일본제국의회에 방청객으로 참여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문서를 돌리다가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에 순교했습니다. 평양 창동감리교회에서 시무하였던 강종근 목사가 순교하였고, 평양성결교회의 박봉진 목사가 순교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교회의 자람이요, 순교자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한국교회의 영광스러운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일본 천황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경배하는 종교의식의 성격을 가진 일본 국가신도의 우상화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정부의 최고통치자에 대한 공경의 동양 고유의 미풍양식으로 거짓되게 포장하여 이를 수용한 배교하는 평양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제 국군주의자들의 총칼의 위협과 회유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타락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목사로서는 평양 노회장이며 주기철 목사를 면직하는데 앞장을 섰던 장운경, 평양 산정현교회 목사이며 조선예수교장로회 28회 총회장을 지냈던 최지화, 창동교회 목사이며 주기철 목사 가족을 산정현교회에서 강제로 쫓아내는데 앞장을 섰던 이인식, 평양 신앙리교회의 이승길 목사 등이 있었고, 친일 조직인 평양기독교친목회의 회장인 평양 산정현교회의 장로인 오문환 등이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장로교회는 27차 총회시에(1938, 9.9-16) 평양, 평서, 안주 노회가 앞장을 서서 긴급동의안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했으며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장로교 27개 노회 중에 17개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모든 총대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입니다. 이때 총회에 참석했던 선교사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으나 이미 총회 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일제의 경찰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총회 석상에서 모두가 쫓겨났습니다. 감리교회는 당시 총리사였던 양주삼 목사의 성명서 하나로 신사참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청의 지시로 신사참배를 옹호했습니다. 성결교와 동아기독교(침례교)는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결국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며 성결교회는 1943년, 동아기독교회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교단이 강제적으로 해산됐습니다. 그러나 성결교회와 동아기독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교단이 해산됐으나 지하로 잠적하여 해방되기까지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켰으며 농촌 오지에서 신앙적 활동

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평양신학교 출신의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목사들이 일제의 강압이든지 회유이든지 신사참배에 굴복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제의 식민정책을 추종하여 자신의 지위와 안위를 추구했다는 것과 남평안 노회에서 분리된 평양, 평원, 안주 노회 교회지도자들이 신사참배 총회 결의에 앞장을 섰다는 것은 평양 지역 교회의 영적 타락과 영적 쇠퇴 즉 배교의 길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예수교장로회 28차 총회(1939)에서는 총회가 평양신학교를 직영으로 재개교하기로 결의하여 일본 신학교에서 공부한 채필근 목사를 교장으로 임명하고, 주로 일본에서 공부한 심규식, 김태복, 이승길, 김덕준 목사와 일본인 목사 다나카, 호소가와 등을 교수요원으로 삼아서 해방 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때 평양신학교의 신학은 일본 신도를 용납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 성격을 띠었으며, 일제 식민정책을 적극 추종하는 황국사관적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평양신학교의 신학적 변질은 교단의 타락과 맥을 같이 하였습니다. 2000년도 중엽에 평양에 생존해 있는 뿌리 신자인 그루터기 교회지도자가 인편을 통해서 개인 서신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지도자는 “평양에서 이루어진 신사참배의 우상숭배와 교회 지도자의 타락과 배교는 평양의 공산정권 치하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신자들에게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회개의 기도와 죄사함의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루터기 신자들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의 교회가 황폐해지고,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숭배의 본부가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북한교회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미국, 영국, 구소련) 결의에 따라서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났고, 3.8선 이북으로는 구소련의 공산군대가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각기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기 동안에는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되 미소공동위원회가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교회지도자와 교인들은 남쪽의 이승만, 김구 정부와 더불어 신탁통치안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교인들은 공산주의 이념과 공산당의 실체를 알고 있기에 더욱이 앞장을 서서 반대했습니다. 처음에 북한의 공산주의 조직은 신탁통치안을 반대하다가 구소련 스탈린의 지시로서 그 반대하던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꿔 버렸습니다. 스탈린은 북한만이라도 공산정권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하겠다는 숨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서 신탁통치안을 반대하였는데 구소련 공산군대와 김일성을 필두로 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전역을 공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조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우선적으로 공산당의 기반을 놓기 위해서 토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일성이고, 부위원장으로는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연안파의 김두봉과 서기장으로는 김일성의 외종 6촌 삼촌이며 평양 고정교회 목사이던 강양욱을 세웠습니다. 개인이든지 종교 기관이든지 토지를 5정보(15,000평)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국가가 몰수하여 일반 농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라고 하였습니다. 종교 기관인 교회나 사찰이 5정보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도 몰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농민에게 분배된 것은 전체 토지의 13퍼센트였고, 나머지는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5정보 이상 토지를 가진 사람을 지주라고 부르면서 소위 불로계급으로 낙인을 찍고, 자기의 고향과 전답을 떠나서 오지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한다기보다 공산화를 위한 전초 작업이었습니다. 공장, 광산, 철도, 은행 등 일제가 남긴 주요 산업시설들을 국가 소유로 전환했습니다. 공산당이 장악하는 중앙집권적 행정구조와 사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상 국가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철저한 자숙과 회개 기간을 최소한 2개월 동안 가지며, 이 기간동안 모든 교회 직책을 맡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대다수의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목사들이 반대를 했으며 또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여 감옥에 갇혀서 모진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 일부 출옥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북한의 기존 교회를 전부 없애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교회당과 교회조직을 만들자는 극단적인 혁신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전역을 공산화하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구소련 공산군대의 전적인 후원을 받으며 교회와 신자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은 1946년 3월 1일 기념행사를 공산당이 주도하여 시행하려 했는데 북한교회 지도자들은 장대현교회에서 따로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김일성은 1946년 11월 3일 주일 날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의원 선거를 시행하였는데 북한교회지도자들이 주일성수 때문에 다른 날로 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고, 북한교회와 공산당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3월 1일 행사를 평양역 광장에서 거행하는 중에 남한의 반공 우익 결사 단체인 백의사 요원이 던진 수류탄 투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또한 강양욱은 3월 12일 자기의 집에서 백의사가 보낸 요원들의 수류탄 투척으로 자신은 구사일생 살아남았지만, 아들과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의 공산화

를 위한 가장 방해되고 적대적인 세력으로 기독교를 말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양면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기독교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강양욱을 통해 만들어진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강양욱이 끌어들이는 공산주의 사상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주의 계열인 좌파적 기독교계 사람들과 각 교단의 대표적 지도자들과 과거의 친일 교회세력을 포섭하여서 해방 이후 재개교된 평양 신학교 및 성화신학교를 통폐합하여 기독교 신학교를 만들고, 모든 교단을 없애고 북조선 기독교 연맹 산하의 단일 조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산정현교회 장로인 조만식 장로는 이윤영 목사, 김병연, 한근조 장로 등 평양의 명망 있는 기독교 실업인들을 규합하여 조선민주당을 만들어서 북한의 공산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가 체포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1947년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김화식 목사가 김관주, 송정근, 황봉찬 목사와 고한규 장로 등 4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논의하여 기독교민주당을 창설하려다가 전부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이 북한교회를 대표하는 평양의 장대현교회, 산정현교회, 남문밖교회, 창동교회, 감리교의 남산현교회 등의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북한의 공산화를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으며, 소수의 남쪽으로 월남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전부가 북한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시무했던 교회들은 전쟁 중에 파괴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재건축되거나 도시개발 등으로 전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북한교회는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5도 연합노회를 만들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무너졌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평양 신학교를 재건하고, 김인준 목사를 신학교 교장으로 세웠으며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전도 집회를 통한 교회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 5도 연합노회에 속한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이 세워지기 전후에 북조선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하여 북한에 공산정권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투옥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북조선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한 교회 지도자라도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순응하거나 사회주의 사상에 저항하는 사람은 6.25 전쟁 중에 처형되었습니다. 이렇게 순교한 교회지도자 중에 연맹 위원장이었던 김익두 목사와 부위원장이었던 평양 창동 교회의 배형식 목사 등이 있습니다. 평양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 남쪽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두고, 홀로 떠날 수 없는 목사와 장로의 책임감과 기도 중에 북한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재물로 자신을 드리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들 중에 대표적인 목사는 산정현교회의 김철훈, 정일선 목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기철 목사의 후계자로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분들인데 세 분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수감되고, 산정현교회가 일제에 의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의 가족을 돌보고, 교인들을 가정 중심으로 지역 연락망을 만들어 돌보았던 백인숙, 장수는 여전도사가 구덩이에 생매장당하는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 5도 연합노회에 의해서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던 김인준, 이성희 목사가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평양 신현교회를 재건하고, 교회와 교인을 돌보기 위해서 남쪽으로 피신하는 것을 거부했던 이유택 목사가 순교했습니다. 5도 연합노회의 핵심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평양 남문밖교회의 허천기 목사가 교회와 교인을 두고, 남쪽으로 피신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분들 외에 많은 분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남쪽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북한에 남아서 북한교회와 교인들과 생사를 같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교인들을 돌보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평양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지도자로서 환란 중에 교인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교를 각오하며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교회가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며 배교와 타락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민족과 한국교회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며 뱀세메스의 암소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 없는 제물로 바치는 평양 교회 지도자들의 순교의 제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순교의 제단 위에 때가 되면 북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 뿐 아니라 전 한반도의 교회 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4. 결어: 평양 그루터기 교회와 교인의 증언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은 남북교류가 시작이 된 1970년대 이후로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북한 공산정권이 대내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공산 진영뿐 아니라 서구 자유세계 진영과의 교류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은 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재등장했습니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WCC의 회원교회로서 가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으나 이에 개의치 않고, 준회원의 자격으로 WCC 산하 분과인 정의와 평화 분과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북한교회를 대표하면서 1990년대 말에 이름을 조선그

리스도교연맹으로 바꾸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도 교회조직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988년에 평양에 봉수교회를 설립했고, 1992년에는 김일성의 외조부가 장로로 시무했던 평양 대동문 고평리의 하리 지역에 있었던 칠골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특사가 와서 축성식을 거행하였던 카톨릭 성당을 평양 선교구역 장충동에 세웠습니다. 김정일이 2002년 푸틴을 만나기 위해서 러시아 연해주 하바롭스크를 방문했을 때 정교회 성당을 참관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관할하의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2006년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교회나 성당들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그루터기 교인들은 이렇게 세워진 종교기관에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대를 잇는 공산정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김정은 정권은 노골적으로 법령을 만들어서 지하에 숨어있는 단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사회통제와 감시기제 강화와 철저한 단속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13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은 지하에 숨어있는 모든 종교 미신적 세력을 일망타진, 뿌리를 뽑았다고 북한 공안기관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평양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은 숨어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혹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동안 평양 암시장에서 성경책이 고가로 거래되므로 북한에서 외국을 오고 갈 수 있는 고위 관료들 가운데 성경 밀수를 통해서 암시장에서 성경을 판매하므로 큰 이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자기의 외숙모가 걸려들어서 체포됨으로 외국에 나가 있던 외교관이 연좌죄의 여파를 두려워하여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일도 있습니다. 외국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의 영사관이 있는 중요 국가입니다. 이곳에 특정 임무 때문에 오고 가며 외국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북한의 고위 관료가 은밀하게 성경책 몇 권을 외국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보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의 암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그루터기 신자들은 평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교적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사회통제와 감시가 심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김정일,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평양을 북한의 어떤 지역보다도 체계 있게 조직적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여가와 유흥시설을 발전시켰습니다. 1980년대에 조성된 광복거리, 2000년도에 개발이 된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와 창전거리,

2020년대 이후 김정은이 야심 차게 건설하는 송화거리와 화성지구 5만 세대 건설 등이 있습니다. 건설이 많을수록 공간도 활동영역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평양 교인들은 과거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믿음의 선조들의 경건함과 신앙의 열정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양 교회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 연단을 받게 하시고, 지하로 숨어서 신앙 생활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교회와 신학교가 해체될 때 신앙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과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평양 그루터기 교인들의 신앙고백은 그 깊이와 넓이와 은혜의 폭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준비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회계층과 지역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컬럼 1

북한의 수도 평양의 공간구조

1. 들어가며

“공화국의 수도”, “혁명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양은 해방 후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1946년 평안남도에서 분리되어 평양특별시로 승격되었다. 6.25 전쟁의 막바지인 1952년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평양 직할시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북한 유일의 직할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평양직할시는 중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등 19개 구역과 강남군, 강동군 등 2개 군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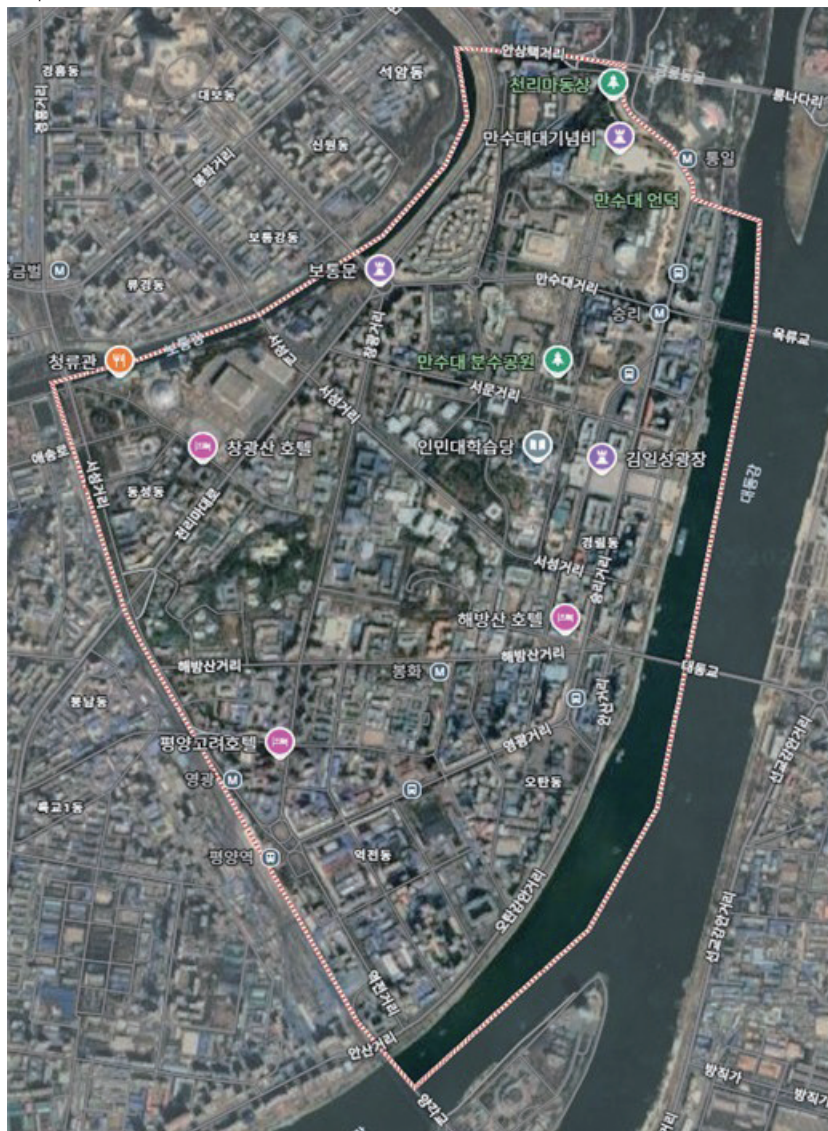
평양의 중심부는 본평양, 동평양, 서평양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본평양은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을 포함하는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다. 서평양은 본평양 서쪽의 만경대구역을 중심으로, 만경대 혁명사적지를 중심으로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며 유원지,



평양의 행정구역도 (2026.
01. 30. 위키백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필자 편집)

고층 아파트, 집단 체육 시설이 건설되어 신시가지로 발전하였다. 동평양은 대동강, 동대원, 선교구역을 아우르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이 시작되었고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 당국은 이곳에 시가지를 재개발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외국인 주거지, 대학, 병원 등을 건설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대동강구역의 신시가지가 개발되어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이 글에서는 평양의 19개 구역과 2군 중 중심을 이루는 10개 구역을 선정하여 각 구역의 공간구조를 정리하고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평양 중구역의 주요 시설 (출처: 2026.01.29. Google Maps)



2. 구역별 특성

2.1. 중구역

역사적으로 평양은 대동강과 보통강 사이의 지역을 지칭했다. 두 강 사이 땅의 북부는 중구역으로, 남부는 평청구역으로 구분된다. 평양은 현재의 중구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정부의 각종 기관, 유적지, 박물관 등이 집중되어 있다. 6.25 이후 가장 먼저 평양시 복구건설계획에 따라 승리거리, 서문거리, 창광거리 등이 조성되었다.

해방산동에 위치한 김일성광장은 북한의 심장으로 75,000㎡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은 각종 기념일마다 대

규모 군사 열병식이 벌어져 남한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장소이다. 광장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주석단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길 시작점’ 표지석은 북한 도로 거리 측정의 기준이 된다. 열병식을 비롯한 국가행사시 광장 반경 15km가 통제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김일성광장을 중심으로 인민대학습당, 대외경제성, 조선노동당 중앙청사, 국무위원회, 외무성이 위치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청사의 뒤쪽에는 ‘15호 저택’에 들어갈 수 있는 차로가 있다. 이곳은 김정은 위원장의 주거공간으로 알려졌다.

김일성광장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대원구역에 있는 주체사상탑과 마주보고 있다. 광장의 동북쪽에는 대동문이 있다. 이 문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현재의 건물은 1635년에 지어졌다.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제너럴셔먼호에서 노획한 쇠사슬이 대동문 2층에 걸려있다. 대동문 근처의 연광정은 고려시대에 건축된 정자인데,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1670년에 재건되었다. 연광정 옆에는 임진왜란 때 적장을 암살하다 죽은 기생 계월향을 기념하는 비석이 서 있다. 연광정의 서쪽에는 단군과 동명왕의 신묘인 숭령전과 전승 속 국가인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시조인 기자(箕子)를 추송(追崇)하는 위패가 있는 송인전이 있다.

대동강에 있는 양각도와 룡라도도 중구역에 포함된다. 양각도(羊角島)의 명칭은 섬의 모양이 양의 뿔을 닮았다는 데에서 유래했다. 이곳에 있는 양각도호텔은 평양에서 류경호텔 다음으로 큰 규모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룡라도에는 스포츠시설과 유흥시설이 많다. 5월1일경기장은 1989년 13회 청년학생축전의 개최를 위해 건설되었다. 이곳에서는 ‘아리랑’을 비롯한 집단체조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이곳에서 연설이 진행되었다.

평양역에서 보통문까지를 잇는 창광거리는 1980년대에 김정일의 지시로 20~30층의 고층 살림집들이 들어섰다. 이곳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외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이동이 극도로 통제되는 금지구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보통문 맞은편에는 승리거리가 있다. 이 거리는 청년공원 주입구에서 평양대극장까지 이어진 평양의 중심



김정은 위원장의 주거시설로 알려진 15호 관저. 1) 관저와 지하시설을 연결하는 건물, 2) 관저, 3) 관저 입구, 4) 또 다른 지하시설 연결 통로. (출처: VOA)

열어붙은 대동강과 대동문의 옛 모습 (출처: 일본 가쿠슈인 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청류관도 중구역에 있다.

2022년 중구역에 최고급 주택단지인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완공되었다. 이곳은 금수산 주석궁이 지어지기 전까지 김일성이 살던 곳으로 주택구 완공시 김정은 위원장은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그 틀 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 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고층 아파트가 아닌 고급 빌라 형태로 대다수 세대가 대동강변 전망으로 설계되었다.

대동강변 교구동에 있는 김책공업대학은 북한 최고의 이공계 종합대학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공항부와 철도공학부를 모체로 1948년 평양공업부가 설립되었고, 1951년 6.25에서 사망한 김책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김책공업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1988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2.2. 모란봉구역

모란봉구역은 중구역의 북부에 위치한 구역으로 1960년 서성구역의 15개 동과 대성구역 2개동이 분리하여 신설되었다. 명칭은 평양의 정원으로 불리는 모란봉에서 따왔다. 모란봉은 해발 95m의 구릉지로 시내에 우뚝 솟아있고

모란봉 유원지에는 성곽, 정자, 누각이 있다. 이곳은 모란봉 남쪽에 있는데 6.25 당시 폭격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행정구역상 중구역에 속한 모란봉극장은 전쟁 기간 각종 회의와 행사가 진행되었던 곳이다. 모란봉공원 동쪽에 있는 개선문은 평양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다. 이 건축물은 김일성의 70번째 생일을 맞아 1982년 4월 14일에 완공되었다. 높이는 60m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몇 개의 방이 있다.

모란봉구역은 개선문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칠

성문거리, 남서쪽으로는 모란봉거리, 북쪽으로는 개선문거리가 뻗어있으며, 모란봉 서쪽 대동강에 놓인 청류교는 룡라도와 대동강 유역을 연결한다. 또한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민주조선신문, 평양신문, 외국문도서출판사, 인민보건사 등 언론사와 출판사가 밀집해 있다.

모란봉구역은 붉은별역, 삼흥역, 전우역, 전승역, 개선역 등 5개 전철역이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중 전우역은 북한 지하철의 유일한 환승역이다. 북한의 지하철은 천리마선과 혁민선 2개의 노선이 있는데 천리마선은 서성구역의 붉은별역을 출발하여 평창구역의 부흥역까지 운행하며, 혁민선은 대성구역의 락원역부터 만경대구역의 광복역까지 운행한다. 북한의 지하철은 한국보다 1년 빠른 1973년 9월 부흥역-붉은별역 구간을 개통하였다. 현재 2개 노선 17개 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길이는 혁민선 20km, 천리마선 14km 총연장 34km에 이른다. 1970년대 지하철을 대동강 동쪽까지 연장하려고 시도했으나 하저터널 건설 중 여러 차례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중단되었다.

2.3. 평천구역

구 평양 시가지의 남부는 현재의 평천구역으로 발전하였다. 평천(平川)은 ‘평탄한 곳에 흐르는 개울’이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평천방’으로 불렸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까지 시가지의 남부 외곽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어 일본인들의 주거지역과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섰다. 평천구역의 중심에는 평양역이 있다. 1906년 경의선의 개통과 함께 문을 연 평양역은 6.25 이후 1958년에 재건축되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 후 철도의 노선명도 평양을 중심으로 바꾸었다. 이를테면 기존의 경의선을 평의선으로, 경부선을 평부선으로 바꾸는 식이다. 당시 평양역은 북한 철도의 중심이자 기준 역이 되었다.

평천구역에는 북한의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대표적으로 평양화장품공장은 ‘북한의 샤넬’로 불리는 ‘은하수’ 화장품을 생산한다. 이 화장품은 김정은이 직접 마크와 상표 도안을 만들었다고 알려졌으며, 북한의 언론은 은하수 화장품 25종이 유라시아경제동맹의 국제품질인증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평천구역의 어린이식료품공장은 애기젓가루(분유), 남새(야채)가루, 사탕, 두유와 같은 어린이 식품을 생산한다. 새마을동에는 북한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알려진 평양화력발전련





평양 평천구역 미래과학자거리로 자리를 옮긴 창광상점. (출처: 통일뉴스)

합기업소가 있다. 이 발전소는 평양뿐 아니라 남포, 송림, 대안의 주요 기업소에 전력을 공급하며, 발전 설비 용량은 50만kW인데 대부분의 설비를 독일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표적인 상점인 창광상점이 평천구역에 있다. 이곳은 1982년 김정일의 지시로 중구역의 창광동이 개발될 때 문을 열었고 미래과학자거리가 개발되면서 2015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

다. 창광상점은 남한의 대형마트와 유사한 형태로 5개 층에 걸쳐 완구, 일용 잡화, 식료품, 유아용품, 전자제품, 체육용품 등의 매장을 갖췄다. 또한 일종의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전망이 좋은 5층에는 대동강을 바라보며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다.

평천구역 남쪽 대동강변에는 미래과학자거리가 개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2010년에 착공하여 2015년 11월에 완공되었으며, 행정구역의 명칭 역시 '미래동'으로 변경되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미래과학자거리는 일종의 과학자 주거지구로 700세대가 김책공업대학 교수들에게 분배됐으며 평양 시내에 위치한 대학의 교원과 연구자들에게 다수 분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과학자거리의 입구에는 20m 높이의 '미래과학자거리상징탑'이 세워져 있다. 이 거리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물은 은하타워이다. 이 타워는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꽃과 같은 모양을 한 53층의 주거용 건물이다. 이곳에는 상점과 식당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과거 통일교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보통강호텔과 세계평화센터가 평천구역 북부 보통강변에 위치한다.

2.4. 보통강구역

보통강구역은 보통강과 보통강지류 사이에 위치하여 마치 두 강의 해자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징이 있다. 이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 지역으로, 보통강 개수공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홍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보통강이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평양으로 유입되어 시내 서부에서 크게 곡류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북한 정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수공사를 계획했고 1946년 봉화산 북쪽, 현재의 봉수교회 앞에서 안산교까지 새로운 물길을 냈다. 이로 인해 기존 보통강과 새로 낸 물길 사이에 섬과 같은 형태의 보

2012년 홍수 피해를 입은 보통강 일대를 북한 당국이 보수하고 모습 (출처: 연합뉴스)



통강구역이 생겨났다. 북한 당국은 1971년 평양영화대학에서 창작하여 공연한 <보통강의 서사시>라는 영화를 통해 보통강 개수공사의 업적과 참가자들의 노력을 선전했다.

보통강에 놓인 만수교는 보통강구역과 모란봉구를 연결한다. 만수교를 기준으로 이북은 모란봉구역의 모란봉거리이고, 이남은 보통강구역의 봉화거리이다. 봉화거리는 보통강구역의 중심거리이다. 이 거리에는 1980년대부터 15~40층의 초고층 살림집이 세워졌다. 평양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류경호텔이 봉화거리의 서북쪽 서장동에 위치한다. 보통강구역의 북쪽에 위치한 봉화산에는 고위급 간부들이 사용하는 숙소와 국무위원회 청사건물이 있다. 이 지역은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차단된다.

류경호텔 옆에는 평양교원대학이 있다. 북한의 교원대학은 소학교와 유치원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한의 교육대학과 유아교육과가 합쳐진 형태로 볼 수 있다. 평양교원대학은 2017년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본보기 대학'으로 선전되었다. 붉은거리에 위치한 평양컴퓨터 기술대학은 컴퓨터 관련 기술자들을 키우고 있으며 이곳에서 워드 프로그램 창덕, 단군 등이 개발되었다. 신원동에 있는 평양제1중학교는 북한에서 제일 가는 명문 중학교로 전국적으로 청소년 인재를 받아들이고 있다.

2.5. 선교구역

선교구역의 선교(船橋)는 '배다리'의 한자식 표현이다. 배다리란 임금의 행차 등의 중요한 행사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 작은 배를 한 줄로 여러 척 띄워 놓고 그 위에 널판을 건너질러 깐 다리를 말한다. 대동강에서는 이러한 배다리가 가설되곤 했는데, 그곳의 동편을 선교리라 불렀다. 선교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 지금의 선교구역이 되었다. 선교구역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중구역 남부와 마주보고 있으며, 선교구역과 중구역 사이에 양각도가 있다. 선교강안거리와 청년거리 그리고 새살림거리를 중심으로 구역의 도심이 형성되었으며 경공업공장과 오래된 주택이 많다. 선교구역을 관통하는 중심거리는 청년거리인데 평양시 북구건설총계획에 따라 1958년

선교구역의 주요 기업소로는 평양기초식품공장, 선교김치공장, 평양곡산공장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들과 평양방직공장, 평양선교평직공장, 평양 일용품공장 등의 직물 공장이 있다. 이 중 방직공장은 북한의 언론에도 자주 등장



평양 평천구역 미래과학자거리 전경 (출처: 연합뉴스)



선교구역에는 방직공장 및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다. (출처: 쿠키뉴스)

한다. 방직공장 주변에는 개인의 집에 재봉틀 기계를 들여놓고 작업하는 소규모 봉제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또한 선교구역은 평양의 중심부를 이루는 10개 구역 중 단층집의 비율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구역으로 여겨진다. 선교구역에는 평부선의 대동강역과 북한 유일의 공식 성당인 장충성당이 있다. 1988년 건축되었으며 착공 직후 교황의 특사가 방문해 축성식을 거행했다.

선교구역의 대학으로는 경공업 분야의 기술자와 개발자를 양성하는 한덕수경공업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1959년 9월 김책공업대학 섬유공학부와 함흥화학공업대학 식료공학부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1995년 재일조총련 의장 한덕수의 이름을 따 한덕수경공업대학으로 개칭되었다.

평양외과대학은 1985년 6월 외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평양고등의학전문학교로 설립되었다. 김철주사범대학은 김일성의 동생 김철주의 이름을 붙인 학교이다. 북한의 사범대학은 중등교원 양성의 기능 이외에도 노동당 일꾼들을 위한 정치사상교육의 기능을 담당한다.

2.6. 동대원구역

동대원구역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중구역과 마주하고 있으며, 구역의 북단에는 옥류교가, 남단에는 대동교가 위치한다. 이곳에는 과거 조선시대 관원들이 출장 중 쉬어가던 일종의 역참 성격의 시설인 동대원(東大院)이 있었다. 옥류교와 대동교 사의의 강변에는 강안공원이 있는데 연못과 바위로 조성된 정원이다.

동대원구역의 중앙 대동강가에 주체사상탑이 솟아있다. 주체사상탑은 높이 170m에 이르는 세계 최고 높이의 석탑으로, 김일성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탑은 25,550개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숫자는 김일성이 살아온 날의 수를 의미한다. 탑의 상부에는 20m 높이의 햇불 조각이 있으며, 탑 앞에는 노동자, 농부, 지식인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30m 크기의 동상이 있다. 주체사상탑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다. 관광객들은 5유로를 내면 전망대에 올라 주변을 조망할 수

주체사상탑 전망대에서 바라본 평양 전경 (출처: 통일신문)



있다.

동대원구역에는 김형직사범대학, 평양미술대학, 평양연극영화대학, 조선체육대학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다. 위의 4개 대학은 각각 북한에 있는 사범대학, 미술대학, 연극영화대학, 체육대학 중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그 밖에도 당 간부 양성을 위한 금성정치대학과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있다. 금성정치대학은 1950년 5월 5일에 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 간부를 양성하는 민청중앙학교로 개편되었고, 민청이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로청대학으로 승격되었다가 1974년 11월 1일 금성정치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금성정치대학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근로단체 간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대부분은 제대군인과 산업현장의 노동자 출신이다. 조선노동당을 간부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고급 간부 양성을 목표로 1946년 6월 1일 북조선공산당중앙당학교로 발족하였다. 이후 1972년 4월 김일성고급당학교로 개칭되었고, 1973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학원과 통합되었. 최근(2025년 11월 3일)에 사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일성고급당학교의 교수 출신이다.

동대원구역의 삼마동은 삼마약수로 유명하다. 삼마약수는 삼마산의 여러 우물에서 솟는 물을 상품화 한 것이다. 북한의 언론은 삼마약수가 만성간염, 담낭담도염, 만성위염을 비롯한 소화기 질병과 각종 피부병에 좋다고 선전한다.

2.7. 대동강구역

대동강구역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중구역, 모란봉구역을 마주하고 있고, 강 중앙에는 룡라도가 있다. 대동강 구역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공군 비행장이 있었는데 6.25 전쟁 중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1951년 1월 김일성의 도시계획 관련 담화에

평양 대동강구역 주요 시설 (출처: 2026.01.29. Google Maps)



서 “동평양에 있는 비행장을 시외로 옮기고 현대적인 거리를 예견할 것”을 지시한 이후 비행장이 폐쇄되어 개발지가 조성되었다.

대동강구역에는 대학거리, 동대원거리, 문수거리, 사동네거리 등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거리는 문수거리이다. 1980년 11월부터 3년간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동평양 북부의 중심거리로 자리매김하였다. 문수거리 좌우로 1만 7000세대의 살림집과 청년중앙회관, 동평양대극장, 김만유병원, 대성백화점 등의 주요 시설이 건설되어 문수지구로 명명되었다. 동평양대극장과 청년중앙회관은 모두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해 건설되었다. 동평양대극장은 1950~70년대에 건축된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모란봉극장 등에 비해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훨씬 현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뉴욕필하모닉 평양 공연을 비롯한 남한 가수들과 해외 주요 극단의 공연이 주로 동평양예술극장에서 열렸다.

대동강구역의 문수지구에는 각국의 대사관들이 밀집되어 외교가를 이룬다. 현재 스웨덴,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대사관들이 입주해 있다. 과거 UN 산하 각종 기관의 대표부와 국제구호단체의 사무실을 비롯한 각종 공관도 철수 이전까지 있었다.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평양에 주재했던 외국인들이 촬영한 영상에도 자주 등장한다.



평양 대동강구역에 있는 대표적인 여가 시설 류경원 전경 (출처: 뉴스1)

북한 정권이 말하는 3대 민생공사시설은 류경원, 인민노천스케이트장, 로라스케이트장이다. 이 세 시설은 모두 대동강구역 남부에 밀집해 있다. 류경원 안에는 대중목욕탕, 사우나, 미용실, 헬스장, 탁구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갖추어 있다. 3대 민생공사시설 바로 옆에는 당창건기념탑이 있다. 이것은 1995년 조선로동당 창건 50년을 기념하여 50m의 높이로 세워졌다. 망치, 낫, 붓을 든 손이 조각되어 있고, 둥근 띠가 세 개의 조각상을 묶고 있는 형상이다. 대동강구역의 중심부에는 평양산원, 고려의학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 평양천선병원 등이 일종의 의료단지를 형성한다. 평양산원은 1,500개의 병실을 갖춘 여성 전용 병원으로 198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옥류아동병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그가 ‘인민의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던 시기인 2013년 개원했다.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

천도교 청우당이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수동은 대동강구역 내에서도 천도교 청우당의 관리 하에 있는 지역으로 인식된다.

2.8. 만경대구역

만경대구역은 김일성이 태어난 지역으로, 그 명칭은 만 가지 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만경봉의 정상에 있는 ‘만경대’에서 유래했다. 이 구역은 원래 대동강 하류의 작은 마을이었으나 김일성 정권 수립과 함께 김일성의 생가로 지목된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새롭게 정비되었다. 김일성 고향 집 주변에는 김일성의 가족조상묘와 만경대혁명사적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함께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가의 유자녀들을 간부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고위지휘관의 재교육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만경대구역은 평양의 외곽으로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가지로 편입되었으나 광복거리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 광복거리는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에서 광복역을 동서로 잇는 거리이다. 광복거리는 청년호텔 앞에서 남북으로 뻗은 청춘거리와 만난다. 청춘거리는 1989년 청년학생축전 당시 체육경기 시설이 들어선 거리로 남한의 태릉선수촌에 비견되는 체육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 김정은은 2016년 체육기자재 공장을 세우고 이곳을 찾아 운동선수들을 격려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모두 만경대구역에 있다. 봉수교회는 북한 정권에 의해 설립된 첫 교회로 만경대구역의 동쪽 끝 보통강변에 1988년에 건설되어 11월 6일 첫 예배를 드렸다. 2천여 평의 규모를 자랑하며 해외기독교 단체의 후원으로 지어졌다. 봉수교회 양 옆에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청사와 평양신학원이 있고, 뒤편에는 목사관이 자리잡고 있다. 칠골교회는 평화자동차전시장 맞은편 칠골혁명사적지 옆에 1989년 착공되어 1992년에 완공됐으며 1992년 11월 29일에 첫 예배를 드렸다. 북한의 자료에 의하면 칠골교회는 평남 대동군 하리에 위치한 ‘하리교회’가 6.25 전쟁 때 파괴된 것을 1989년 광복거리 건설 과정에서 다시 지은 것이다. 칠골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지원을 받아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리모델링했다.



평양 만경대구역에 있는 광복거리 전경 (사진출처: 위키백과사전)



평양 만경대구역에 있는 평양신학원 건물 전경 (출처: 통일뉴스)



평양 대성구역에 있는 영생탑과 려명거리 전경 (사진출처: 뉴스1)

2.9. 대성구역

대성구역은 1958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평양시 서구역의 일부와 북구역의 일부를 병합하여 조성되었다. 대성구역은 고구려 시기의 중심지로 왕궁인 안학궁터를 비롯한 대성산성, 광법사 등이 있다. 명칭은 북동쪽에 있는 대성산에서 따왔다. 대동강 북쪽에 위치하여 서쪽은 모란봉구역, 북쪽은 룡성구역, 남쪽으로는 대동강을 접한다. 시가지에서 대성구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1997년 김일성의 영

생을 기념하기 위해 영생탑이 세워져 있는데, 탑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평양만이 아닌 각 도시의 주요 지점에 같은 모양, 같은 문구의 영생탑이 세워져 있는데 대성구역의 영생탑이 그 원류라 할 수 있다. 1977년 김일성의 65회 생일을 맞아 건설된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는 ‘금수산의 사당’, ‘주석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김일성 사후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되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영생탑부터 금수산태양궁전까지 려명거리가 이어져 있다. 려명거리의 양옆으로 2017년 김정일에 의해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이곳에는 82층 높이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려명거리는 락원거리를 지나 대성산까지 이어져 있다. 대성산에는 1977년 대성산유원지가 조성되어 대관람차, 공중열차, 전기자동차 등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으며 동물원, 조선중앙식물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중앙식물원에는 김일성화온실과 김정일화온실 등이 있다. 대성산에는 혁명열사릉이 있다. 혁명열사릉은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김일성의 첫 부인 김정숙, 인민군 지도자 김책 등 북한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151인의 시신이 묻혀 있다.

려명거리 초입에는 북한 최고의 종합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대학으로 교수는 2,300여 명, 주간 학생은 12,000여 명, 야간 및 통신강좌 학생은 5,000여 명에 이른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신성분과 집안의 재력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실력만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많다. 김일성대학 출신의 탈북민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김대는 북한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 자식과 가장 가난한 집안 자식이 같이 다닌다. 아무리 명청해도 돈만 많으면 갈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시험만 잘 보면 갈 수 있다.”라고 전한다.

2.10. 사동구역

사동구역은 고대 평양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선사시대와 고조선 시기의 유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사동지구에는 최근 신도시로 개발된 곳은 송신·송화지구이다.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5만 세대의 현대적 살림집 건설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21년 3월 26일부터 평양시의 외곽지역인 송신역 인근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여 뒤, 태양절을 며칠 앞두고 2022년 4월 11일에 완공되었으며, 같은 날 김정은 총비서와 그의 심복 조용원 조직비서, 김덕훈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치렀다. 송화지구에는 80층 높이의 아파트를 비롯한 초고층 살림집이 들어섰다.

사동구역의 미림비행장은 군용공항으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군사 공항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공항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림공항의 넓은 활주로는 열병식 훈련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1998년 미림벌에 건설된 4.25여관은 군사적 행사나 출장을 위해 평양에 방문한 군인들이 묵는 호텔이다. 2022~24년 대대적인 증축을 통해 현대적인 대형호텔로 변모했다. 4.25여관은 코로나19 시기 발열자들을 위한 격리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각종 자연재해시 피해자 수용시설로도 이용된다.



평양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 살림집 전경 (출처: 데일리 NK)

3.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평양의 21개 구역(군) 중 중심을 이루는 10개 구역의 주요 시설, 교육기관, 기업소 등의 공간구조를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평양으로 불려온 중구역과 평천구역 그리고 모란봉구역과 일부 보통강구역은 지금까지도 평양의 중심부를 형성하여 각종 권력기관이 밀집해 있다. 대동강의 동편에서는 대사관구역과 문수지구를 포함한 대동강구역이 가장 발달하였으며, 교육기관이 밀집한 동대원구역, 생활형편은 열악하지만, 시내 중심부에서 생산기능을 감당하는 선교구역이 시내를 이루고 있다. 대성구역, 만경대구역, 사동구역 등은 평양의 외곽으로 넓은 면적을 지니는데, 평양의 중심부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평양개발의 중심에는 평양의 이루는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에 있었다면, 최근 들어 대성구역, 대동강구역, 만경대구역 등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평양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평양은 이미 송화지구(사동구역), 여명거리와 낙원거리(대성구역), 문수거리(대동강구역), 광복거리(만경대구역)를 통해 각 구역의 시가지화를 이루었으며 이는 이후 순안구역, 락랑구역, 승호구역 등 더욱 외곽지역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조유현 외, 『구역으로 본 평양학개론』 (서울: 민속원, 2025)
- 정일영 외, 『북한 자료로 본 평양학개론』 (서울: 민속원, 2024)
- 서울시립대학교 평양학연구센터, 『평양안내』 (서울: 민속원, 2023)
- 『조선향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3)
- 강채연, 『북한 도시 이해』 (서울: 바른북스, 2024)
- 홍민 외, 『북한 주요도시 경제인프라 지도』 (서울: 통일연구원, 2024)
- 홍순직, ‘김정은 시대의 도시 주택건설 정책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2023)
- 황진태, ‘평양의 강남은 어디인가?’ (2020)
- 이시호 외, ‘평양 모자이크, 위성사진과 GIS를 활용한 평양 도심 15개 구역 빈부격차 연구,’ (2022)
- 로동신문
- 우리민족끼리
- SPN서울평양뉴스
- 데일리NK
- 뉴스 1

김정은 집권 2기 평양 살림집 건설의 특징

한지만 (송실평화통일연구원 북한도시연구단 공동연구원)

본 소고는 김정은 집권 2기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의 살림집 건설정치를 다룬다. 이는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놓고 볼 때, 하나의 분수령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21년 1월의 제8차 당대회이며, 이 대회 이후의 건설정치는 상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포전담당제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 리제 등의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정제의 활성화를 시도하였으나 2017년 제6차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이때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국제사회의 3중 제재를 직면하여 국가역량 하락과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까지 봉쇄한 북한은 극단적 자력갱생 정책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로 삼고자 개최한 것이 바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이다. 이때 북한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으나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 측면에서나 주민들에 대한 통치정당성 선전의 차원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전국 단위의 살림집 건설 프로젝트였다. 이중 핵심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 향후 5년 동안 5만 세대(해마다 1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후 평양의 봄은 ‘착공의 계절’, 다음 봄은 ‘준공의 계절’로 반복되기 시작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었다. 해마다 2~4월이 되면, (1) 최고지도자의 현 지지도·착공식이 나오고, (2) 여름엔 골조·외장 공정이 밀어붙여지고, (3) 겨울엔 내부 마감·검열·하자 문제를 ‘정리’하고, (4) 다음 해 봄에 준공식과 입주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군(특히 군 건설인력), 내각·성(자재·설비), 평양시·구역 인민위원회(배정·입주·운영), 검열·보위기관(통제·단속)이 한 덩어리로 움직였다. 이는 물량·속도·정치일정이 한 덩어리로 전개되는 ‘국가 프로젝트형 건설’이었다. 평양의 살림집은 “집”에서 끝나지 않는다. 집을 새로 짓는 순간, 도로·전기·상하수도·교통·편의시설·배치(입주 대상 선정) 등의 통제사회 특유의 운영 질서가 한꺼번에 움직인다. 더구나 평양은 북한이 “혁명의 수도”라 부르는 공간이고, ‘누가 어디에 사는가’가 곧 체제의 중심부와외의 거리를 말해주는 도시다. 따라서 김정은 총비서가 노동당 당대회에서 ‘평양 5만 세대’를 국가 과업으로 못 박고, 공사 단계를 해마다 끊어 ‘착공-골조-준공-입주’의 리듬으로 반복해 보여주는 건,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치정당성을 과시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혁명의 수도 평양은 누가 그 도시에 살 자격을

얻는지(또는 잃는지)가 곧 체제의 질서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래서 최고지도자가 직접 “평양에 몇만 세대 살림집을 국가적으로 건설하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주거정책이자 도시계획으로 치환되고, 무엇보다 ‘우리 체제가 아직도 인민을 먹여 살리고 돌볼 수 있다’는 서사를 증명하는 큰 무대가 된다.

북한은 2021년 3월부터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하나의 장기 프로젝트처럼 끊임없이 이어 붙였다. 경루동 다락식주택구 800세대, 송화지구(1만 세대), 화성지구(1, 2, 3, 4단계), 그리고 서포지구 전위거리(4천여 세대) 같은 단지들이 시간차를 두고 잇달아 착공·완공되면서, 평양의 지도 위에는 ‘새 거리’가 매년 한 장씩 덧칠됐다. 이런 ‘연속 건설’의 효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매해 4월 무렵, “올해도 새 살림집이 일떠섰다”는 준공식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주민들은 먹고사는 현실과 별개로 “국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보게 된다. 기존의 북한 살림집과는 현격하게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주택설계와 내외장설비는 경루동·송화·화성·전위거리 등 ‘성과물’들이 주민들의 호의적 반응을 끌어내려는 의도적인 ‘선물 정치’의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1. 경루동(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 800세대: ‘특혜 주거’가 ‘운영 특혜’로 번지는 방식

2022년 4월에 준공된 경루동 다락식 주택구는 “대규모 고층 단지”와 결이 다르다. 38 North 위성 분석은 보통강 강안의 이 단지를 중심부에 가까운 소

규모·저층(테라스형) 개발로 따로 떼어 설명하면서, 다른 대규모 사업(사동/화성 등)보다 김정은의 방문·관심이 더 자주 보도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곳에는 인민방송원 리춘희를 비롯한 전국 단위의 공로자 공훈자들이 특별공급을 받아 생활하는 북한판 능력주의(Meritocracy)의 정점



단지/거리	착공(착수) 신호	중간공정 (밖에서 보이는 변화/동원)	준공/준공식	입주·운영에서 드러난 특징 (기사 기반)
경루동 (보통강 강안) 다락식 800세대	2021년 봄 착공 보도 (현지지도)	2021~2022 사이 고급 저층·테라스형 단지 조성 (위성·국가매체)	2022년 4월 완공 (“4월 2022 완공” 명시)	2023년 “전기 18시간 보장, 세탁·식사 배송” 같은 특혜형 운영+ 외부 서비스 인력 동선까지 감사·통제정황
송화거리 (사동구역) 1만 세대	021년(8차 당대회 이후) 대규모 평양 5만 세대 정책과 함께 본격화	2021~2022 외장 마감·조경 등 “내부공사 남고 외부 마무리” 위성 분석	2022년 4월 “첫 단계 준공” 성격(위성분석 + 국가매체 인용)	“노동자 계층 중심 배치” 서술(업로드 논문) + 외곽 입지로 출퇴근 불편, 국가재정 중심 건설로 추정
화성지구 1단계 (림흥거리)	2022년 2월 착공(8차 당대회 ‘5만 세대’ 로드맵의 핵심지대)	2022~2023 골조→외장→조경 순으로 국가매체 보도	2023년(1단계 준공)	“화성지구가 이후 단계의 중심 축”이라는 평가/전환 서술
화성지구 2단계	(전 단계 경험 바탕으로 확장)	2023~2024 공정 지속	2024년 4월 완공 언급	2단계 완공 뒤 3단계로 ‘정치 이벤트 달력’이 넘어가는 흐름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2024년 2월 3단계 착공식	2024~2025 골조·마감·운영준비까지 “연동 보도”	2025년 4월15일 태양절 준공식	‘300석 컴퓨터 오락/게임 공간’ 등 신종 편의시설 운영 준비를 김정은이 직접 점검, “운영 질서·체계”를 반복 강조
화성지구 4단계	2025년 3월 착공식	3단계 공사로 인한 결과 위에 축적	2026년 4월 15일 태양절 준공식 예상	쿠르스크 해외파병 전사자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거리(새별거리) 조성 및 살림집 배정(2,500여 세대) 전투위훈관 건립
전위거리 (서포지구) 4,100여 세대	2024년 봄 준공식(원문: 5월 14일 ‘전위거리’ 준공식 언급/선전)	공사 초기부터 “청년중심 돌격대 동원”을 공식 서사로 강조	2024년 5월 준공식(김정은 참석)	“청년이 세운 거리” 프레임(원문) + 전국적 지원·현장 선전·집단동원 서사

[표 1] 평양 내부의 주요 살림집 건설지구 및 현황 연표, 필자가 북한 매체(로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보도 자료를 통해 재구성

을 보여주는 장소이다. 완공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건, 그다음 해에 드러난 “운영”이다. Daily NK는 2023년 5월, 평양 당위원회가 경루동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전기 공급 보장, 세탁 픽업·배송, 식사 배송(새벽·저녁 시간대)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Daily NK 2023-05-26). 여기서부터 ‘경루동은 경루동이다’가 시작된다. 북한에서 전기는 늘 부족하고, 전기를 오래 보장받는 건 곧 “특권”으로 읽힌다(Daily NK 2023-05-26). 그런데 특혜는 ‘편안함’만 이 아니라 ‘통제’도 함께 뒤따른다. 같은 기사에서 세탁소·식사 제공자 같은 외부 서비스 인력이 아파트에 접근하는 시간과 동선이 보위성격 경비에 의해 감시되고, 정해진 시간 외 접근이 제한되는 정황을 전한다(Daily NK 2023-05-26). 거주자는 편해지고, 서비스는 관리되지만, 공간은 더 선명하게 구획되고 차별되는 동시에 감시된다. 이게 평양 살림집이 가진 “도시정치적 성격”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2. 송화거리 1만 세대: “노동자거리”라는 이름이 붙기까지의 공정, 그리고 입주 이후의 거리감

송화거리(사동구역)는 ‘평양 5만 세대’ 드라마에서 사실상 첫 번째 대형 결과물로 소비됐다. 38 North는 2022년 3월 위성으로 사동구역 대단지(송화거리로 이어지는 흐름)가 외장 마감은 거의 끝났지만, 노동자 숙소가 남아 내부 공사가 계속되는 정황을 언급한다(38 North 2022-03-04). 즉 바깥 외장 마감이 번쩍이는 시점에도 안쪽은 계속 공정이 돌아가는, “준공식 앞의 마지막 전투”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송화지구는 1.5km²가 채 안 되는 면적에

80층급 초고층 빌딩을 포함해 40개 동(12개 그룹)이 세워졌다. 원래는 ‘송신·송화’로 나눠 계획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송화 한 곳으로 수렴하며 일부 물량이 화성지구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송화거리 거주자는 평양의 중대형 기업소 노동자(평양화력발전소, 김중

대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평양방직공장 등) 중심으로 알려졌고, 직장-주거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쉽지 않지만, 새집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라 추정된다. 이는 국가 기간산업 근로자와 기업소들에 대한 우선공급정책을 시사한다. 또한 돈주 자금이 불기 어려운 외곽 입지 때문에 국가재정 중심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선물주택의 성격상 김정은 시대 이전에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평양 내부의 주민들 간의 살림집 거래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화거리는 ‘평양의 첫 1만 세대 소원도’로 내세워졌지만, 막상 들어가 사는 사람은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는 새집을 얻는 대신, 더 긴 출퇴근과 새로운 생활 리듬을 감당해야 했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체제는 새집을 “선물”로 주지만, 선물은 언제나 생활을 다시 짜는 대가를 동반한다. 송화거리의 ‘노동자 거리’ 타이틀은, 바로 그 공간적 재배치, 생활공간의 재배열 위에서 감시통제가 용이한 공간으로 재창출된다는 것을 뜻한다.

3. 화성지구 1, 2, 3, 4 단계: 왜 김정은의 신도시는 ‘중심 무대’가 화성지구로 옮겨 갔는가

화성지구는 38 North가 2022년 3월 분석에서 “다음 1만 세대 무대”로 지목한 곳이다. 2022년 2월 착공 뒤 한 달도 안 돼 기초 흔적이 위성에서 보이는 속도를 언급하며, 사동구역 때와 비슷한 ‘속도전’이 반복된다고 파악되었다. 송신거리와 금천지구등의 등 명목상 계획지구가 취소되거나 흡수되면서, 화성지구가 3·4단계로 이어지는 통합 무대가 되었다. 이는 평양 내부에서 대규모 살림집 건설을 위한 공간 마련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화성지구는 “한 번 짓고 끝”이 아니라,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바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매년 평양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준공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고, 동시에 김정은 시

송화거리 1만 세대: 개요

상황성

평양 5만 세대의 '첫 신호탄'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추진된 첫 번째 대규모 1만 세대 프로젝트입니다. 동평양 관문인 사동구역에 위치하며 2022년 4월 성대하게 준공되었습니다.

건축규모

80층 초고층 랜드마크

평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80층 초고층 살림집을 포함하여, 총 40여 개 동의 고층 아파트가 1.5km² 구간에 웅장하게 들어섰습니다.

건물 특징

선진 효과 중심의 '속도전'

위성 분석 결과, 외장 마감과 조경을 우선 완성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입주 후에도 내부 공사가 지속되는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공정이 관철되었습니다.






화성지구: 중심 무대로의 전환



대를 상징하는 최신 스타일의 고층 살림집을 군집으로 조성함으로써 시각적으로도 집적효과에 의한 정치적 선전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지구 3단계는 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를 제공하는데, 이는 김정은 시대가 선대 수령들의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각종 정치적, 문화적 이벤트가 함께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3단계의 경우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준공식을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개최함으로써 김정은 자신의 업적을 선대 수령과 동일한 반열에 자리매김하는 노림수를 사용하였다. 화성지구 3단계는 착공식 기사(2024-02-24) → 운영준비 현지지도(2025-04-03/04) → 준공식(2025-04-23)의 일련의 과정이 다른 어떤 건설지구보다도 빈번하게 북한공식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2024년 2월 24일 조선중앙방송은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착공식을 전하면서, 교육·보건·상업·편의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기이한(특색 있는) 주택·공공건물군”이 들어선다고 밝힌다(KCNA Watch 2024-02-24). 동시에 이 사업을 “당 중앙의 권위·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하는 중요한 정치적 투쟁”으로 규정한다(KCNA Watch 2024-02-24). 조선중앙방송은 4월 3일 현지지도 보도를 통해, 김정은이 ‘3단계 구역에 지어진 주요 봉사(서비스)시설’ 운영 준비를 직접 점검했다고 전한다. 여기에는 “300석 컴퓨터 게임 하우스(컴퓨터 오락/게임 공간)”가 포함되고, 김정은은 이 시설이 “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비디오/컴퓨터 게임 봉사공간” 성격을 강조하였지만, 내부자 취재 보도를 통해 PC방 같은 시설도 “자유로운 소비 공간”이라기보다, 전력·입출입 로그 작성·이용 규칙 준수 등을 통해 주민을 통제/관리하는 또 하나의 장치라는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Daily NK 2025-04-05 보도). 이는 “겉보기 편의시설이 실제로는 국가주도의 통제·질서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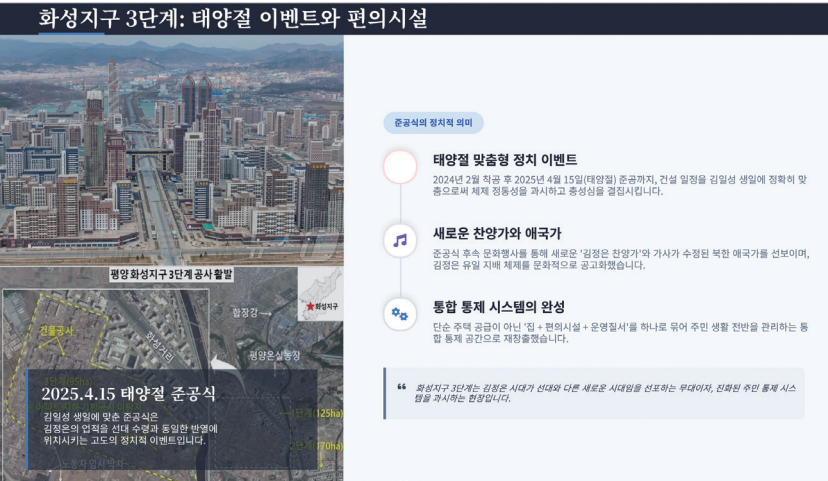
조선중앙방송은 2025년 4월 15일의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준공식을 집중보도하며 새롭게 준공식 후속 문화행사를 통해 새로운 김정은 찬양가와 가사가 수정된 북한 애국가를 선보였다. 화성 3단계는 단순히 살림집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집 + 편의시설 + 운영질서’를 하나로 묶어 통제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북한 정권의 진화하는 주민통제의 면모를 직접적으로 선전하는 현장이다. 현재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화성지구 4단계는 오는 2026년 4월 15일 태양절에 준공식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화성지구 4단계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들이 반영되었는데, 바로 러시아 쿠르스크 해외파병 작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살림집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2025년 8월 전사자 유가족들과의 만남에서 모든 유족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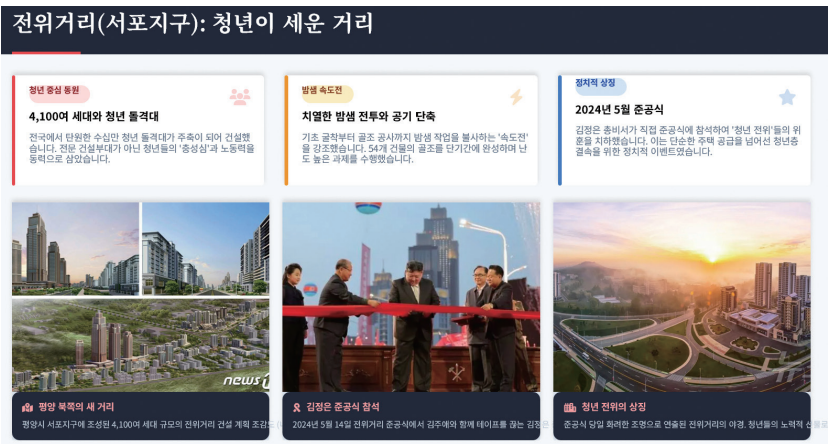
양으로 이주시킨 후, 평양 화성지구 4단계 구역에 새로 건설될 아파트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모여 살 살림집이 들어설 거리를 ‘새별거리’로 명명하였으며 전사자의 자녀들은 기숙형 특수 교육기관인 혁명학원에 보내 국가가 직접 간부 후보생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하였다.

4. 전위거리(서포지구): “청년이 세운 거리”라는 국가 공식 서사

총 4,100여 세대가 지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전위거리(서포지구) 구간은, 김정은 총비서의 발파행사 연설을 통해 청년전위대, 특히 과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사업에 위훈을 세운 청년돌격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이른바 ‘전국에서 올라온 청년돌격대 탄원자’들로 구성된 노동집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조선중앙방송은 “전위거리 준공상세 보고”를 통해 공사 과정 자체를 청년돌격대들이 써 내려가는 서사로 완성하려는 면모를 보였다.

공사 시작부터 기초 굴착을 동시에, 그리고 “초기부터 집중적인 밤샘 전투”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벌인 54개 건물 골조 공정을 “난도 높은 과제”로 묘사하면서, 현장 경쟁과 속도전을 강조하였다. 이는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젊은 군인들이 서포 지역으로 달려갔다”는 표현을 통해 전문건설부대를 통해 기술지원이 이뤄졌음을





소결: 평양 살림집 건설이 시사하는 점

평양에서 살림집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각 살림집 건설지구에서 관찰된 4가지 주요 현상이 관찰된다.

첫째, 통치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 달력 창조이다. 착공식 → 중간 공정(속도전/밤샘/동원) → 준공식 → 입주·운영 점검이 한 해의 리듬이다. 이는 정권의 통치정당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강력한 통치기제이다.

둘째, 공간의 위계가 운영으로 이어진다. 경루동은 “고급 단지”라는 상징이 실제로는 전기 보장 같은 운영 특혜로 이어지고, 동시에 외부와의 차별화된 관리와 통제 및 감시로 이어진다.

셋째, “주민편의시설”은 늘 “통제”와 맞물린다. 화성 3단계 준공식에서 대대적으로 선전된 컴퓨터오락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는 이 공간을 자랑하면서 서도 동시에 “운영 체계와 질서”를 특별히 강조한다. 이는 앞서 기사 내용에서

유추하게 한다. 결국, 김정은 총비서는 “수십만 청년이 자원해 현장 선전과 노동·물자 지원”을 했다고 서술하며, 전위거리를 전국적 차원의 청년 동원 서사의 상징물로 만든다. 이는 2024년 5월 14일 전위거리 준공식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준공 테이프를 끊고 “청년 혁신자”를 만났다고 전한다는 조선중앙방송의 뉴스 속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위거리는 주택 공급이면서 동시에 청년동원·정치선전의 집약판이다.

살펴본 것처럼 주민들을 통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단이다. 국가의 언어 안에서도 이미 “질서”라는 단어로 모습을 드러낸 통치 거버넌스는 컴퓨터 오락관 안에서는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제라는 외피를 이미 입고 나타나 있다.

넷째, 배치는 곧 메시지다. 송화거리의 노동자 계층 입주민들에게는 체제의 “보이는 성과”를 배정함으로써 신뢰를 다시 묶으려는 강력한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 특히, 쿠르스크 파병 전사자 가족들에 대한 평양 이주, 새별거리 조성, 새로운 아파트 살림집 무상제공은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종합하자면, 북한의 살림집 건설은 단순히 북한 주민들에게 새집이 주어졌거나 멋진 신도시가 조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집이 누구에게 배정되었으며, 그 집을 유지하는 전기·편의·규율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통제되고 해석되며 재배열되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루동은 특혜와 통제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Daily NK 2023-05-26), 화성 3단계는 오락/서비스 시설조차 “운영 질서”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국가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됐다.

평양에서 집은 거주 공간이기 전에, 국가가 사람을 배치하고 생활을 규정하는 장치다. 🐟

참고문헌

한지만. (2024).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살림집 건설을 통한 통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pp. 185 - 186, 268 - 270, 290 - 291).

데일리NK. (2022, July 6). 평양 송화거리 신축 아파트도 폭우 피해…부실 공사가 원인?

데일리NK. (2022, December 8). 북한, 송신·송화지구 ‘선물 아파트’ 실거주 실태조사 진행.

데일리NK. (2023, January 13). 송신·송화지구 고층 아파트 단수 현상 심각…北, 긴급 대책 마련.

데일리NK. (2023, March 22). [김치전③] 평양의 으리으리한 새 살림집들, 태반이 부실 공사.

데일리NK. (2023, May 24). 평양시, 경루동 초호화주택 주민 특별 배려 조치…어떤 것?

데일리NK. (2023, July 14). ‘평양 먹고 알 먹는’ 평양 중구역 경루동, 살림집 가격 시세는?

데일리NK. (2024, May 17). 화성지구 새 살림집 입주민들 ‘주택관리교육’ 받는 중.

데일리NK. (2024, June 3). 전위거리 건설 참여한 청년동력대원에 파격 ‘입당’ 포상.

데일리NK. (2024, June 27). ‘전위거리’ 살림집 입주 비리에 평양시 법무부 검열 돌입.

데일리NK. (2025, April 2).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동원된 건설자들, 3개월째 월급 0원.

데일리NK. (2025, May 21). 평양시 림흥·전위거리 고층 아파트 세대에 불시 전기검열.

Daily NK. (2023, May 26). N. Korea makes efforts to improve lives of Kyongru-dong apartment residents. Daily NK English

SPN 평양뉴스. (2025, April 16). 北, ‘김일성 생일’에 평양 화성지구 3단계 준공…김정은, 딸 동행… (기사).

SPN 평양뉴스. (2025, March 11). (박태성 내각총리)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장 현지 관련 보도.

KCNA Watch. (2025). 해마다 일떠서는 새 거리들.

참고문헌

- KCNA Watch. (2025, May 13). 화성지구의 전변.
- KCNA Watch. (2025).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떠올린 청춘대기념비-전위거리
- KCNA Watch. (2024, February 24).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ird-stage 10,000 flats construction project held in Hwasong area; Respected Comrade Kim Jong Un attends ground-breaking ceremony. KCNA Watch. KCNA Watch. (2024, May 16). KCNA detailed report on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Jonwi Street. KCNA Watch.
- KCNA Watch. (2025, April 4). Respected Comrade Kim Jong Un guides preparations for operating major service facilities built in third-stage section of Hwasong area. KCNA Watch.
- KCNA Watch. (2025, April 23). Great Father bringing about auspicious event of moving into new houses for people. KCNA Watch.
- 38 North. (2022, March 4). Williams, M. Kim's first major Pyongyang apartment project is close to opening. 38 North (Stimson Center).
- 38 North. (2025, March 10). Williams, M. Kim Jong Un plots continued renewal of Pyongyang. 38 North (Stimson Center).
- <https://www.dailynk.com/english/north-korea-makes-efforts-improve-lives-kyongru-dong-apartment-residents/> "N. Korea makes efforts to improve lives of Kyongru-dong apartment residents - Daily NK English"
- <https://www.38north.org/2022/03/kims-first-major-pyongyang-apartment-project-is-close-to-opening/> "Kim's First Major Pyongyang Apartment Project Is Close to Opening - 38 North: Informed Analysis of North Korea"
- https://kcnawatch.org/newstream/1768554193-359424842/new-history-of-capital-city-construction/?utm_source=chatgpt.com "New History of Capital City Construction"
- https://kcnawatch.org/newstream/1708726022-357556630/ground-breaking-ceremony-for-third-stage-10-000-flats-construction-project-held-in-hwasong-area-respected-comrade-kim-jong-un-attends-ground-breaking-ceremony/?utm_source=chatgpt.com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ird-stage 10 000 Flats ..."
- <https://kcnawatch.org/newstream/1715851903-162699121/kcna-detailed-report-on-completion-of-construction-of-jonwi-street/> "KCNA Detailed Report on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Jonwi Street | KCNA Watch"
- https://kcnawatch.org/newstream/1617801474-486509471/many-dwelling-houses-and-streets-built-in-dprk/?utm_source=chatgpt.com "Many Dwelling Houses and Streets Built in DPRK"
- <https://www.38north.org/2025/03/kim-jong-un-plots-continued-renewal-of-pyongyang/> "Kim Jong Un Plots Continued Renewal of Pyongyang - 38 North: Informed Analysis of North Korea"
- https://kcnawatch.org/newstream/1743986810-739644412/respected-comrade-kim-jong-un-guides-preparations-for-operating-major-service-facilities-built-in-third-stage-section-of-hwasong-area/?utm_source=chatgpt.com "Respected Comrade Kim Jong Un Guides Preparations for ..."
- https://kcnawatch.org/newstream/1745413594-247539860/Great-Father-Bringing-about-Auspicious-Event-of-Moving-into-New-Houses-for-People/?utm_source=chatgpt.com "Great Father Bringing about Auspicious Event of Moving into ..."
- <https://kcnawatch.org/newstream/1756307143-142439062/jonwi-street-a-grand-monument-to-youth/> "Jonwi Street, a Grand Monument to Youth | KCNA Watch"

컬럼 3

평양의 교회를 찾아서 (평양대부흥 이후 - 현재)

1. 1907년 이후 평양의 교계

1.1. 장로교회

서문밖교회로 불리기도 한 평양제5교회는 1909년 중앙교회(장대현교회)로부터 분립 개척되었는데, 분립 당시 세례교인 408명, 유아세례자 109명 규모의 대형교회로 시작됐다. 제5교회는 평양신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했으며 마펏과 리 선교사가 매 주 설교했다. 개척 2년 후인 1911년에 주일예배 출석 인원이 천명을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서문밖교회가 자리한 평양신학교 일대에는 선교사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선교사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속한 다수의 기독교인도 이 지역에 거주했다. 또한 주변에는 각급 학교들이 위치하여 수많은 학생이 서문밖교회에 출석했다. 1922년에는 예배당을 신축했는데 당시 미국의 선교부로부터 5천 달러를 후원받았다.

평양제6교회는 평양 서남부의 일본인 거주지역인 왜성에 위치해 있어 '왜성교회'로 불렸다. 정확한 개척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2년에는 작은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고, 1904년에는 파이팅, 스누크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1911년에는 베어드와 모우리 선교사가 목회를 했으며, 1913년에는 100명의 화중이 모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평양제7교회(연화동교회)는 1911년 남문교회에서 분립되어 평양의 서남쪽 일



1912년 장로회 제1회 총회가 출범한 이후 해마다 규모를 넓혀 온 장로교회는 1934년에 이르러 한국 개신교 선교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120명의 총대들이 1934년 9월 7일부터 14일까지 평양 서문밖교회에 모여 제23차 총회를 열었으며, 이 역사적인 모임이 바로 '회년 총회'로 불린다. (사진=주간기독신문)

본인 거주구역에 자리를 잡았다. 성도 수의 증가로 1911년 12월 31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마련했지만, 급증한 성도 수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였다. 이후 늘어난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예배당을 다시 증축했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왜성교회 조사 김우석이 구속되어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1920년 성도 수가 늘어 교인은 500명에 이르게 되었고 1930년에는 600여 명으로 늘어났다.¹⁾

평양지역의 장로교회들은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설립시 조직된 평남노회(남평안노회)의 평양시찰에 속했다. 1917년 평남노회에 보고된 평양시찰의 세례교인 통계에 따르면 장대현교회 730명, 서문밖교회 466명, 창동교회 263명, 남문밖교회 205명, 산정현교회 298명, 연화동교회 125명으로 총 2,087명의 세례교인이 있었으며 학습교인, 주일학교, 부속학교 학생까지 포함하면 장로교인 수는 1만 5천여 명에 달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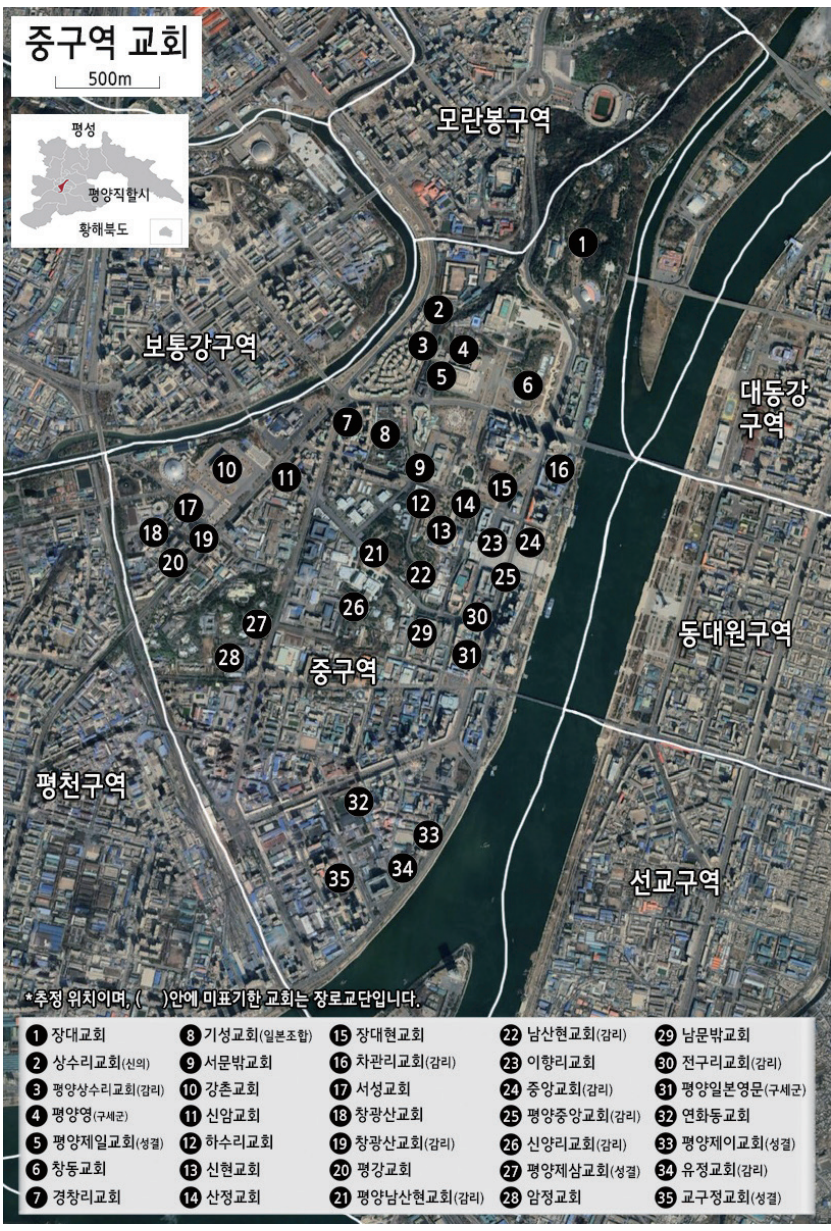
동평양교회는 1923년 대동강 동쪽 선교리에 세워진 교회이다. 교회 설립 초기에는 위치한 지명의 이름을 따라 선교리교회로 불렸다. 1929년 황보덕삼 목사가 부임하여 성도가 늘어났고 1932년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했다. 1943년 교회 이름을 선교리교회에서 동평양교회로 변경했다. 해방 후 최감은 목사가 부임해 1948년까지 시무했으며 뒤이어 부임한 허천기 목사는 이북5도연합노회에서 활동했다. 이북5도연합노회는 공산정권의 박해에 대하여 장로교의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다. 1949년 12월 23일 허천기 목사가 동평양내무서원에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1925년 서문밖교회는 평양 신양리에는 신암교회를 분립 개척했다. 장대현교회를 비롯한 평양의 교회들은 1913년부터 이미 신양리에 모임 장소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일부 자료에는 1913년 개척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된 것은 1925년이다. 교회의 관할구역이 신양리와 암정리 일원이라 하여 교회의 이름을 신암교회라고 하였다. 1925년 2월 청년면려회가 조직되었으며 1천 700원으로 기와 30칸의 예배당을 건축했다. 1926년 두 명의 장로가 장립되었고, 1927년 김선두 목사의 후임으로 채필근 목사가 부임했다. 1927년의 교세는 장년 300명, 유년 320명이 출석하고 있었다. 신암교회는 교회 부설 신암유치원과 신암주간학원을 운영했다.³⁾

그 밖에도 평양 시내에는 1923년 기림리에 설립되어 해방 당시 강량욱 목사가

담임한 서평양교회(고정교회), 1925년 서성리강촌에 설립된 강촌교회(평강교회), 1930년 경신암교회로부터 분립된 창광산교회, 1934년 신리에 설립된 서신리교회(동광교회), 1926년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길선주 목사와 변인서 목사의 갈등의 결과 1934년 길선주 목사에 의해 이항리에 설립된 신현교회(이항리교회), 1935년 하선교리에 세워진 하선교리교회 등이 있다.

1934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조선선교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에서는 당시 평양의 교회 상황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평양과 근교 지역에 세워졌다고 밝히고 있다. 각 교회의 등록 교인이 300명에서 800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서문밖교회의 교인은 2천2백 명이나 되었다. 평양의 18개 장로교회의 주일학교 출석자는 1만 2천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⁴⁾



차재명, 양전백 외 『조선장로회사기 상,하』 (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0-2002);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1) 강규찬 외, 『평양노회 지경 각 교회 사기』, p. 74.
 2) 북한기독교역사사전, p. 2369.
 3) 북한기독교역사사전, p. 1309.

4) 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p. 154.



차재명, 양전백 외 「조선장로회사기 상, 하」 (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0-2002);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회의 노회장을 맡아 조선의 장로교를 조직화했으며 조선의 첫 7인 목사를 안수했다. 1909-20년 서문밖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했고, 1911년 발생한 105인 사건 당시 수많은 평안도지역의 조선인 지도자들이 투옥되었을 때 맥균 선교사와 함께 이들을 변호했으며 1919년 3.1운동 이후에도 조선인 성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1901년 평양신학교 개교 시부터 1924년까지 평양신학교 학장, 1918-28년 숭실대학 학장으로 재직했고, 1919년에는 장로회 총회장에 선출됐다. 1928년 2월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1934년 1월 선교사직을 정년 은퇴하고 평양에 머물던 중, 1936년 9월 건강 악화와 신사참배 강요로 한국을 떠나, 1939년 소천했다. 동료 선교사였던 찰스 클라크(한국명 곽안련)는 마포삼열을 ‘한국교회를 낳은 아버지’로, 백석대 이상규 교수는 그를 ‘한국

[표 1]은 1912-21년 평남노회의 교세 통계이다. 당시 평남노회는 평양을 중심으로 안주와 남포 등 평안남도 일대를 포괄하였다.

지난호 글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양의 교회가 부흥하며 미국 북장로회 평양선교지부는 교단과 지역을 넘어 전국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평양 장로회의 발전에는 사무엘 마펏의 지도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890년 조선에 파송되어 1893년 평양개척으로부터 1907년 평양대부흥의 중심에 있던 마펏은 대부흥 이후에도 평양선교부를 이끈다. 대부흥 직후 조선에 조직된 장로회 독노

년도	목사	선교사	장로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교인수(명)
1913	31		118	64		24,055
1914	30	9	127	88	154	23,074
1915	38	9	180	86	169	31,245
1916	36	9	194	99	179	31,195
1917	48	11	220	101	168	34,888
1918	46	10	236	112	153	32,751
1919	51	8	243	85	118	25,134
1920	44	10	254	116	156	32,203
1921	50	7	291	124	169	37,471

[표 1] 1913-21년 평남노회 교세 통계, 김요나 외, 『동평양노회사』 (서울: 동평양노회, 2003), p. 134

장로교의 건설자’로 평가한다.

평양의 여성사역을 이끈 인물은 베스트(Best, Margaret, 배귀례)와 조선인 조사 박도신이다. 베스트는 1897년 조선으로 파송받아 1898년 숭실대학교 교사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 교회 안에 여성들을 위한 매일학교를 만들어 아침마다 조선 여인들을 가르쳤다. 그는 1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순회사경회를 위해 사용했는데 1901년 선천 선교부 개척을 도왔으며 평남의 강서, 대동, 평북의 숙천, 의주, 황해도의 황주, 곡산 등을 순회하며 사경회를 인도했다. 1910년 설립된 평양여자성경학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하여 1930년까지 재직했다. 미국 북장로회가 선교 25주년(1909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여성사역에 대한 글을 발표했으며, 선교 50주년(1934년) 기념식에서도 글을 발표했다. 박도신은 1900년을 전후하여 베스트와 동역하기 시작하여 1922년까지 함께 사역했다. 두 사람은 늘 동행하며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 순회사경회가 열리는 집 안방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여성들이 모이면 반을 둘로 나누어 베스트와 박도신이 교대로 가르쳤다. 베스트는 박도신에 대해 평하며 “시골 여성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잊고 일생을 드린 박씨 도신”⁵⁾ “그가 없이는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선교사(베스트 본인을 지칭)의 오른팔”⁶⁾ 이라고 지칭한다. 박도신은 평양여성경학교를 졸업한 후 기숙사 사감과 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박도신은 장대현교회의 조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마가렛 베스트 선교사는 조선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배귀례’라는 한국식 이름과 한문 사용에 익숙한 계층을 배려해 ‘褒貴禮’라는 한자 표기도 하였다. (사진=SEED선교회)

5) Magaret Best, “Development of work among women,” Quarto-centennial paper, 53을 김은정 “미국 북장로회 전도부인 연구,” 2020,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45-146에서 재인용.

6) Magaret Best, “Personal report & Bible institute report, 1917-1918”을 김은정 “미국 북장로회 전도부인 연구,” p. 145에서 재인용.

명에 권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1.2. 감리교

감리교회도 남산현교회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했다. 1911년 성인 1천7백 명, 주일학교 1천2백 명 등 약 3천 명의 교세로 성장하여 교육관을 신축하고 영아부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1916년에는 빈곤층 여성을 위해 과부회를 조직했다.



남산현교회는 1893년 제임스 홀 선교사와 김창식 목사에 의해 평양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감리교 교회 중 하나이며, 3.1운동 당시 평양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사진=기독교대한감리교 역사정보자료실)

남산현교회 성도들 중에 평양 동북부 기생학교와 유흥시설이 밀집된 이문골(채관리)에 거주하던 성도들은 1903년부터 이문동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예배와 각종 모임 장소로 사용했다. 이 예배 처소는 1911년 정식교회로 설립되어 이문동교회 혹은 채관리교회로 불렸다. 채관리교회는 평양의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1919년 담임으로 있던 주기원 목사는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투옥 후 1921년 병보석으로 석방

되어 박구리교회에서 시무했다. 1920년에는 송희봉 권사는 남산현교회의 현석칠 목사 등과 함께 군자금 모금, 독립운동, 참여자 포섭, 비밀결사 애국단을 조직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평양의 3.1운동 관련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안영식은 1921년 남산현교회에서 열린 지방회에서 채관리교회 전도사로 파송받았다. 안창호와 함께 흥사단을 이끌며 평양에서 활동한 김병연 역시 채관리교회 권사로 봉직하며 주일학교 교장과 평신도 대표로 연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1940년을 전후하여 채관리교회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는데, 당시 익명의 여성도가 전도부인의 1년 치 사례를 후원하여 전도하게 하였고, 교회 개척 성도 중 한 명인 최상원 권사는 평양부내 1만여 원 가치의 토지 5백 평을 기부하고 재단법인 수속비용까지 부담했다. 채관리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 불신자들도 유치원에 필요한 고가의 물품과 재정을 후원했다.⁷⁾

박구리교회가 보통강변 외성리에 설치한 기도처는 1913년 정식 교회로 설립 절차를 거쳐 유동교회가 되었다. 유동교회는 최병훈 전도사의 부임 이후 1920년 교인이 3백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1921년 예배당을 신축하였으며 1926년 지준서 전도사 시무 시절 400~500명 수용 가능한 예배당을 건축했다. 지준서 전도사는 천도교 지도자였던 강천보 여사를 전도했고, 그를 계기로 강천보 여사를 포함한 천도교인 30명이 유동교회 성도가 되었다. 1934년은 유동교회를 담

임한 현석칠 목사의 교역 25주년이 되는 해로 교회는 역동적으로 사역을 확장하던 중이었다. 당시 10세인 김명선 소녀가 용돈 20전을 교회 종을 교체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현금하였고 이에 감동을 받은 모친 이봉빈 여사는 성탄절을 기념해 특호 대종을 봉헌했다. 유동교회는 교회 부속으로 기성학원과 유치원을 운영했다. 설립 초기에는 교회 내부에서 운영했으나, 1934년 기성학원용 25평 건물과 유치원용 15평 건물을 각각 신축해 독립된 건물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⁸⁾

1911년 신천골(신양리, 남산정) 옛 광성학교 건물에서 30여 명이 집회를 시작하여 신양리교회를 설립했다. 신양리교회는 남산정교회로도 불렸다.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설립 5년 만에 교인이 2백 명을 넘기게 되었다. 1918년에 부임한 김흥식 목사는 3·1운동을 준비하며 2월 28일 광성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목판으로 인쇄하는 등 평양지역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또한 그의 아내 박승일 사모는 3·1운동 직후 평양을 중심으로 조직된 애국부인회 감리파 평양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3년간 수감되었다. 신양리교회는 1918년 당시 장년과 유년을 합해 500~6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1935년 신양리교회는 사회구호를 위해 애린원을 설립했다. 애린원은 빈민을 구제하는 한편 무료탁아소, 육아원, 맹아학교, 거지학교와 기숙사, 부녀기숙사 등을 운영했으며 고아와 결인들에게 수선과 개수 기술을 가르치는 수산원을 설립하기도 했다.⁹⁾ 1947년 5월 제2회 서부연회가 신양리교회에서 열렸으며,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신석구 목사가 감독으로 선출되었다. 연회는 공산정권의 기독교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세 명의 대표를 평양 문교부에 보내 문교부 차관 남일로로부터 탄압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¹⁰⁾

1919년 감리교의 평양지방회에는 평양의 주변 지역 칠산, 수안, 봉산, 신계, 서흥, 이항리, 남포, 증산, 중화, 함종을 포함했는데, 1918년 평양지방의 교세는 예배당 83개소, 교인 11,117명의 교세로 성장한다.

감리교의 평양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존 무어 선교사(Moore, John Zachariah, 문요한)이다. 그는 1903년 조선에 부임하여 조선선교회 매년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평양선교부로 파송되었다. 이후 1940년 강제 추방을 당할 때까지 평양과 남포를 중심으로 용강, 강서, 삼화에서 사역하여 “감리교 북한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다. 1916년 무어가 평양지방 감리사를 맡았으며 이후 평양서지방(현재의 평양 서부와 남포지역)이 분리된 후에는 평양서지방의 감리사

8) 위의 책, p. 1692.

9) 위의 책, p. 1313.

10) 위의 책, p. 1313.

7) 북한기독교역사사전, p. 2185.

를 겸임했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교역자들의 상황을 감리교 연회와 국제사회에 상세히 보고했다. 그는 평양 광성고보, 정의여고, 남포 삼송학교 등의 법인 설립으로부터 시작하여 학교를 유지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1930년 12월 19일 평양, 진남포, 사리원 3개 지방회가 개최한 ‘문요한 선교사 선교 25주년 기념식’에서 평양 남자성경학원 설립이 제안되어 평양 남자성경학원이 시작되었다. 당시 평양에서 무어 선교사를 지켜본 류형기 목사는 무어 선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조선인 목회자들과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무어 선교사. 그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 참여했고, 독립운동에도 참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사진=국민일보)

“1903년 내한해 1908년까지 평양에서 일하다가 부인의 병 때문에 귀국해 상배하고 1914년 평양에 복귀하여 베네틱 양과 결혼해 남매를 낳고 25년간 전도, 교육사업에 큰 공헌을 했다. 100명의 감리교 선교사 중에 모금을 제일 많이 해 광성학교 외에 20여 지방에 소학교들을 세워 교육사업에 힘썼다. …, 1940년 11월 선교사 철수 때 귀국을 거절하고 평양에 있다가 일미전쟁 개정 후 주택에 연금되어 길러낸 젊은 교역자들의 배신행위와 부인의 검속으로 크게

당황하다가 1941년 봄에 귀국 후 한국정부 표창도 받고 1963년 라성에서 별세해 오하이오주 선영에 안장되었다.”¹¹⁾

평양의 여성사역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로는 로빈스(Robbins, Henrietta Perry, 나빈수)와 헤인즈가 있다. 로빈스는 1902년 평양에 부임하여 남산현교회 주일학교와 정진여학교를 이끌었다. 그가 1909년 조직한 ‘십일조회’에는 100여 명이 가입하여 평양의 십일조 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는 평양의 정진소학교와 정진여학교, 대동군 신영여학교, 진남포의 삼신여학교와 삼송여학교 등에서 교장으로 사역했다. 또한 1927년 뉴저지연회 기념성경학원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학생들과 함께 학교 재건에 힘썼으며, 1928~1929년 안식년 동안 본국에서 모금한 재정을 바탕으로 학교를 다시 세웠다. 그가 교장으로 재직한 평양여자성경학원은 1936년 총독부의 설립 인가를 획득해 ‘평양고등여자성경학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지원자가 급증했다.

헤인즈(Haynes, Emily Irene, 헤인수)선교사는 1906년 평양으로 파송되어 송의여학교와 남산현교회 주일학교에서 사역했다. 이외에도 평양맹학교, 농학교를 비롯한 평양 내 15개 매일학교를 관리했다. 1928년 이후 순회전도와 여성사경회에 주력하였으며 1931년 조선감리회 1회 연합회에서 감리교 여성교

사 14명이 한국교회 최초 여성목사로 안수받을 때 함께 안수를 받았다. 평양여고 교장과 맹학교 교장으로 사역하던 중 미일관계 악화로 1940년 11월 미국으로 철수하게 된다.

대부흥 이후 성장하던 감리교의 교세는 1910년대에 들어 답보 상태에 놓였으나, 교회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배출했고 입교 인원과 연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세 증가가 정체된 원인으로서는 1923년 대홍수로 많은 성도가 만주로 이주한 점과, 1920년대 중반 선교비 지원이 급격히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은 1912~30년 평양지방의 교세 통계이다. 당시 평양지부는 평양과 남포 그리고 황해도 북부를 포함했다.



1931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제1회 연합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14명 선교사들과 양주삼 총리사. (사진=평양대부흥)

연도	1912	1915	1919	1922	1926	1930
교인수	9,309	10,047	9,063	12,239	10,515	10,243
교회수	72	82	82	101	83	84

[표 2] 김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p. 86.

2. 일제의 종교 탄압과 신사참배

2.1. 신사참배 직전 평양의 분위기표

조선총독부가 1919년 조선신사(조선신궁) 건립에 대한 승인을 얻어 서울 남산에 1925년 10월에 완공하며 조선에서도 일본의 신사에 대한 참배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기독교계는 정부의 황민화정책에 호응해 신사참배에 협조적이었으며 일본의 천주교계도 초기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했으나 1936년 신사에 참배해도 좋다는 교황청의 허가 이후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선의 천주교회도 교황의 허가를 따라 신사참배에 협조했다.

조선에서의 신사참배 강요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감리교회는 신사참배를 허용했고 장로교회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이어갔다. 1935년 봄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행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장로회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선교사들은 조선 내 각급 기관과 교회 중에서도 평양 소재 학교들이 신사참배 강요의 핵심 표적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평양이 조선 기독교 발전의 중심지였으며 교회보다 학교가 통제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예측은 현실이 되어 평양의 기독교와 교계는 신사참

11) 류형기, 『은총의 팔십오년 회상기』, p. 36.



당시 동아일보 기사. 민족운동을 선도해 온 숭실대학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며 1938년 3월 4일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개교 39년 만에 폐교를 결정했다. (사진=숭실대학교)

2.2. 조선장로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고 구속과 고문이 본격화되자, 신사참배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던 서북지방 장로회 내부에서도 점차 타협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안남도 3개 노회와 더불어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으며, 평안북도 7개 노회의 모노회인 평북노회는 당시 전국에서 가장 교세가 큰 노회였다. 1938년 2월 평북노회는 헌병보조원 출신의 김일선 목사가 임원으로 있었으며, 부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이끌고 있었다. 홍택기 목사는 이후 총회장이 되어 신사참배를 가결시킨 인물이다. 평북노회는 1938년 2월 9일 출석회원 116명 전원 찬성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한다. 다만 이때까지도 성도들 사이에 신사참배에 대한 반감은 적지 않았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일제가 강요한 동방요배, 국가봉창,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서력 연호 사용 폐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신사참배에 대해서 만큼은 거의 절반가량이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다음은 1938년 5월 일본 경찰 당국이 기독교 관계자들을 조사한 총독부 지도 대책의 실시율이다.

지도대책	실시율
예배당에 국기 게양대 설치	88%
국기에 대한 경례	96%
국가 봉창	82%
동방요배	96%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93%
서력 연호 사용 폐지	87%
신사참배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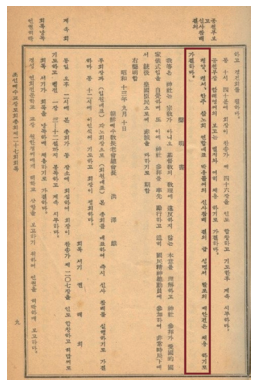
[표 3] 일제의 지도대책에 대한 기독교 관계자의 실시율, 출처: 임희국, 『떠나온 평양, 다가온 평화통일, 평양노회 100년사』(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p. 203.

이런 상황에서 평양노회가 3월 22일 산정현교회에서 열렸다. 노회 둘째 날 설교는 노회 내부 인사가 아닌 일본기독교회 사이와이쵸교회의 나가다(永田) 목사가 맡았다. 이 예배에서 노회는 황거요배, 황국신민서사 제창, 일장기 게양 등을 거행하여 신사참배를 제외한 일제의 지도대책 대부분을 시행했다. 평양노회가 총독부 방침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여파가 다른 노회로 이어졌고, 1938년 8월 말까지 전국 23개 노회 중 17개 노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었다.¹²⁾

1938년 9월 9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일제는 총회를 앞두고 평양노회 부노회장 주기철 목사, 증경 총회장 김선두 목사 등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총대들을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구금했다. 외국인 선교사 총대 30인은 외교적 문제를 염려하여 구금하지는 못했으나 총회 전 이들을 경찰서로 소환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조선에서 선교사역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했다. 총회 장소는 당초 평북 신의주로 예정되었으나 평양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교회의 중심지로서 평양이 지닌 상징성 때문이었을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평양에서 총회를 열 경우 신의주 기준으로 책정되었던 총대들의 여비 약 700원을 절감해 이를 국방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징적 효과도 고려된 결과였다.

결국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총대들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한다.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을 반대한 헌트(B. F. Hunt, 한부선), 블레어, 힐(H. J. Hill) 등은 강압적인 제재를 받고 퇴장당했다. 이후 총독부는 ‘국가 비상시를 만나서는 역시 일본인으로서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서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번 총회의 결의에서 실증될 수 있는 바였다.’라는 기록을 남겼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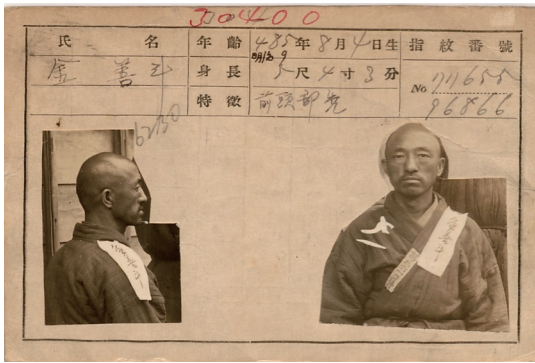
총회를 앞두고 증경총회장 김선두 목사는 동경 유학생 출신 김두영을 통하여



1938년 9월 10일 총회록. “우리는 신사가 종교가 아니며, 신사참배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이해한다.” (사진=한국기독교일보)

12) 임희국, 『떠나온 평양, 다가온 평화통일, 평양노회 100년사』(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p. 204.

13) 위에 책, p. 208.



김선두 목사는 1919년 3월 1일 평양 숭덕학교에서 열린 독립 선언식에서 사회를 맡아 성경(벧전 3:13-17; 롬 9:3)을 봉독하고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이로 인해 만세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 끝에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되어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했다.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신사참배 항거운동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후 각 지역의 교회에는 총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지속적으로 신사참배에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중심인물로는 평남의 주기철, 평북의 이기선, 평남의 한상동, 이인재, 주남선, 최덕지, 전남의 손양원, 만주의 박의흠, 김윤섭, 한부선(B. F. Hunt)이 있다. 그중 평양의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가장 극렬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산정현교회와 산정현교회 담임 주기철 목사가 있었다. 주기철 목사는 1938년 4월, 신사참배 강요를 반대하다가 1차 검속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10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6월에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총회를 앞둔 8월 제2차 검속에 체포되었다가 다시 1939년 1월 풀려났다. 신사참배가 가결된 후 신사참배에 반대한 지도자들 중 신사참배에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지도자들이 늘어났고, 반대하는 지도자들 중 일부는 유학을 가거나 신사참배를 피해 만주로 임지를 옮겼다. 이런 상황에서 산정현교회 교인 대부분은 주기철 목사가 투옥되었음에도 신사참배에 불응하고 있었다. 원로목사 채정민, 최봉석(최권능), 이인재, 방계성, 백인숙 전도사가 성도들을 독려하며 이끌었으며 출옥한 주기철 목사는 경찰 당국이 교회를 포위한 상황에서도 “나는 설교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만둘 것이요, 내 설교권은 경찰서에서 받은 것이 아닌즉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소”라는 말로 물리치고 설교를 강행했다. 출옥 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으며 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주기철 목사에 대해 경찰 당국이 취한 조치는 체포와 목사직 박탈이다. 주기철 목사는 1939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중 기독교인들을 접촉한다. 김두영은 동경에 유학하며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과 교분을 얻은 인물이었다. 그중 일본 정우회 외정부장 마츠야마 츠네지로(松山常次郎), 군부 원로 히비키 신료(日比信亮), 궁내청 차관 자작 세키야 테이자부로(關屋貞三郎) 등은 조선의 미나미 총독에게 압력을 가하여 ‘신사참배를 가결케 하라는 행정명령은 잘못된 일’이라는 시인을 받아낸다. 이들 일본 기독교 원로 3인은 김선두 목사에게 “만일 총회가 신사참배를

14) 김두영, 『물래 익은 포도송이, 김두영 회고록』, p. 77-107.

년 10월 다시 구속되었고, 경찰의 압박으로 노회는 같은 해 12월 19일 그를 목사직에서 면직했다. 주기철 목사는 잠시 석방되었던 1939년 2월 산정현교회에서 '다섯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생전 마지막 설교이다. 주기철 목사는 같은 해 9월 제4차 검속으로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일시에 검거할 때 함께 체포되었다가 고문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인해 48세를 일기로 순교하였다. 200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 면직 67년 만인 2006년 4월 주기철 목사의 면직을 참회하며 복직 복권을 선언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평양노회의 후신인 동평양노회, 평양노회, 서평양노회가 각각 2016년 6월 임시노회를 열어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복권했다.

주기철 목사의 반복되는 구속과 순교의 모든 과정에서 산정현교회는 일치단결하여 신사참배 반대 의 대오를 유지했다. 당회원들은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된 이인식 목사가 주재하는 당회를 거부하였고 노회 임원들이 교회를 접수하기 위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예배에 참석했으나 성도들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을 끊임없이 불러 노회 담당자들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예배당은 폐쇄되었고 주기철 목사의 사택도 신사참배 항거의 구심점 혹은 상징이 되는 것을 염려하여 주기철 목사의 가족들도 사택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물리적 구심점인 예배당과 사택의 폐쇄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산정현교회가 택한 방법은 바로 ‘지하화’이다. 산정현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채정민 목사, 방계성 전도사, 이인재 전도사 등 중직자들의 집을 돌며 예배하기 시작했다. 성도들은 구역을 나누어 백인숙 전도사와 오정모 집사가 심방을 하며 관리했다. 산정현교회 차원에서 전개된 지하화 운동은 평양과 주변 지역의 신사참배 반대 세력으로 확대되었으며, 1940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었다. 백인숙 전도사와 오정모 집사를 비롯하여 채정민 원로목사, 최봉석 목사, 김의창 목사, 김윤선 전도사, 오윤선 전도사(오윤선 장로와 동명이인)등이 평양의 성도들을 관리했고 신의주의 이광록, 선천의 김지성, 이병희, 안이숙, 박신근, 정주의 김형록, 개천의 박관준, 마산의 이익신, 부산의 김두석 등은 평양의 지도자들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연대를 이어갔다. 특히 평양신학교에 재학중이던 밀양 출신의 이인재 전도사는 서북지역의 지도자들과 영남지역의 한상동, 주남선 목사 등이 연대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들은 신사참배에 동조한 노회, 기성교회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지만, 선교사들로부터는 암묵적인 지지를 받았다. 신사참배 반대 세력은 1940년 4월



1937년 1월 1일 산정현교회 제직회 사진. 1936년 주기철 목사는 그의 마지막 목회지인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해 예배당을 신축했으며, 1938년 헌당예배 당일 신사참배 문제로 체포되었다. 이후 순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투옥되며 고난의 길을 걸었다. (사진=고신뉴스KNC)

21일 신사불참배 교회 및 노회 재건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다. 1940년 9월 20일 신사참배 반대교인에 대한 검거 열풍이 불어 193명이 검거되었으며 1941년 5월 15일에는 기존에 구속된 인물과 더불어 이기선 목사 등 68명이 이른바 ‘예수교도의 신사불참배 교회 재건운동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의 관련자 68명 중 25명은 1945년 5월 18일까지 옥고를 치렀고 그 중 최봉석 목사, 주기철 목사, 박관준 장로, 최상림 목사는 옥중에서 순교한다.

위에 언급된 인물들을 포함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투옥된 평양노회 교인이 다수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최봉석 목사, 주기철 목사, 김선두 목사, 김익창 목사, 김철훈 목사, 남궁혁 목사, 송상석 목사, 오윤성 목사, 윤옥경 목사, 이약신 목사, 방계성 장로, 김린서 장로, 김형걸 장로, 오윤선 전도사, 임종호 전도사, 주영진 전도사, 최기만 전도사, 이광록 집사, 오정모 집사, 안이숙 교사.” 신사참배에 반대한 주요 인물들이 투옥됨을 통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힘을 잃게 된다. 그러나 신사참배 반대 세력의 지하화된 연대는 해방 때까지 이어져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신사참배를 피할 수 있었다. 평양 성도들의 지하화한 연대의 경험은 이후 공산주의 세력의 박해를 만나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2.4. 선교사들의 철수와 일제에 의한 교단 통합

일제 당국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배후에는 서구 선교사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독부는 1939년 11월 1일부로 「외국인의 입국, 체재금퇴거에 관한 건」을 법령으로 발령하였으며, 1940년경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에서도 조선의 교회에 대해 “외국선교회가 경영하는 교육기관 기타 각종 사회사업을 점차 접수할 것”과 “외국선교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다. 미국 정부 역시 1940년 5월 “전쟁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그곳을 떠나도록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0월 10일 서울 주재 미국 총영사는 선교사를 비롯한 미국인들의 철수를 권고하는 안내장을 보냈다. 같은 달 영국 총영사도 일본과 만주지역의 모든 영국인의 철수를 권고했다. 결국 1940년 11월 16일 미국 정부에서 보낸 마리포사호(The Mariposa)를 타고 미국인 219명이 귀국했다. 그중 189명이 선교사 혹은 선교사 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1942년 6월 모든 선교사에 대한 강제 송환이 이루어지기까지 37명의 선교사가 조선에 남았는데, 그중 24명이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이었다.¹⁵⁾

15) 김승태, ‘1930·40년대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과 선교사의 철수·송환에 대한 소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제 75호』(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 51-56.

선교사들의 철수와 더불어 일제는 조선의 각 교단에 대한 통합작업을 시작했다. 일제는 주요 교단의 목사들을 포섭하여 1942년 1월 ‘교파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1941년 일본 내 33개 교단이 연합한 “일본기독교단”이 구성되어 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일본기독교단은 창립 총회에서부터 기미가요 제창, 궁성요배, 황국 신민의 맹세로 시작하였으며, “우리는 기독교 신자임과 동시에 일본 신민으로서 황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맹세한 교단이다. 1943년 1월 새문안교회에서는 장로교 대표 19명, 감리교 대표 9명, 성결교 대표 4명, 일본기독교구 대표 4명, 구세군 대표 4명 등 5개 교단 40명이 모여 ‘조선기독교합동준비위원회’가 열렸다. 1943년 교단통합작업은 각 교단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조선총독부는 각 교단의 일본화를 추진하여 혼란의 와중에 1943년 5월에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을, 같은 해 8월에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을 조직했다. 총독부의 교단 통합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1945년 7월 19일과 20일 각 교파의 대의원 59명과 총독부 학무국 대표들이 정동감리교회에 모여 공식적으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창립했다.¹⁶⁾



1945년 5월 7일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 설립임원 및 교수장들 기념 사진.(사진=리폼드뉴스)

3. 해방 이후 현재까지 평양의 교회

3.1. 해방공간 평양의 교계

일제 말 신사참배로 인한 박해와 선교사의 추방 그리고 일제의 교단 통합으로 인해 평양의 교회도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해방과 동시에 각 지역의 교회들은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교회사가 김양선은 “평북노회는 선천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일본기독교단에 가입하지 않아 재건의 필요가 없었으며, 교회의 재건을 가장 앞서나간 곳은 한국교회의 중심이었던 평양이었다”라고 전한다.¹⁷⁾

1945년 8월 17일 평양지역의 교역자들은 ‘평양성 도당회(都堂會)’를 소집하여 22일 일제히 교회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다.¹⁸⁾ 해방 직후 출옥한 기

16) 서정민, ‘일제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기독교와역사 16』(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p. 80-94.

17)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56), p. 44.

18) 황은균, “8.15 해방과 평양의 교계”, 『기독교계』 창간호, 1957, 8, 김흥수, 『해방후 북한교회사』, p. 328에 수록.



한경직 목사는 종교계의 노벨 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유일한 한국인으로, 1992년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102만 달러 전액을 북한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으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개한 첫 목회자였다. (사진=GOODTV)

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재건의 방향이 논의되었고, 9월 20일에는 일제 말기 다수 교회가 신사 참배 요구에 굴복한 사실을 자성하며 교회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38선 이북에 대한 소련군의 진주가 이루어지고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이 북한의 정권을 장악하며 교회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어 교회는 애초의 재건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해방전후 평양에서 목회하던 황은균

목사는 해방 당시 평양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구원의 천사 미군이 오기를 슬그머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무조건 항복을 했다는데 기다리던 미군은 오지 않았다. 들려오는 말이 소련군이 온다는 것이다. 웬일인가? 38선을 중심으로 이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분담했다는 것이다. 50% 낙심 이었다……。 미군을 어른으로 생각한다면 소련을 어린아이처럼 보는 민심은 멀지 않아 소련을 몰아내고 미군이 올 것을 믿는 까닭에 낙망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또는 신앙 자유를 위해서 꾀꾀이 싸울 태세였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공산주의 세력 간의 가장 큰 마찰은 1946년 해방 후 첫 3.1절 기념식을 두고 발생했다. 평양에서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길선주 목사의 장대현교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산정현교회를 비롯하여 감리교의 남산현교회 등 일제에 항거하여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있었다. 또한 평양의 3.1운동은 기독교인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기독교인들은 해방 후 첫 3.1절 기념식을 장대현교회에서 성대하게 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당시 38선 이북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공산주의 세력은 교회의 3.1절 기념행사를 금지하고 평양역 앞에서 인민위원회가 거행하는 행사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2월 28일에는 이에 반대하는 주요 교직자를 체포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3월 1일 장대현교회에 5,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행사를 개최한다. 그러나 행사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과 교인들 간의 마찰이 생겨 3.1절 기념식은 성도들의 시가 데모 행진으로 변모했고 이로 인해 황은균, 김명길, 이춘생 목사가 소련군정 당국에 연행되었다. 이후로 주일에 이루어진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교계의 반대운동, 기독교계의 기독교자유당 창당 시도, 강랑욱 목사 테러사건 등으로 인하여 평

19) 황은균, “8.15 해방과 평양의 교계”, p. 328.

양의 교계와 공산주의 세력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평양의 수많은 기독교계 지도자는 숙청당하거나 월남하였다.

3.2. 평양의 공식적인 교회

위에서 살펴보았듯 해방 후 평양의 교계와 공산주의 세력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김일성은 본인의 외가 친척인 장로교 목사 강양욱을 내세워 공산주의세력에 친화적인 조선기독교연맹을 구성하도록 지시한다. 강양욱에 의해 구성된 조선기독교연맹은 1946년 11월 북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출범 이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 조그련)으로 개칭했다. 6.25 이후 한동안 북한의 기독교는 외부 세계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1963년 10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평화이사회’에 강랑욱이 참석하면서 국제무대에 재등장한다.²⁰⁾ 기독교도연맹의 ‘기독교신학교’는 1950년 7월 5일 졸업식 이후 폐쇄된 상태에 있다가 1972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의해 ‘평양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그련에 의해 평양에 설립된 교회로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다. 봉수교회는 1988년 봄 평양시 만경대구역 건국동(옛 봉수동) 보통강변에 건립되어 11월 6일 첫 예배를 드렸다. 봉수교회 양옆에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청사와 평양신학원이 있고, 뒤편에는 목사관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예배당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지원을 받아 2006년에 재건축을 시작해서 2007년에 완공되었다. 봉수교회의 담임목사로는 초대 강엽섭 목사를 시작으로 2대 이상봉 목사, 3대 손효순 목사를 거쳐, 2014년부터 4대 송철민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골교회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1동에 1989년 착공되어 1992년에 완공되었다. 1992년 11월 29일에 첫 예배를 드렸다. 봉수교회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노후화 문제로 남한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지원을 받아 2014년 재건축을 했다. 칠골교회의 초대 담임목사는 유병철 목사였으며 그 후 박춘근 목사, 황민우 목사를 거쳐 현재 담임목사는 백봉일 목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두 교회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봉수교회의 경우, 평상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 시에는 만경대구역 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노동당에서 엄선한 인물들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전해



평양 봉수교회의 예배 장면. 어용화된 봉수교회에 참석한 예배자들은 평소 교육받은 대로 행동한다. (사진=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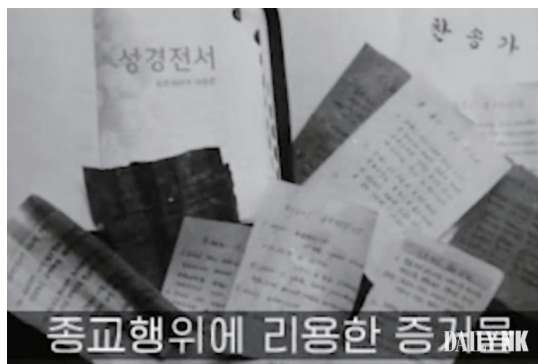
20) 김흥수, “조선기독교도연맹과 국가”, p. 238.

진다. 다음은 봉수교회 건립 당시 평양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이다.

“북한이 평양시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일 년 만에 똑딱 세워졌어요. 그때는 그 근방에 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건물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봤었어요. 그런데 ***가 무턱대고 거기를 갔단말 입니다. 사상이 어떻다든지 하면서... 그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여자가 많이 취조를 받았어요. 처벌은 모르겠는데 담당 지도원으로 해서 많이 불러 다녔어요. 1년 동안 생활총화도 많이 하고 일 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어요.”²¹⁾

3.3. 지하화한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출신의 한 탈북민에 의하면 공산당에 의한 박해가 시작된 이후 6.25 전쟁이 끝나기까지 평양의 개교회의 담임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대다수가 월남하였지만, 교회의 개척과 예배당 건축에 동참한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다수가 북에 남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의 박해가 심해지자 이들은 북한 정권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교회 생존을 위한 지하화의 길을 택한다. 평양에 남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했고, 상당수 성도는 함경도, 양강도 등과 같은 오지로 추방되었다. 추방된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다음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통해 전해진 평양 혹은 평양에서 추방된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증언들이다.



북한이 제작·배포한 주민 교양용 동영상 일부. 종교 행위를 한 주민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북한에 여전히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사진=데일리NK)

H 자매의 가족은 평양에서 살다가 1950년대 후반 온성으로 추방되었고, H 자매는 추방 이후 온성에서 태어났다. H 자매의 기억에 따르면, 일곱 살 무렵 주변에 보이는 집은 3채뿐이었고, 집과 집 사이가 약 30분 거리로 등성등성 떨어져 있었다. 집이 부족했던 탓에 추방된 가정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일이 잦았다. H 자매의 가족 역시 기존에 추방되어 온 한 가정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다. 이처럼 온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평양에서 추방당한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

던 것으로 보인다. H 자매는 이렇게 회고한다.²²⁾

7살 때 자다가 깬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뛰어나가 다른 집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알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평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어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혼냈어요. "엄마 자꾸 쫓아다니면 엄마가 일찍 죽으니까 얼른 가서 잠이나 자거라." 우리 집에서 모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저를 다른 집으로 보냈어요. 아마 아이들은 입단속이 안 되니 소문이 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F 자매는 3대째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F 자매의 할아버지는 어릴 적 평양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해서 완전히 변화되었고, 후에 평양의 송실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할아버지는 해방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양에 다가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비석을 세우고 산소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 공산정권이 들어섰고 북한당국은 할아버지의 산소를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이후 북한당국은 F 자매 가족을 예수쟁이라 부르며 나쁜 성분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가택수색을 수시로 당했고, 결국에는 성경책을 뺏기게 되었다. F 자매 가족은 평양에 있는 S 교회 신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북한의 억압은 점점 심해져 갔다.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잡아가기 일쑤였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폭격에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셨다. 졸지에 전쟁고아가 된 9살 된 F 자매는 4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3년 동안 평양에서 거지생활을 했다.²³⁾

고아로 3년 정도의 삶을 살았던 F 자매를 삼촌이 찾아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전쟁 중에 손녀 찾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상황 이었고, 삼촌이 유학을 다녀오면서 찾아낸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 가까운 곳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F 자매에게는 고난의 시간으로 여겼던 그 시간 동안 평양에 있던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이 거의 다 추방당한 것이다. 기독교 집안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할머니 집에서 사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고난이었다. 북한당국에서 거의 매일 가택수색을 하였다. 집이 조용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도청장치까지 설치해 놓고 철저한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다. F 자매의 주변에는 본인 이외에도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다. 친구에 대해 F 자매는 다음

22) 김병로 외, 『그루터기』, p. 96.

23) 김병로 외, 『그루터기』, p. 104-105.

21)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종교자유백서』, 탈북자 김00, 2016년 9월 면접, 208. 재인용.

과 같이 회고한다.

함께 신앙을 지켜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예수쟁이 집이었거든요. 그 아이하고 저하고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면 함께 모란 봉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보초 서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보초 서면 그 친구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격분이 되어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을 해 버린 거예요. 바로 그 말을 당했고, 그 뒤로는 보지를 못했어요.²⁴⁾

이후 이러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F 자매는 성경책을 구하게 되었다. 성경책 겉표지는 '안나 카레니나'(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소설)라고 소련 말이 쓰여 있었다. 이렇게 다들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⁵⁾ 북한당국은 평양의 기독교인들을 추방시켰지만 신기하게도 기독교인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은 평양 토박이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에서²⁶⁾ 온 사람들이었다.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기 성분을 고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F 자매의 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할머니가 많았다고 한다. 딸네 집에 온 할머니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으로 사위가 신분이 좋아서 사위 덕에 기독교인 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살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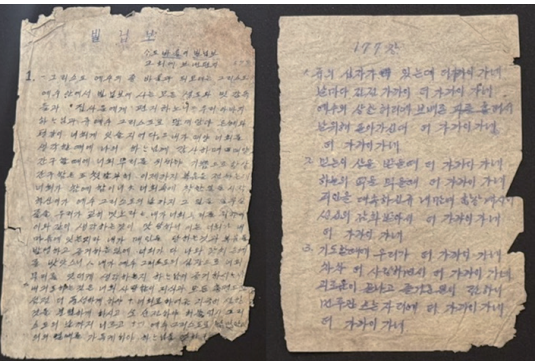
L 형제는 평양 근교의 S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성도로, L 형제의 할아버지는 평안남도 S 지역에서 R 교회를 개척하신 책임 장로였다. 할아버지는 북한을 버리면 누가 이 땅을 지키겠냐며 북한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교회를 지키셨던 분이다. 이후 북한에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위기를 맞았으나, 마을에는 할아버지의 선행을 기리는 성덕비가 세워져 있을 만큼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그 덕분에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L 형제는 할아버지와는 추억을 이렇게 회고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옛날이야기들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체제가 무조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다니면서 이 땅들이 우리 땅

이었는데 공산당이 모두 착취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공산당의 잘못된 교육에 대해서 비판도 하셨어요. 공산당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는 할아버지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학교에서는 공산당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체성에 혼동이 올 때가 많았습니다.

L 형제의 아버지는 L 형제에게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할 만큼 대범하신 분이였다. 게다가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늘 가르쳐 주셨다.²⁷⁾ L 형제는 친구들과 함께 지금의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행동을 하려고 했다. 대학 공부보다는 북한의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면서 자신들이 북한의 고위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의를 한 것이다. 그 친구들 중에는 소련 유학 파도 있었는데, 그들은 ‘프룬제 군사 아카데미 사건’²⁸⁾으로 숙청당했다. 모의한 사실이 발각되어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모의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드러났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L 형제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²⁹⁾

2016년 탈북한 김○ 전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부대표는 가족과 관련된 종교 사건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숙모가 성경을 전달하는 활동에 연루되었다가 당국에 발각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자신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숙모가 중국 국경을 통해 평양으로 유입된 성경을 다른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위부에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황상 평양 지역에만도 최소한 300명 정도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³⁰⁾



2025년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세계대회 특별 전시장에 전시된 북한 지하교인들의 성경 필사본 일부. 북한 주민들이 직접 필사한 성경으로, 옥수수대를 가공해 만든 종이에 작성되었다. 왼쪽 면에는 ‘빌립보서’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다. (사진=국민일보)

27) 김병로 외, 『그루터기』, p. 88.
28) 프룬제 아카데미아 출신 장교 쿠데타 모의 사건은 1992년 소비에트 연방의 프룬제 군사 아카데미(현 러시아 군사 종합 아카데미) 유학파 출신의 조선인민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시도한 군사 사건이다. 조선인민군 창설 60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된 1992년 4월 25일 사열식이 열릴 때 쿠데타 세력이 전차포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할 계획을 꾸몄으나, 정보 유출로 실패했다. 김병로 외, 『그루터기』, p. 90. 재인용.
29) 김병로 외, 『그루터기』, p. 89-90.
30) “80년 억압 뚫은 믿음… 북 지하교인 필사 성경의 증언”(국민일보, 2025.10.23.)

2019년 평양시에서는 비밀리에 종교 모임을 이어가던 지하교회가 국가보위부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자 5명이 공개 처형되었고, 7명은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었으며, 30명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가족과 주변 인물 등 50여 명이 강제 추방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³¹⁾

4.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평양대부흥 이후 평양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 말 신사참배 강요와 그에 대한 평양 교회의 대응 그리고 해방과 그 이후 평양의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양은 1907년 대부흥의 진원지로서 그곳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한반도와 만주지방까지 영향을 미쳤다. 교회는 일제 말기 일본 전역을 넘어 전 조선에 시행된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했으나 결국 1938년 끝내 장로교회가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 치욕적인 총회는 평양의 서문밖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총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산정현 교회를 중심으로 신사참배에 저항하였으며,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성도들은 지하화되었다. 평양신학교는 폐쇄되었으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학생들의 네트워크는 지하조직의 전국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양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또 다른 중심지였던 영남 지역과 평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 사례로 이인재 전도사를 들 수 있다.

해방 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며 교회와 정권의 갈등이 시작되어 수많은 교회 지도자는 월남을 택했다. 평양에 남은 지도자들 중 일부는 강량욱이 결성한 조선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하여 어용화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 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선택은 지하화였다. 남북의 분단으로 남쪽의 성도들은 지하화한 평양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에 의해 지하화한 성도들의 소식이 일부 국내에 전해지고 있다. 한국교회에게 평양은 대부흥의 진원지, 동방의 예루살렘, 서문밖교회 신사참배 결의, 신사참배 반대와 순교의 역사로 기억된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과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함께 품어 온 도시이자,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이 지나간 도시인 평양과 그곳의 성도들을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31)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p. 280-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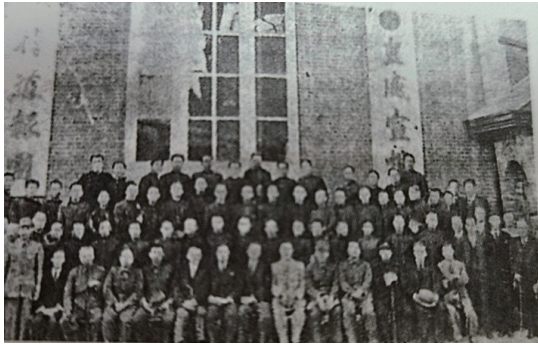
평양에 설립되었던 감리교회의 신학교육 기관들

고성은 (목원대학교 강사)

해방 이전 평양에는 1901년 장로교회가 설립한 평양신학교만 존재했다고 흔히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장로교회는 1923년에 평양여자신학교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감리교회 역시 평양 지역에 해방 이전부터 신학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감리교회의 경우 1892년 미 감리회 윌리엄 제임스 홀(W. J. Hall)선교사를 파송하면서부터 평양 선교의 문을 열었고, 장로교회의 경우 1890년부터 평양을 방문했던 북 장로회 새뮤얼 오스틴 모펫(S. A. Moffett, 마포삼열)선교사를 비롯하여 윌리엄 스왈렌(W. L. Swallen, 소안론), 그램 리(Graham Lee, 이길함)등 세 선교사를 1893년 함께 평양 개척자로 파송함으로 평양 선교의 문을 열었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거의 동시에 평양에 선교를 개시함으로써, 평양은 초기부터 두 교파가 함께 선교 사역을 전개하는 중요한 선교 기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 개신교회 초기 선교 정책이었던 선교지 분할협정시에도 평양은 서울과 원산과 함께 공동 점유 지역으로 남아 각각 선교 활동과 신학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평양 지역에서 감리교회의 경우 남성 목회자를 위한 신학 교육은 비교적 뒤늦게 시작되었다. 한국에 전래된 미 감리회와 남 감리회가 1930년 12월 2일 합동하여 기독교조선감리회로 태동한 무렵인 1930년 연말부터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던 존 무어(J. Z. Moore, 문요한) 선교사의 조선 선교 25주년을 기념한 사업으로 서부 연회에 소속된 평양지방, 사리원 지방, 진남포 지방 등 세 지



평양 요한학교 개교식(1939년)

방이 평양 남자 성경학원 설립을 추진한 것이 시초였다.¹⁾ 그 결과 1931년 본처교회를 위한 의무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평양 남자 성경학원이 설립되었다.²⁾ 이 평양 남자 성경학원은 평양 경창리 103번지에 임시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궁극적으로 평양 대찰리 112번지에 정착했다. 이후 존 무어 선교사가 1938년 한국 선교 35주년을 맞이하여 마지막 사업으로 교역자 양성 기관 설립을 계획하여

대찰리 112번지에 소재한 평양 남자 성경학원의 교육시설을 그대로 이양받아 34명의 신입생을 받아 1938년 3월 8일 개원식을 거행함으로 존 무어 선교사의 한국 이름인 문요한을 차용한 평양 요한학교(Pyongyang John Bible School)가 시작되었다.³⁾ 당초 ‘평양요한신학교’라는 명칭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일본 총독부 당국이 1교파 1개 신학교 정책으로 인해 당시 서울에 협성신학교(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존립하고 있었기에 ‘신’(神)자를 붙이지 못했으니 사실상 신학교나 진배없었다.⁴⁾

각종 학교로 인가⁵⁾를 받은 평양 요한학교의 입학자격은 18세 이상의 남자로서 중학교 2년 수업(수료)생이었다.⁶⁾ 그런 중 1939년 10월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승격하여 인가를 받아 본과 3년, 연구과 3년 등 6년제로 운영하여 입학자격은 본과는 중학교 2학년 수업(수료)자로, 연구과는 중학교 졸업자로 했다.⁷⁾ 이처럼 본과와 연구과의 학제로 이뤄진 평양 요한학교는 존 무어 선교사가 일제 당국이 각 기관에서 기관장에 대하여 외국인을 배제함에 따라 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1940년 가을 학감이었던 이환신 목사가 교장에 취임했다. 이와 더불어 존 무어 선교사는 1941년 3월 혁신 교단이 출현한 가운데 평양 요한학교 이사로 반혁신파였던 이윤영, 배덕영, 양주삼, 박현숙, 이환신을 세우고 설립자겸 이사장에 이윤영을 세운 존 무어 선교사는 일제의 선교사 추방 정책 속에서 ‘만국부인 기도회’ 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부인과 함께 연금 상태로 가

장 늦게까지 평양에 남아 있다가 1941년 8월 귀국 길에 올랐다.⁸⁾ 이후 이환신 교장은 평양 요한학교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혁신교단의 음모에 맞서 혁신교단과는 무관한 독자적 운영, 즉 ‘나홀로 서기’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평양 요한학교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해 주는 유지들 덕분에 학교를 유지해 나갔지만 1942년 가을 평안남도 학무당국의 폐교 명령으로 인해 결국 1944년 3월 재학생 모두 한꺼번에 졸업식을 거행한 이례적인 조치 속에 폐교했다.⁹⁾ 평양 요한학교는 적지 않은 인재를 배출했지만 특히 한국교회 음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구두회, 박재훈, 장수철 등 ‘요한학교 삼총사’와 한국기독교 역사 자료 발굴과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던 윤춘병과 감리교회사 연구에 한평생 심혈을 기울인 이성삼, 그리고 빈민운동과 농민운동을 벌인 김연호 등을 배출하였다. 이외에 숭한 동화와 동시 그리고 동요를 남긴 이태선도 평양 요한학교에서 수학하였다. 해방 이후 1946년 6월에 평양중앙교회에서 개최된 해방 후 제1회 서부연회를 통하여 요한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는 신학교 졸업자와 동등 대우를 하여 그 신학적 위상을 인정한 바 있다.¹⁰⁾

반면, 평양 지역에서 감리교회의 여성 신학교육은 남성 신학 교육에 비해 비교적 일찍 이루어졌다. 1902년 내한하여 평양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중 1915년부터 1916년에 안식년 휴가를 다녀왔던 로빈스(H. P. Robbins, 나빈수)선교사는 북한 지역에 항구적인 여교역자 양성기관을 건립할 필요성을 느껴 1916년 10월 남산현교회의 주일학교 교실을 빌려 예과 2년, 본과 3년의 학제로 하여 평양 여자성경학원(The Woman's Bible Training School)을 설립하였다.¹¹⁾ 설립자 명의를 존 무어 선교사였고, 원장은 로빈스 선교사였다. 처음에는 남산현교회 주일학교 교실을 원사로 사용하였는데, 1919년에는 경창리로 옮겼다가, 1921년에는 다시 홀(R. S. Hall, 허울)선교사의 사택으로 옮겼다. 궁극적으로 1923년에는 뉴저지연회에서 보내준 선교비로 평양시 수옥리 334번지에 독자적인 벽돌 교사와 기숙사 건물을 마련하고 ‘뉴저지연회기념성경학원’(The New Jersey Conference Training School for Bible Women)이라 하였다.

그러나 1927년 2월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여 교사가 소실되고 기숙사만 남아 폐교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미 감리회 여성해외선교회의 지원으로 다시 교

1) “문요한 박사의 이십오주년기념식” 『기독교신보』 1930년 12월 21일자, 3; 「기독교조선감리회 동부·중부·서부 제1회 연합연회회록」(1931), 179.

2) 「기독교조선감리회 동부·중부·서부 제2회 연합연회회록」(1932), 126-127.

3) “요한성경학원 개원식,” 『조선감리회보』 1938년 3월 16일자, 3; 「기독교조선감리회제 7회 동부·중부·서부연회회록」(1939), 203-204.

4) 윤춘병, 『평양요한학교와 이환신교장』 (서울: 평양요한학교 동문회, 2003), 33.

5) 소요한, 『광성을 사랑한 선교사 존 무어』 (서울: 삼북, 2024), 382 참조.

6) “학생모집,” 『조선감리회보』 1938년 8월 16일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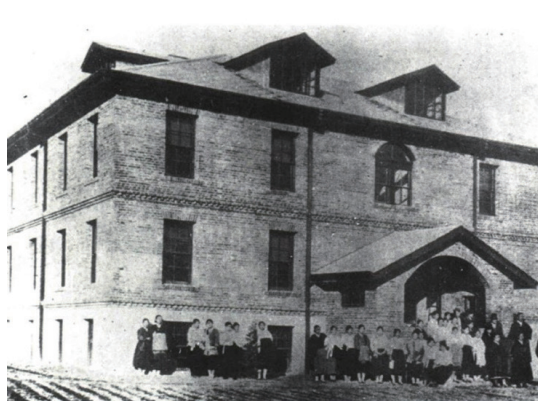
7) “평양요한학교생도모집” 『조선감리회보』 1940년 3월호, 7; “평양요한학교생도모집,” 『조선감리회보』 1941년 3월호, 7.

8) 윤춘병, 『평양요한학교와 이환신교장』, 61-62.

9) 윤춘병, 『평양요한학교와 이환신교장』, 90-91.

10) 윤춘병, 『8·15이후 서부연회수난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원로목사회, 1987), 50.

11) “로빈슨” 항목, 『내한선교사사전』;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에 대하여,” 『조선감리회보』 1942년 4월 1일자, 4에는 대정9년(1920년) 미감리회 부인선교부에서 오는 보조금으로 문요한 선교사가 창설자 명의를 가지고 조선교회 여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창설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1936년)

사를 재건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1935년 평양여자성경학원 경영 유지비로 사용하는 재산까지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¹²⁾ 그 이듬해인 1936년 평양여자성경학원은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Pyongyang Woman's Higher Bible School)로 승격되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학제를 변경하여 모집했다.¹³⁾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예과는 신앙과 봉사심, 그리고 덕망이 있는 자 가운데 소학교 미필자를 모집하여 2년간

소학교 5, 6학년 과정을 수료시켜 본과에 진학시키자는 것이었고, 본과 4년은 고등여학교 과정과 신학과정을 이수케 하여 감리교회 여성교역자로 양성도 하고, 신학교와 일반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¹⁴⁾ 이런 가운데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힘을 기울인 로빈스 선교사가 1936년 겨울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은퇴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녀의 뒤를 이어,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에서 교수로 수고하고 있던 헤인스(E. I. Haynes, 헤인수)선교사가 1937년 교장에 취임했다.¹⁵⁾ 헤인스 선교사가 교장에 취임한 이후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는 1938년에는 학제를 재차 본과 4년, 예과 1년으로 변경했다. 입학 자격은 18세이상 보통학교 6년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었다.¹⁶⁾ 1939년에도 학제를 또다시 변경하여 아예 예과는 폐지하고 본과 4년으로만 모집했다. 연령 18세 이상에 심상소학교 6년 졸업자였다.¹⁷⁾

그런 중 1939년 평안남도 학무당국으로부터 평양 시내에 있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평양신학교와 평양여자신학교, 송신성경학원, 송은성경학원과 기독교 조선감리회의 평양 여자고등성경학교와 요한성경학원 등 6개 신학기관에 인가를 얻어 학교를 경영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¹⁸⁾ 이에 교장인 헤인스 선교사는 설립자 존 무어 선교사와 함께 인가수속을 밟아 본과 4년의 평양여자고

등성경학교로 인가받았다.¹⁹⁾ 이를 기념하여 1939년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남산현 교회당에서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기도 했다.²⁰⁾ 이렇게 일제로부터 인가를 받아 개교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헤인스 선교사는 일제 당국이 각 기관에서 기관장에 대해 외국인을 배제함에 따라 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고,²¹⁾ 더 나아가 일제의 선교사 추방 정책에 의해 1940년 11월 본국으로 귀국해야 했다.

이렇게 헤인스 선교사가 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기독교조선감리회 교육국 간사로 충실하게 사역해 오던 흥해(興海) 배덕영이 기독교조선감리회 교육국 총무인 류형기의 추천을 받아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 교장으로 1940년 12월 6일에 취임했다.²²⁾ 배덕영의 교장 취임 직후에 보도된 생도 모집 광고를 보면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의 학제가 또 다시 6년으로 변경되었다.²³⁾ 입학은 연령 18세 이상에 심상소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었다.

그가 교장으로 취임하던 시기는 기독교조선감리회가 1940년 10월 2일 총리원 임시이사회에서 ‘기독교조선감리회감독제의신안’이라 불리는 이른바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여, 이에 기초한 혁신교단 출현을 준비하고 있던 격동기였다. 결국 1941년 3월 혁신교단이 출현한 가운데 혁신파와 반혁신파가 갈등하고 반목할 때 존 무어 선교사는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를 이윤영, 양주삼, 전희철, 이환신, 배덕영, 목야신부(牧野信夫) 등 반혁신파 이사들에게 위탁하고 귀국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탈취를 시도하던 혁신교단에 맞선 교장 배덕영은 교사로 근무하던 전영택, 박내철과 함께 기독교조선감리교단 통리자인 정춘수로부터 대명(待命) 처분을 받기도 했다.²⁴⁾

설상가상으로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는 학무당국의 폐교 명령까지 받은 가운데 신입생 모집은 중단하였지만 대신 재학생들을 한 학년씩 순차적으로 졸업시키는 우회적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일제의 억압적 상황을 견뎌내며 폐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이다.²⁵⁾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분단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북한 지역 장

12) 『재단법인 기독교조선감리회 유지재단 규칙규설명서(부 재산목록)』, (서울:감리회 총리원, 1938), 148.

13)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 『감리회보』 1936년 3월호, 7.

14) 윤춘병, 『성화신학교가 걸어온 발자취』, (서울: 성화회, 1990), 47.

15) 『제6회 기독교조선감리회 서부 연회록』, (1937), 28.

16)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 『조선감리회보』 1938년 3월 1일자, 5.

17) “여자고등성경학교입학안내,” 『조선감리회보』 1939년 3월호, 11.

18) “평양육개신학원에 인가제 실시단행,” 『동아일보』 1939년 7월 29일자, 2 참조.

19) “여자고등성경학교 생도 모집,” 『조선감리회보』 1940년 3월호, 16.

20) 윤춘병, 『성화신학교가 걸어온 발자취』, 49-51.

21) 김광우, 『한국감리교회백년』 (서울: 전망사, 1990), 227.

22) “인사,” 『조선감리회보』 1941년 1월호, 8. 류형기, 『은총의 팔십오년 회상기』 (서울: 한국기독교 문학회, 1983), 120.

23) “생도모집,” 『조선감리회보』, 1941년 2월호, 10; “생도모집,” 『조선감리회보』, 1941년 3월호, 8.

24)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에 대하여,” 『조선감리회보』 1942년 4월 1일자, 3.

25) 윤춘병, 『성화가 걸어온 발자취』, 57-58.

로교회는 5도연합노회가 발족하기 이전에 이미 평양신학교²⁶⁾와 평양여자신학교를 재건하였다.²⁷⁾ 특히 1945년 10월 다시 문을 열었던 평양신학교는 1945년 12월 1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발족한 이북 5도 연합노회에서 연합노회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평양신학교 이사장에 김화식 목사가, 교장에 김인준 목사가 임명되었다.²⁸⁾

반면, 일제의 혹독한 탄압속에서도 지속되었던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는 해방 이후 ‘성화여학교’로 개명하여 존속하였다. 그러나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한 직후 사회주의 혁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 해 3·1절 기념행사를 둘러싸고 사회주의 정권과 기독교 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정세가 말해 주듯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고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북한에서 서울에 소재한 감리교신학교로의 진학이 사실상 봉쇄되자, 감리교회 핵심 교리인 ‘성화’(聖化)를 차용한 성화신학교는 감리교회 목회자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파 신학교로 1946년 6월 평양 수옥리 334번지에 자리했던 전신인 성화여학교 교사를 기반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성화여학교의 교장인 배덕영 목사의 주도하에 남산현교회 송정근 목사, 서평양교회 박대선 목사 등과 주로 상의하여 남자따로, 여자따로인 장로교회 신학교와는 달리 남녀공학 신학교로 새롭게 설립된 것이다. 이사장에는 송정근, 교장에는 배덕영, 교감은 한승호, 교수로는 김용옥, 이두성, 이병섭, 이재면, 강사로는 김용련, 박대선, 윤창덕, 이피득, 사감으로는 안상현 등이었다. 이병섭 작사, 이유선 작곡으로 하여 교가도 제정하였다. 그 가사는 “비단실 수놓은 듯 아름다운 이 동산 아담하게 서 있는 성화신학교 실실이 늘어진 저 버들같이 주님의 멍에 메고 배워나간다. 신령과 진리로써 길림을 받고 기도는 찬미로 찬미는 봉사로 넘치나니 환히 흐르나니 평화 아- 여기는 꽃향기가 가득한 은혜의 동산 아- 여길세 참 아름다운 배움의 집”으로 성화신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이념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성화신학교의 첫 학제는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 재건되었던 평양신학교와 동일하게 2년 예과와 3년 본과였다. 입학 자격은 본과는 18세 이상으로 고급중학교 졸업자이었으며, 예과는 18세 이상으로 초급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체제로 갖 출범한 성화신학교는 1946년 11월 3일 주일 선거 문제로 인해

북한 사회주의 정권과 기독교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첨예화되었는데, 평양신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성화신학교 학생들이 주일 선거 거부 투쟁에 나선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갓 태동한 성화신학교는 외부적인 정치 상황보다 학내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두드러졌다. 다른 무엇보다 성화신학교는 교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1947년 봄 본과 학생인 김석홍을 비롯한 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빈약한 교수진의 보강을 위한 이슈로 데모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성화신학교 내의 가장 큰 표면적인 변화는 한승호 대신 박대선으로 교감이 교체된 점이었다.

그 직후인 1947년 6월 평양 신양리교회에서 개최된 해방 후 제2회 서부연합회에서는 성화신학교를 서부연합회의 신학교로 가결해 주었다. 이 연회에서 성화신학교에 대하여 결의된 중요 사항은 (1) 성화신학교는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통일이 되면 폐지한다. (2) 성화신학교의 재정책임은 연회가 진다(각교회의 부담금으로) (3) 성화신학교의 이사는 연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직권상 연회장이 된다. (4) 성화신학교의 졸업생은 서부연합회의 교역자로 등용한다는 것이었다.²⁹⁾ 이를 기회로 북한 지역 감리교회 신학교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화신학교는 이 해 9월 기존 학제에 2년제 야간부와 2년제 고등성경과(약칭 고성과)를 추가 설치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고성과는 1949년 9월 2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하였다. 이런 일련의 학제 변화로 인해 교수진도 대폭 보강되었다. 그리하여 이사장에 송정근, 교장 배덕영, 교감 박대선, 서무 김임길, 사감 안상현, 교수 이재면, 이두성, 김용옥, 오화동, 어응선, 강사로는 김경운, 김용련, 김창일, 김학수, 명관조, 양요한, 윤창덕, 이진구, 정비다, 정춘용, 조윤승, 최창신, 최학성, 한승호, 한의정 등이 강의했다.

그런 가운데 성화신학교는 학제가 추가되면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북한 지역에서 반공적인 신학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연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고성과는 공산주의 교육, 유물주의 교육을 싫어하여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한 18세 이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 진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설치한 부설 학과였기에 이 학과에는 교파를 초월하여 반공 신앙을 지닌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성화신학교는 교파신학교였지만 초교파적인 신학교로



성화신학교 전경

26) 일제강점기 평양신학교는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되었다. 이후 채필근을 교장으로 한 후 평양신학교, 속칭 채필근 신학교가 1940년 4월 11일 개교하여 1942년 10월 평양서문밖교회당에서 개최된 제31회 조선예수교장로총회때까지는 후 평양신학교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가운데 그 이후의 후 평양신학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2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358.

28)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47-48.

29) 윤춘병, 『성화가 걸어진 발자취』, 66.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학제를 갖춘 성화신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해 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화 학우회’를 조직했다. 제1대 회장은 이응교였고, 제2대 회장은 황원섭이었다. 황원섭이 회장으로 활동하던 1949년 성화학우회에서는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성화월보」(聖化月報)라는 학보를 발행하기도 했다. 「성화월보」는 학우회 지육부장인 김덕순이 편집 작업을 했고, 훗날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변선환과 홍석원이 등사하는 작업을 했다. 창간호는 1949년 6월 초순에 발행한 바, 교수인 박대선의 “구약의 중심 사상”이라는 소논문을 비롯하여 학우회 소식, 성경난해 구절 해석, 시, 기도문, 기행문, 단편 설교 등이 실렸다. 그 후 여름에는 쉬고 9월호와 10월호도 발행했으나 11월호를 준비하던 중 북한 당국에 의해 폐간당했는데, 아마도 「성화월보」는 1949년 11월 추수 감사절 특집호를 준비하던 시기 훗날 한국교회 부흥사계의 대부로 불리는 신현균이 「성화월보」의 발행 실무자였던 김덕순에게 건네준 반공적인 암시가 녹아있는 시 한 편이 내무서원에게 발각된 사건이 결정적 빌미로 작용하여 북한 당국에 의해 폐간당한 것으로 보인다.³⁰⁾

그 와중에 성화신학교는 1949년 7월 6일 본과 제1회 졸업식을 남산현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이때 졸업한 본과 학생들은 고봉하, 김기몽, 김석흥, 김영조, 김익주, 백만국, 안덕창, 안상현, 윤영봉, 이경선, 이성해, 이승성, 이응교, 이휘문, 이희정, 조동역, 최상봉, 한경숙, 한승호, 홍석원 등 20명이었다. 특히 졸업생들 중에 이응교와 안상현은 고성과 강사로 가르치기도 했다.

한편, 반공적인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던 성화신학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북한 사회주의 정권으로부터 제한과 탄압을 넘어 말살을 향한 수난을 당하였다.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 1949년 5월 천주교 덕원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덕원 수도원에 대하여 수도원 폐쇄와 함께 신학생 및 수사의 전원 추방이라는 강경책을 진행시켜 아예 말살해 버렸다.³¹⁾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 천주교에 대하여 실시했던 강경책과는 달리 개신교의 평양신학교와 성화신학교에 대해서는 두 학교를 합병하기 위한 회유책을 구사하였다. 성화신학교에 대한 회유가 본격화되는 결정적 계기는 1949년 12월 16일 저녁 남산현교회에서 한 학기를 마치는 방학식, 헌탤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합창을 중심으로 성탄축하음악예배, 신학교 주일 학생 파송기 낭독이라는 세 가지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성화신학교 교장 배덕영이 정

치보위부 요원에게 납치된 사건이었다. 그가 정치 보위부 요원에게 납치·연행을 당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반공적 관점에서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어 왔다. 김일성 사진 부착 거부설, 북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거절설, 고성과 폐교 거부설, 성화와 평신의 합병 거절설, 불온문서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시각에서 배덕영은 ‘반동분자의 괴수’로 규정될 만한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²⁾ 배덕영 교장의 납치를 계기로 성화신학교를 폐쇄하고 몰수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가운데 결국 성화신학교의 이사장인 송정근이 평양신학교와의 합병에 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서명이 이루어진 직후인 1950년 2월 성화신학교는 졸업장도 없는 제2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이를 통해 졸업한 학생들은 강길화, 고은용, 김대운, 김덕원, 김응엽, 백기준, 이병규, 이시용, 이재선, 최보순, 황원섭, 황태병 등 12명이었다.

성화신학교와 평양신학교의 합병은 북한 지역에 친정부 성격으로 출현한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이 주도했다. 성화 600명, 평신 600명, 도합 1200명의 학생을 십분의 일인 성화 60명, 평신 60명, 도합 120명으로 시험을 통해 감축하고 조선 기독교신학교, 혹은 평양 기독교신학교라고 불리는 신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심지어 이 신학교를 ‘김일성 신학교’라고 호칭하기도 했다고 한다.³³⁾ 이 신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해 주고 있는 명칭이다. 합병한 신학교의 운영권은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이 행사했다.³⁴⁾ 합병한 신학교의 교사는 마포삼열 기념관에서 개교했는데, 김일성 및 스탈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³⁵⁾ 이 신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은 전원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한 사람이었다.³⁶⁾ 이 신학교의 이사장은 김익두가, 부이사장은 이진구가 맡았다.³⁷⁾ 교장은 이성휘가, 부교장은 송정근이 맡았다. 그렇지만 북조선기독교연맹의 부총회장이었던 김응순이 실제적인 학교의 실권을 행사했고, 이성휘 교장에 이어 후임 교장으로 취임했다.³⁸⁾ 교수들로는 평신측의 이성휘, 최지화, 성화측의 송정근, 이두성, 그리고 노어교수 1

32) 고성은, “성화신학교의 역사와 성화파의 활동,” 「201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심포지움- 평양지역 감리교 역사와 한국교회」(2014. 11. 8), 165-166.

33) 장병욱, 『6·25공산남침과 교회』(서울: 한국교육공사, 1983), 95.

34) 김흥수 엮음, 『해방 후 북한교회사』(서울: 다산글방, 1992), 174-175; 김광수, 『나의 반평생과 한국교회사』(서울: 도서출판 경건, 2010), 243.

35) 이종겸 엮음, 『원로목사 이종겸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크리품, 2008), 130.

36) 김흥수 엮음, “『해방 후 북한교회사』, 340 참조.

37) 윤춘병, 『수난시대의 목회자 이진구 목사』(원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본부, 1997), 117.

38) 김광수, 『북한교회 탐구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4), 241 참조.

30) 평양 성화신학교 동문회 편, 『성화신학교 역사와 회고 1946~1950~1998』(대전: 성화신학교 동문회, 1998), 130-133.

31) 이정순 편, 『포교성베네딕도수도회 원산수년원사』(대구: 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1987), 262-263.

평안남도에 세워진 성결교회

이한복 목사(정선교회)

인이었다.³⁹⁾ 구약학은 이성휘, 조직신학은 최지화, 송정근은 실천신학, 신약학은 이두성이 맡았다. 직원들은 평양신학교 교직원들을 채용했다. 하지만 이 신학교 역시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 폐교를 당하며 신학교육의 종식을 고하였다. 이같이 북한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수난을 당한 성화신학교가 자리했던 평양 남산재 언덕에는 현재 ‘복음’ 대신 ‘주체사상’을 전하는 인민대학습당이 들어서 있다.⁴⁰⁾

월남한 평양 요한학교 출신들도 평양 요한학교 동문회를 조직하였지만 월남한 성화신학교 교수와 학생들도 감리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파에서 활동한 가운데 1951년 제주도에서 성화신학교 동문들의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끈끈한 결속력을 유지한 가운데 박대선 회장과 이승규 총무를 중심으로 한 성화신학교 동문회 모임인 성화회를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 동문회까지도 조직했다. 특히 오랫동안 성화신학교 동문회 총무로 수고한 이승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화신학교 동문회 소식지인 「성화 NEWS」를 꾸준히 발행하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성화신학교 동문들을 중심한 이북 출신들이 성화신학교의 이름을 차용한 ‘성화파’라는 정치 서클을 조직하여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한국 감리교회 정치 지형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39) 윤춘병, 『성화가 걸어진 발자취』, 76.

40) 평양 성화 신학교 동문회 편, 『성화신학교 역사와 회고 1946~1950~1998』, 89.

1. 평안남도 지역이해

조선시대의 ‘평안도’는 하나의 지역이었으나 1896년에 13도(道)로 나뉘면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로 구분되었다. 평안남도는 평양을 중심으로 동쪽은 함경남도, 서쪽은 서해, 남쪽은 황해도, 북쪽은 평안북도와 접하고 있다. 평안남도의 인구는 1943년 당시 1,719,636명이었다. 평안남도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농경지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일찍부터 농업과 광업,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의 평안도는 서북지방(西北地方)으로 불리며 기호지방(경기도, 호남)이 주도하는 중앙정치에서 변방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타 지역에 비해 교육열이 높았고 과거급제하는 사람들도 월등히 많았음에도 고위 관직에는 오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평안도 사람들의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과 기호지방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개항 이후 신문물과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배경이 되었다.

2. 평안남도에서의 개신교 전도 활동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조선 정부가 허락한 경성과 경기지역 등 안전한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전도 지역을 개척하려는 계

획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남도의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는 1892년 3월 초순 존스(Georg Heber Jones, 조원시 趙元時, 1867-1919) 목사와 의사인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4, 허을 許乙) 박사를 한 팀으로 평양에 보내 전도를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1893년 1월 마펏(Samuel Austin Moffett, 마포삼열 麻布三悅, 1864-1939)을 비롯해 리(Graham Lee, 이길함 李吉咸, 1861-1916), 스왈른(William. L. Swallen, 소안론 蘇安論, 1865-1954) 등 3명을 평양에 파송하였다. 마펏은 전도를 시작하며 의주에서 만난 한석진(韓錫晉)을 조사로 삼아 평양 지역 교회설립의 실무를 맡겼다. 그 결과 1894년 평양에는 한석진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인과 김창식(金昌植)을 중심 한 감리교인들의 신앙공동체가 세워졌다. 뒤이어 성결교회와 구세군, 성공회, 안식교 등도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평안남도에서의 성결교회의 전도 활동은 1908년 5월 ‘진남포복음전도관(진남포성결교회)’ 설립을 시작으로 1925년 6월 평양성결교회(平壤聖潔教會), 1931년 교구정성결교회(橋口町聖潔教會), 암정성결교회(岩町聖潔教會), 1932년 신안주성결교회(新安州聖潔教會), 선교리성결교회(船橋里聖潔教會), 대동성결교회(大同聖潔教會, 기림리성결교회), 1933년 숙천성결교회(肅川聖潔教會), 1934년 용화성결교회(龍花聖潔教會), 진지동성결교회(眞池洞聖潔教會), 1941년 평동성결교회(平東聖潔教會) 등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3. 평안남도 성결교회 설립

3.1. 진남포성결교회(鎭南浦聖潔教會)

진남포성결교회는 1908년 5월에 강태온(姜泰溫)과 김혁준(金赫濬) 두 전도사를 파송하여 설립한 교회다. 19세기 말 진남포 항(港)은 평안남도 용강군에 둘러싸인 평안남도의 유일한 항구로서 삼화면에 속한 자그마한 어장이었으나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드나들게 되면서 고패동(龍井里), 뒷개(後浦里), 비석거리(碑石里), 새장거리(驛前里) 일대가 각광을 받게 되었고 진남포가 개항장이 되면서 해관(海關)이 설치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때 이곳은 일본의 군사기지로 군수품 수송의 핵심 항구가 되었고 1910년에는 ‘진남포부’로 승격됨에 따라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진남포 항은 일본의 동경·오오사가·나가사키와 중국의 대련·청도·상해를 연결하는 주요 항로였고 신의주·인천·군산·목포·부산을 잇는 연안 항로의 기착지와 동시에 고기잡이하는 어선들까지 드나드는 조선의 중요한 항구였다.

진남포교회가 설립될 당시 진남포의 인구는 11,30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조선 사람이 8,100여 명, 일본사람이 2,900여 명, 그 밖의 다른 나라 사람이 4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진남포의 개신교 전도 활동은 1896년 ‘북장로회 선교부’에 의해 ‘노정장로교회’가 설립됨으로 시작되었다. 1897에는 ‘비석리장로교회’가 세워졌고, 1907년까지 모두 6개의 장로교회가 연이어 설립되었다. 또한 감리교회는 1894년에 전도 활동을 시작하여 신흥리, 억양기리, 비석리 등에 교회를 설립하였고 1900년에는 진남포 인근의 용강군과 강서군에도 감리교회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장로교와 감리교 교회들이 교세를 크게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양선교회(성결교회)는 10여 년 늦은 1908년 5월에 강태온(姜泰溫)과 김혁준(金赫濬) 전도사를 파송하여 ‘진남포복음전도관’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교회설립은 1년 만에 실패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만다. 동양선교회는 1911년에 또다시 김혁준과 김두엽(金斗燁) 전도사를 파송하여 복음전도관을 설립하고 전도 활동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로 설립된 교회 역시 또다시 실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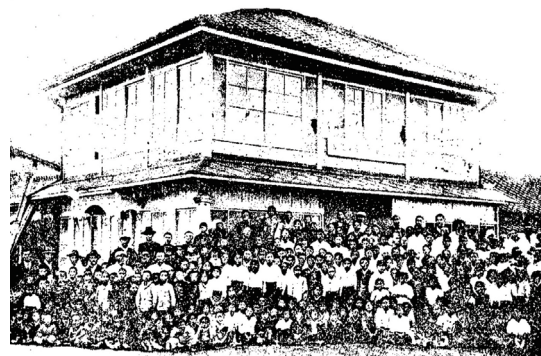
이후 20여 년간 진남포에는 성결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동양선교회는 1929년 4월에 박정훈(朴貞薰) 전도사를 파송하여 세 번째로 진남포성결교회를 설립하였다.

진남포교회는 1929년 4월 7일(주일)부터 ‘비석리 142번지’에서 구도자 8명 외에 20여 명이 모여 기쁨으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날 밤에는 구도자 7명을 더 얻어서 30여 명이 예배를 드렸으며 다음날인 8일~11일에는 이건 목사를 청하여 대거전도회를 밤마다 열고 3-40여 명의 군중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결심자 13명을 얻었다. 6월 15일~21일에 또다시 이건 목사와 김용자 전도부인의 인도로 고패동(龍井里) 중앙에 천막을 치고 매일 밤 대거전도회를 개최하고 1,3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가운데 믿기로 결심한 자가 32명이나 되었다. 동양선교회는 8월에 성서학원을 졸업한金玉軒(金玉軒)을 전도부인으로 임명하고 진남포교회에 파송하여 사역하게 하였다.

1930년 1월, 개척자인 박정훈 목사의 건강이 허약함으로 사직하자 성서학원 학생인 안형수 형제를 임시로 파송하였다가 8월에 정문성(鄭文星) 전도사가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1931년 4월 20일~24일에 곽재근 목사의 인도하에 특별부흥회를 열고 매일 3차씩 집회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는 중 중생자 7명, 성결자 9명, 신 결심자 11명이었으며 3명에게 세례예식을 행하였다. 5월 14일~16일에는 남녀직

원의 인도하에 ‘소아부흥회’를 열었는데 성신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아동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였고, 5월 11일에는 ‘소화공원’에 가서 ‘장·유년 야외연합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7월 16일~20일에 ‘서선순회전도대’를 청하여 특별대전도회를 열고 매일 조석(朝夕)으로 모여 큰 은혜를 받았으며 새로 믿기로 결심한 자도 10명이나 되었다. 9월 1일~3일에 성서학원 수양생인 박문익 형제를 청하여 주일학교 특별집회를 열었는데 장·유년의 심령에 많은 은혜가 임하였고 7일~12일에는 ‘진남포부 내(內) 6리’라는 곳에 가서 밤마다 노방전도를 하는 중 결심자 12명을 얻었고 24일~26일에는 부내(府內, 시내) ‘비석리기도소’에서 기도회를 열고 밤마다 복음을 전하는 중 결심자 7명을 얻었다. 10월 14일~20일에는 변남성 목사의 인도하에 부흥회를 열었는데 성신의 크신 역사가 임하였다. 이 은혜가 장로교와 감리교 신자들에게까지 임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집회 결과 중생자 12명, 성결자 10명, 결심자가 19명이나 되었으며 세례예식(7명)과 학습예식(10명)을 행하였다.



진남포성결교회 신자들
(1932년)

1932년 1월 21일~24일에 남녀교역자의 인도하에 ‘소아부흥회’를 열었는데 아동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였고 28일~31일에는 ‘비석리기도소’에서도 ‘소아부흥회’를 열었는데 역시 큰 은혜가 임하였다. 6월 8일~12일에 장막전도대의 전도집회가 진남포에서 개최되었는데 청중은 1,200명~3,500명에 달하였고 그 가운데 결심자가 253명, 성결자는 79명이나 되었다.

진남포교회는 1937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몇몇 신자들이 모여 집회를 계속하여 오던 중 10월에는 예배 처소를 새로 준비하고 이정애 전도부인의 인도로 특별집회를 열었는데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며 새로 결심한 자가 10여 명이나 되었다.

1938년 10월경 3,600원으로 예배당(평안남도 진남포부 비석정 148-1)을 매수한 이후 재적수는 70여 명이나 되었고 예배 출석자가 50명이나 되므로 구역을 정하고 구역마다 구역장을 두어 전도와 심방을 하게 하고 매월 말에는 교회에 보고하게 하였다. 12월 15일부터 1주간 강태준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고 매일 세 번씩 모여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1941년 1월에 오덕삼(吳德三) 목사가 부임하였고 5월 21일부터 한보순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성신의 역사가 맹렬하게 임하여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며 장로교와 감리교에서도 다수가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후 진남포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진남포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진남포교회는 교회 재건을 위해 신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1946년에는 교역자 박용현(朴龍賢) 목사와 90여 명의 신자들이 믿음생활에 열심하였고 1947년에는 월남하는 신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박용현 목사가 사역하고 있음이 전해진다.

3.2. 평양성결교회(平壤聖潔教會, 상수리성결교회)

평양성결교회(평안남도 평양부 상수리 127)는 ‘평양제1교회, 평양상수리교회’라고도 불리었다. 성결교회의 서선지방(조선 서부지방) 전도 활동은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평양은 인구 10만을 가진 조선의 ‘제 2도시’였고 무엇보다 ‘예수교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든지 높직한 언덕 위에 크고 신성하게 세워진 예배당과 사방팔면(四方八面)에서 울려오는 주일의 종소리를 들었다.

인구는 경성보다 3분의 1이었지만 평양 시내에는 다수의 장로교회, 감리교회와 천주교, 성공회, 안식교 등 예배당이 25~6개소나 되었고 교회들마다 교인들로 가득했다. 주일에는 상점 태반(太半)이 문을 닫고 남녀노유(男女老幼)가 성경책을 끼고 삼삼오오(三三五五) 무리 지어 각처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광경은 경성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일이었다. 또한 수십이나 되는 대·중·소학교는 대부분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였고 우뚝우뚝 솟은 연통으로 연기를 내는 각종 공장도 거의 예수교인의 사업장이었다.

동양선교회는 함경북도에 회령, 함경남도 원산, 강원도 강릉, 평안남도 평양, 경상북도 상주, 전라남도 목포 등 여섯 곳에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1925년 6월 주임교역자로 이건(李鍵) 전도사와 부임교역자로 김제근(金濟根) 전도사를 파송하여 상수리 적당한 위치에 큼직한 집 한 채를 세내어 설립하였다. 그러나 평양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미 그 교회들은 10여만 원씩 들여 건축한 벽돌 양식교회당에 7~800여 명이 출석하였고 작은 교회도 수백 명씩 모였다. 주일이나 삼 일(수요일)이 되면 4면에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는 성내·외에 진동하였다.

두 전도사는 8월 26일까지 예배당을 수리하고 30일(주일)에 남녀 22명이 출석한 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다. 평양교회는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 가운데 1925년 말에는 장년 48명, 주일학생 70명이 출석하였다.

1926년 2월 8일~14일에 청신기도회(새벽기도회)를 열었는데 그 결과 어느 보통학교 교사의 온 가족 10여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7월 6일~10일에



평양성결교회 신자일동
(1926년 6월 6일)

는 교회 정원에 천막을 치고 이명직 목사와 최석모 목사가 ‘대거전도회’를 열었다. 매야(每夜) 참석한 청중은 5-600여 명~1,000여 명에 달하였으며 결심자가 100여 명이고 매일 오전 10시에 열린 ‘성별회’에서도 성신의 능력이 나타나 신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9일 오후 3시에는 룡라도강(대동강)에서 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10일에는 7명에게

집사임명식을 행하였다. 9월 26일~10월 2일에는 청신기도회를 개최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 중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애통함으로 고백하며 사죄의 평안을 받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1928년 4월 22일에 황재학과 김재곤을 집사로 세웠으며 5월 27일에는 남녀 11명에게 학습예식을 행하였다. 6월 23일에는 남녀 14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6월 24일(주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였는데 남녀 41명이 경건하게 참여하였다. 점차 교인들이 증가하여 100여 명이 출석하게 됨에 따라 예배 장소가 협착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 시카고에 사는 한 자매가 죽은 동생을 기념하기 위해 드린 헌금으로 대지 94평을 1,800원에 매수하여 예배당을 건축(평안남도 평양부 상수리 127)하였다.

평양교회는 7월 27일~30일에 이명직 목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열고 많은 은혜를 받는 중 28일에는 신축예배당 헌당식을 거행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당일에 송기준 성도는 40여 원하는 경종을, 윗-쓰 목사는 강대상을, 간신성 자매는 강대상 의자 1개와 시계 1개를 기부하였으며 그 외에도 신자들은 신축예배당 부속 설비를 위해 250여 원의 헌금을 드렸다. 12월 2일에는 ‘추수감사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중 신축예배당 부채를 위해 70여 원의 헌금을 드렸으며 12월 16일에는 8명에게 학습예식을 행하고 송기준 성도의 집사임명식이 있었다.

1933년 9월 9일에 평양교회 변남성(邊南星) 목사의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었는데 원인은 이웃에 있는 양말공장에서 발화된 불이 옮겨붙었기 때문이다. 변남성 목사가 목회하던 1933년 7월 전도부인의 이동과 연관되어 평양교회 내부적으로 횡설수설과 유언비어로 인해 1934년 초까지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7월 16일 밤 8시에 평양부 내 5개 성결교회는 평양교회에 모여 ‘직원연합회’를 조직하였다.

1935년 3월 11일~17일에 ‘서부지방회’가 평양상수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1936년 3월 24일에 개최된 ‘제3회 성결교회 총회’에서 합법적인 무기명투표를 통해 3대 총회장으로 평양교회 변남성 목사가 선출되었으나 이명직 목사

와 중앙대의원들은 선교사를 앞세워 ‘제3회 총회가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변남성 목사를 중심으로 15개 교회와 교역자들이 1936년 7월 12일에 평양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교회’ 창립을 결의하고 선언문을 발표하고, 11월 25일~29일에 평양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제1회 공의회’를 열어 새 교단인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하고 변남성 목사를 1대 총회장으로 선출한다. 이는 ‘성결교회의 첫 분열’이었다.

동양선교회는 변남성 목사를 파직하고 박형순(朴瑩淳) 목사를 상수리교회 교역자로 임명한다. 이후 교회를 ‘평양부 상수리 127’로 이전하여 교회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8월 25일 평양교회를 폐쇄하고 1937년 7월 31일에 박형순 목사를 사리원교회 교역자로 파송한다.

해방 이후 평양교회가 다시 설립되어 최병률 전도사와 신자 80여 명이 모이고 있었음이 전해지고 있다.

3.3. 교구정성결교회(橋口町聖潔教會, 유정성결교회)

교구정교회(평안남도 평양부 교구정 17-490)는 평양에 두 번째로 설립된 성결교회이다. 처음에는 ‘평양제2성결교회’로 불리었으나 1934년 ‘성결교회 제2회 총회’에서 ‘평양유정성결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1936년에 교회가 교구정으로 이전됨에 따라 ‘교구정성결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양선교회는 평양외성(平壤外城)에 교회를 신 개척하기 위해 신의주성결교회에서 사역하던 김제근(金濟根) 전도사를 평양에 파송하였다. 김 전도사는 1931년 8월 20일경 평양부 유정 87번지에 있는 16칸의 집을 세로 얻어 9월 첫 주일(6일)에 10여 명의 신자와 함께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튿날(9월 7일)부터 5일간 대거전도회를 연 결과 80여 명의 구도자를 얻었는데 그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45명이나 되었다.

1932년 1월 6일에는 60여 원의 헌금으로 경종을 구입하여 달았다. 신자 중에 10여 명이 열심히 전도하여 결심자를 많이 얻었으며, 한 자매는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월요일을 전도를 위해 주님을 바쳤다. 평양제2성결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4개월마다 부흥회를 열기로 작정하고 40-50명의 신자들이 열심히 출석하였고 이들 가운데 5-6명은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다.

10월 17일~23일에 변남성 목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열었는데 각 교파의 신자 다수가 출석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는 동시에 신 구도자 5명을 얻었다. 교회 설립을 위해 헌신하던 김제근 전도사는 검이포교회로 이동하고 후임으로 조정헌(曹正憲)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1934년 ‘성결교회 제2회 총회’에서 교회 명칭을 ‘평양유정성결교회’로 변경



평양교구정성결교회 신자일동(1937년)

하였다. 1935년 7월 9일~14일에 안형주 목사의 인도로 매일 세 차례 집회하였는데 신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후임자로 사역하던 정용현(鄭龍鉉) 전도사는 1936년 3월 17일~22일에 경성에서 열린 심령수 양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또한 '평양부 교구 정 17-4번지'에 있는 교회당을 800여 원에 매수하

고 이전하여 교회 명칭을 '평양교구정성결교회'로 변경하였다.

1937년 정용현 목사는 사리원교회로 전임됨에 따라 교구정교회는 순회이사 박영순 목사가 임시로 겸임하여 사역하다가 4월 초에 열린 '제2회 이사회'에서 조창문(趙昌文) 전도사가 주임교역자로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새로 부임한 조창문 전도사는 5월 12일부터 5일간 부흥회를 개최하였는데 타 교파 신자들까지 참석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새로 믿기로 결심한 자가 수 십여 명에 달하였다. 또한 철야기도와 노방전도에 전력하는 신자들도 있어 부흥의 불이 계속 타올랐다. 5월 16일에는 장년과 주일학생들이 함께 교회에서 4km쯤 떨어진 '쑥섬'에 가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1939년 조창문 전도사는 숙천교회로 전임되고 후임으로 문이호(文履浩)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1939년 9월 5일에는 '부인회'를 조직하였는데 회원은 30여 명이었고 회원들은 주일마다 성미를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1939년 10월 19일부터 사리원교회 강태준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가 열렸는데 전하는 말씀이 힘 있고 은혜로워 회개하며 헌신한 자가 많이 나왔으며 감사헌금도 300여 원에 이르렀다. 부흥회의 열매로 신자들은 개인 전도와 새벽기도에 열심을 내었다. 문이호 전도사는 1941년 4월 9일부터 5일간 경성신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성결교회 북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교구정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평양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교구정교회는 예배당을 재건하고 이은실(李恩實) 전도부인과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3.4. 암정성결교회(岩町聖潔教會)

암정교회(평안남도 평양부 암정 15-1)는 '평양제3교회'로 1931년 11월 2일에 배신환(裴信煥) 목사를 파송하여 설립되었다. 1932년 5월 19일~23일에 평양의 '암정'에서 '장막전도회'가 열렸는데 모인 사람들은 4,000명~8,000명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결심자 85명, 타락 중에서 돌아온 자가 27명,

흡족한 은혜를 받은 자가 377명이나 되었다.

1934년 평양부 내(內) 5개 교회는 7월 16일 밤 8시에 상수리 교회에 모여 직원연합회(평신도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암정교회 개척자인 배신환 목사는 일본 동경교회로 파송되었다.

1936년 4월 신임교역자로 정금섭(鄭競燮) 전도사가 부임하였고, 10월 21일~11월 1일에는 이건 목사와 태애도 선생의 인도로 매일 네 번씩 집회하였는데 다른 교파 신자들도 많이 참석하여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 받는 중에 새 결심자 30여 명을 얻었다.

1937년 2월 11일부터 1주간 이성봉 목사의 인도로 부흥사경회를 열었는데 성신의 역사가 맹렬하여 시간마다 은혜가 나타났으며 타 교파 교인들도 다수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새벽집회 80여 명, 낮공부회에 200여 명, 저녁에는 700여 명씩 모여 예배당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100여 명은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집회 중 흉악한 죄를 회개 자복하는 자가 많았고 집회 결과 중생자 39명, 성결의 은혜 받은 자 100명, 새 결심자가 121명이나 되었고 십일조 작성자도 24명이었다.

정금섭 전도사가 호남 금산교회로 전임하고 후임으로 천막전도대에서 활약하던 김영균(金永均) 전도사가 부임하였으나 다음 해인 1938년에 조치원교회로 전임하게 되었다. 이후 교회는 마귀 역사(魔役)로 위급한 지경에 빠졌으나 후임으로 황경찬(黃景燦) 전도사가 파송을 받아 암정교회와 교구정교회를 겸임하며 열심으로 사역(役事)한 결과 교회가 부흥되었고 남 집사 4명과 여 집사 수인(數人)을 임명하여 직원회를 조직하였다.

1939년 9월 7일~9일에는 암정교회에서 '서부지방회'가 개최되었다. 1940년 6월 10일에 평양에 있는 세 곳 성결교회 직원회들이 암정교회에 모여 '도(道) 직원회'를 조직하였는데 회원은 남녀 32명이었고 첫 사업으로 각 교회에서 3일간씩 전도 집회를 하되 직원들의 간증 겸 설교를 순차(順次) 인도하기로 하였다. 암정교회는 음력 6월 24일(양력 7월 28일)부터 3일간 전도회를 하였는데 남녀 결심자가 33명이나 되었다.

암정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평양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암정교회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평양암정성결교회 신자일동(1933년 4월 23일)

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고 1946년 3월에는 최창도 목사를 중심으로 신자 50여 명이 매 주일 모여 예배드리고 있음이 전해진다.

3.5. 신안주성결교회(新安州聖潔教會)

‘신안주’는 경의선의 중요한 역으로 인구는 천여 호에 불과한 소도시였으나 장래 발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신안주성결교회(평안남도 안주군 신안주면 원흥리 78-1)는 1931년 12월 31일~4일에 평양제1성결교회(평양교회·상수리교회)에서 열린 ‘제4회 평양지방회’에서 신 개척을 결의함에 따라 김창희(金昌熙) 전도사를 파송하여 1932년 4월에 설립되었다.

1932년 5월 15일에는 58명이 ‘산상 예배’를 드렸는데 교우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였다. 5월 24일~28일에는 김창희 전도사의 인도로 특별전도회를 열었는데 결심자가 18명이나 되었다. 7월 25일~29일에도 김창인 전도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9월 21일~24일에는 박문익 전도사를 청하여 특별전도회를 열고 매일 세 번씩 모여 큰 은혜를 받는 동시에 여러 명의 청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11월 22일~27일에 배신환 목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열고 큰 은혜를 받는 중 중생자 13명, 성결자 5명, 신 결심자가 6명이었으며 신자들은 전도에 열심하기로 작정하였다.

1933년 2월 5일~7일에 박문익 전도사를 청하여 소아부흥회를 열고 아동이 큰 은혜를 받은 중 12명의 중생자가 있었으며 장년 신자들에게까지 은혜가 임하였다. 5월 14일~17일에 박문익 전도사의 인도로 전도회를 열고 여러 명의 결심자를 얻었다.

1934년 10월 15일에 소아부흥회를 열었는데 아동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11월 23일~25일에 신안주교회 부속 ‘봉학리기도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저녁에는 4-50명씩 모였고 새로 믿기로 결심한 자도 수십 인이나 되었다. 12월 1일~6일에는 정룡현 전도사를 청하여 부흥회를 열고 매일 3회씩 집회하였는데 큰 은혜가 임하여 거듭나고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가 30여 명, 새로 믿기로 결심한 자가 6명, 경종 구입을 위해 13원이 헌금 되어 신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38년 4월 26일부터 4일간 봉천교회 박영애 선생을 초빙하고 매일 3차씩 집회하는 중 성신의 맹렬한 역사로 풍성한 은혜가 신자들의 심령에 임한 결과 모든 죄를 통회자복 하였고 중생자 6명, 성결자 4명, 결심자가 10명이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1939년 1월 10일부터 6일간 이용선 목사의 인도로 특별부흥회를 열고 매일 3차씩 집회하였는데 성신의 맹렬한 역사로 모든 죄악을 통회하며 큰 은혜

를 받는 결과 중생자 5명, 성결자가 2명이었으며 장로교회 신자들도 매시간 다수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다.

신안주교회는 ‘안주읍 용흥리(龍興里)’라는 곳에 초가 4칸을 매수하여 ‘기도소’로 정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하는 중에 정신병으로 고통 중에 있던 김봉림이라는 형제가 기도하여 완치되었다.

1940년 2월 11일부터 5일간 김창희(金昌熙) 전도사의 인도로 신년기도회를 열었는데 집회마다 성신의 역사로 장·유년 신자들은 과거의 죄악을 회개자복한 후 풍성한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1941년 그동안 사역하던 김창희 전도사가 사면(辭免)되고 비현교회 정운학(鄭雲鶴) 전도사가 신안주교회를 겸임 사역하게 되었다.

신안주교회는 설립 된지 8-9년이 되었음에도 신자는 10명 이내로 교세가 약하고 교역자도 없는 가운데 김지봉(金芝鳳) 집사가 중심이 되어 유지되었다.

신안주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신안주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3.6. 선교리성결교회(船橋里聖潔教會)

선교리성결교회(평안남도 평양부 선교리 238)의 설립은 1932년 평양부 선교리에 문창호(文昌浩) 형제를 파송하여 추진되었다. 6월 6일에 임지에 도착한 문창호 형제는 아직 예배 처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전도를 시작하여 결심자를 얻게 되었으나 예배당을 구하지 못해 주저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섭리로 어떤 부인이 자신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6월 12일에 장년 12명 소아 5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다음 주일(19일) 부터는 결심자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윤흥일(尹興逸) 형제의 집을 임시에배처로 정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7월에는 저녁 집회에 소아까지 70명가량이 모이게 되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는 신 결심자도 있고 4-5년 혹은 10여 년 전에 타락하였으나 다시 돌아온 자도 있고 가지각색의 인물들이 있었다. 7월 13일 밤부터 5일간은 감리목사와 3개 교회의 신자들이 총출동하여 ‘옥외 구령회’를 열고 큰 은혜를 받았다.

선교리교회는 문창호 형제의 헌신적인 2년여 간의 사역이 있었으나 문창호 형제가 신학 공부를 중지함에 따라 이후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였다. 결국 선교리교회는 1936년 1월 6일에 ‘교회 폐쇄’를 신고하였다.

3.7. 대동성결교회(大同聖潔教會, 기림리성결교회)

동양선교회는 대동성결교회(평안남도 평양부 인흥정 129)의 설립을 위해 경



창립예배기념 기림리성결교회 신자일동 (1932년 7월 24일)

성성서학원에 재학 중이던 이용선(李龍善)을 파송하였다. 파송 받은 이용선은 서평양역 바로 뒤편에 예배당으로 사용할 방 3칸을 세로 얻고 열심히 전도하여 1932년 7월 24일에 ‘기림리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교회 주변에는 2천여 호의 집들과 세 곳의 장로교회와 한곳의 기도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기림리

교회는 수개월 후 비좁은 예배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큰 길가 주변으로 이사하였다.

성서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이용선은 1933년 봄 학기 개학으로 인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때마침 이곳 장로교회 신자로서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고 귀가해 있던 라병주 씨에게 방학 때까지 목회를 임시 대리케 하였다. 5월 초순에는 이진화(李眞化) 전도부인이 파송되어 동역하였다.

1933년 7월 22일 평양부에 있는 5개 성결교회 장·유년이 연합하여 평양제1교회(평양성결교회)에서 ‘기림리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전도회’로 모였고 다음 날(23일)에는 모란봉 아래 ‘기자림 송림(松林)’에서 장·유년 수 백여 명이 기념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비좁은 예배당 문제로 인해 신자들과 교역자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을 위해 500여 원을 헌금하고 본부(동양선교회)와 개인들과 선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여 합 800여 원으로 대지 81평에 36평의 일본식 기와를 사용한 ㄱ자 예배당을 총공사비 1,640원 10전을 들여 건축하여 24평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12평은 남녀교역자의 주택으로 임시 사용하였다. 경성성서학원 여자부 교수인 ‘테-트’ 선생은 80원 하는 특호 경종을 헌물 해주었다. 12월 3일에 평양의 각 교회 교역자들과 수 백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남성 목사의 주례로 헌당식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1935년 기림리교회는 성신의 역사로 날로 부흥되는 가운데 80여 원하는 풍금을 구입하였고 김기순이라는 자매는 자신이 사귀병에서 신유의 권능으로 나옴 받음을 감사하여 예배당에 시계를 드렸다. 박문익 전도사의 인도로 소아부흥회를 한 결과 100명~250명이 모여 은혜받았다. 또한 음력 정월 1일(2월 4일)~7일(10일)에 한성과 전도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중생자 22명, 성결자가 18명이나 되었고 은혜를 감사하므로 금반지를

주님께 바친 자매도 있었다.

1937년 5월 24일부터 8일간 이성봉 목사의 인도로 천막전도회를 열었는데 평양부 내(內) 여러 교회 신자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 새벽은 70명~200명, 오전 공부에는 90명~500명, 밤에는 500명~2,200명의 군중이 모였으며 새 결심자가 157명이나 되었고 건축을 위해 812원을 헌금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간증회와 신유회가 있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었다.

1938년 1월 31일~2월 6일에 조창문 전도사를 청하여 부흥사경회를 열어 신자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곧이어 4월 11일~17일에는 김영균 목사의 인도로 부흥사경회를 연 결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다. 또한 10월 17일~23일에 한성과 목사의 인도로 부흥사경회를 열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중 인근 여러 교회 신자까지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다.

1939년 3월 17일부터 6일간 박현명 목사의 인도로 매일 3차씩 집회를 하는 중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다. 10월 2일~8일에는 김홍순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한 결과 중생의 은혜와 성결의 은혜 받은 자가 많았으며 인근 교회들에서 다수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940년 3월 4일~10일에 오덕삼 목사를 청하여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였는데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 3,200원을 헌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41년, 교회 명칭을 ‘서평양성결교회(西平壤聖潔教會)’로 변경하였는데 곧이어 예배당을 ‘평안남도 평양부 기림리 180’에서 ‘평안남도 평양부 인흥리 129’로 이전함에 따라 ‘대동성결교회(大同聖潔教會)’로 변경하였다.

대동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평양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고 1946년 김홍순(金鴻淳) 목사를 중심으로 신자 80여 명씩 모여 예배드렸다.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가운데 매주 십일조 헌금을 시행케 되어 남녀교역자 세 가정에 매삭(每朔) 2만여 원의 경비를 쓰고도 여유가 있었다. 김홍순 목사는 여러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는 ‘적색분자’들의 무도한 탄압으로 ‘반동분자’라는 죄명으로 1947년 4월부터 징역 2년 형을 받고 진남포 감옥에 복역 중임이 전해졌다.



평양기림리교회 헌당식 (1933년 12월 3일)

3.8. 숙천성결교회(肅川聖潔教會)

숙천성결교회(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 관전리 24)는 1933년 6월 24일에

신원식(申元湜) 전도사를 파송하여 숙천역 앞에 50여 평의 예배당을 400여 원을 들여 건축하고 장년 11명, 유년 31명이 모인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림으로 설립되었다. ‘전선(全鮮)순회천막진도대’는 8번의 집회를 열어 신 결심자 30명과 성결자 10명, 회개하고 돌아온 자 5명을 얻어 숙천교회의 전도 활동을 지원하였다.

1937년에는 차기주(車基住) 전도부인이 파송되어 동역하였다. 1938년에는 신원식 전도사의 후임으로 조창문(趙昌文) 전도사가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1939년에는 전도부인이 없으므로 신자들이 열심으로 심방하고 전도한 결과 신자 수가 점차 증가하였고 신유의 이적이 나타나 45세인 부인이 완치되었고 18세 된 소년의 열병과 노부인의 반신불수 병이 완치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조창문 전도사는 1941년 4월에 열린 ‘제1회 성결교회 북부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숙천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3.9. 용화성결교회(龍花聖潔教會)

용화성결교회(평안남도 안주군 용화면 봉학리 484)는 1934년에 설립되었다. 1934년 ‘성결교회 제2회 총회록’에는 ‘봉학리성결교회(鳳鶴里教會)’라고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용화교회(봉학리교회)는 설립된 이후 교회로 세워지지 못했다. 이후 ‘용화교회(봉학리교회)’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1936년 1월 6일에 교회 폐쇄를 신고하였다.

3.10. 진지동성결교회(眞池洞聖潔教會)

진지동교회(평안남도 용강군 지운면 진지리 289-23)는 1930년에 ‘진지동역’ 앞에 설립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서교회’가 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성결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은 ‘서부지방회’가 1934년 7월 17일에 ‘성서교회’를 다시 인수하여, 장막전도대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황경찬(黃景燦) 전도사를 주임교역자로 파송하고 9월 13일에 성결교회의 간판을 걸고 1935년 3월 3일 오계식 목사의 인도로 22명의 교우 일동이 입회식과 성찬식을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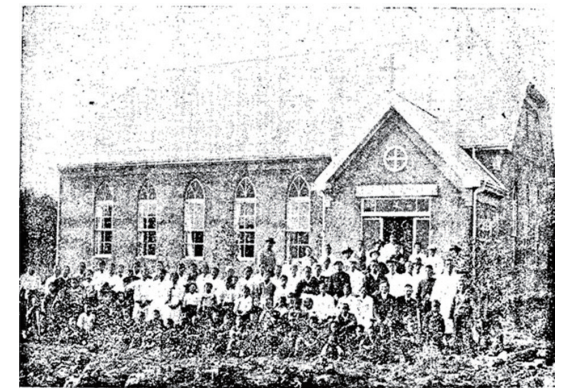
1936년 8월 황경찬 전도사는 신천교회로 이동하고 양시교회에서 사역하던 오덕삼(吳德三) 전도사가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1937년 2월 23일부터 1주간 한성과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고 신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새로 결심한 자도 40여 명이나 되었다. 오덕삼 전도사는 1937년 ‘제1회 성결교회 연

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38년 8월 1일~7일에 이건 목사 순회 집회가 있었고, 총독부 용강 금화시험장에서 근무 중인 라기원(羅基瑗) 장로가 지방회 시에 시무 허락을 받음으로 당회가 조직되었다.

1940년 12월, 오덕삼 목사는 진지동에 주재하면서 진남포교회 치리목사로 임명되었다. 1942년에는 정동국(鄭東國) 목사가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이후 진지동교회는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용강군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해방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고 1946년 강태즙(姜泰楫) 목사와 함께 신자 5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1947년에는 장원초(張元初) 목사의 별세로 목자 없이 고생하던 중 장이초(張利初) 목사의 부임으로 주리었던 심령들이 배부름을 얻어 7-80여 명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다.



堂會教洞池眞安受明서여方地部四

서부지방에서 인수한 진지동교회당 (1934년)

3.11. 평동성결교회(平東聖潔教會)

평동성결교회(평안남도 평양부 신리 235-3)는 ‘서부지방회 평남구역’의 평양부 내(內)에 있는 세 개 교회가 협력하여 1941년 10월 30일에 설립하였다. 교회설립 이후 조보찬(趙寶贊) 전도사가 주임교역자로 사역하였다. 평동성결교회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때까지 평양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평양신학교의 설립 목적과 발전

전준봉 (칼빈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1. 들어가는 말

평양신학교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로서 현재의 총신대와 장신대의 모체이기도 하다. 19세기 후반 언더우드에 이어 미국의 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한국에 속속 들어왔다. 1889년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과 1890년 마펏 사무엘(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이 1892년에는 그레이함 리(Graham Lee, 1861-1916) 등의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입국했고,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1867-1951)와 전 킨(William McCleary Junkin, 1865-1908)등의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1892년에 각각 입국하였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처소에서 선교활동에 최선을 다하다가 평양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가 설립되자 연합선교회의 요청으로 평양신학교에 교수로 일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의 선교로 당시 1890년대부터 한국에는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선교사들은 합리적인 선교방식을 모색하던 중 당시 중국에서 사역하던 네비우스를 모시고 네비우스 선교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네비우스의 선교방식의 일환으로 오전에는 성경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하며 저녁에는 사경회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마펏 사무엘은 신학반을 조직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신학 공부만으로는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을 양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1893년 한국에 최초로 장로교 공의회가 설립되고 1901년 합동공의회가

조직이 되었다. 여기서 만장일치로 신학교 설립건을 결의하였고, 신학위원을 선정하여 설립 장소를 평양으로 결정하였다.¹⁾ 이에 따라 마펏 사무엘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에 신학교 설립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드디어 평양에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한국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는 이렇게 설립이 되게 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평양신학교의 설립 목적과 그리고 발전 과정, 그리고 신학교 교수단들의 신학사상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2. 평양신학교 설립 배경과 목적

2.1 평양신학교의 설립 배경

평양신학교의 설립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육에 대한 당위적 필요만으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네비우스 선교 전략과 더불어 한국 장로교 선교가 전개되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경험과 문제의식의 산물이었다. 네비우스 선교 방안은 잘 알려져 있듯이 자립·자치·자전의 원리를 강조하며, 토착 교회의 자생적 성장과 토착 지도자 양성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원리로 설립된 곳이 바로 사경회와 성경공부반이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 조선 사회는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권 교육기관이 전무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지역별로 조직된 사경회와 더불어 진행된 성경공부반이었다. 이 모임들은 단순한 성경 읽기 모임을 넘어, 신앙의 기초교리와 복음의 중심 사상,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를 교육하는 장이었으며, 동시에 향후 교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인물들을 가려내는 선발 과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배출된 사역자들은 각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육을 담당하며, 지역 교회의 성장과 신앙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²⁾ 그런데 선교사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하였고, 더군다나 단기 신학반으로는 교회지도자를 양성하기란 더욱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마펏 사무엘 선교사는 1899년 1월 18일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교회에 신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듬해 1901년 연합공의회 회의에서 신학교 설립의 건이 승인되었고 그 신학교 설립 부지로 평양을 채택하였다. 그러면 왜 신학교 부지로 평양이 설정되었는가? 이는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은 기독교를 수용하는 그 자세가 상당

1) 조경현, 『초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서울: 그리스, 2011), 192.

2) 김남식, 간하배 공저,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사(1)』(베다니, 1997), 105-8.

히 진지하였고, 그리고 많은 개화파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당시 관서 지방은 조선 후기 권력에서 배제되어 관서 지방으로 유배 온 남인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는 청나라를 통해 들어오는 서구문물에 관심이 많은 실학파들이 대부분이었다. 박지원, 박제가, 이승훈 등이 이러한 부류들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당시 가톨릭 수용에 적극적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당시 구한말 무너져 가는 조선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문하였다. 당시 이승만, 안창호, 조만식 등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 결과 평양을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에는 타지역보다도 훨씬 높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며, 또한 교육열도 높았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발생한 배경이나, 3.1 운동 민족지도자 33인 중 관서 지방의 숫자가 높은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2.2 평양신학교의 설립 목적

마펏 사무엘 목사는 이미 1899년부터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1899년 1월 18일 미국 장로교 총회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는 올해에 새로운 사역을 위한 자금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신학교로 발전하게 될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700엔(350달러)만 요청하였으며 178엔은 교사들과 기타 비용을 위한 것입니다.”³⁾ 라고 하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평양신학교는 마펏 사무엘이 자신의 성경공부반을 발전시켜 신학교로 격상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늘어가는 한국교회의 교인을 담당하기 위한 본격적인 신학교 설립을 처음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선교전략의 일환으로 성경공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권서인들이나 조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처음에는 남성을 권서인으로 임명하여 직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가 여성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도 이 직임을 맡겼다. 이들은 권서인이라 하지 않고 전도부인이라고 불렀다.



1890년 언더우드 선교사 사랑방 외관

3) Samuel A. Moffett's Missionary Letters, 김인수 역, 『마포삼열 목사의 선교편지(1890-1904)』 (서울: 장신대학교 출판부, 2000), 513.

선교사들이나 남자 권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정의 아녀자들에게 전도부인은 부담 없이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전도부인은 때때로 여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으며 훈련시키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장로교 선교회는 좀 더 체계적인 복음전도를 위해 1891년부터 조사(Helper)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사는 일정기간 사경회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자들을 택해 세웠다. 한국에서 최초로 조사로 임명된 사람은 백홍준이었다. 1891년에 사무엘 마펏 선교사를 도와 평양과 관서지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한 석진을 조사로 세웠다. 조사는 선교사들이 미처 감당하지 못한 교회를 돌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다.⁴⁾ 이렇듯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신학반과 성경공부반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교부가 있는 곳마다 확산되었다. 특히 평양은 이러한 신학 교육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최초의 성경공부반은 이후 각 지역 선교부로 확장되었고, 평양에서는 “동계 신학반(Training Class for Men or Winter Theological Class)”이 개설되어 105명이 등록하는 열기를 보였다. 이 중 34명은 ‘고급반(Advanced Class)’으로 선발되어 히브리어, 갈라디아서 주해, 성경지리 등을 공부했으며, 노방 전도까지 병행하였다. 그리고 그 신학반 숫자 또한 1899년에는 17개였던 것이 1900년에는 52개로 증가되었다.⁵⁾ 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1893년 장로회 공의회가 설립되는 등 복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개신교회는 지역적으로나 수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례하는 속도로 훈련된 목회 인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경회와 성경공부반, 신학반을 통해 일시적으로 지도자를 보충할 수는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보완적 장치에 불과하였다. 특히 언어·풍습·생활양식이 같은 토착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수용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언제까지나 서양 선교사 중심의 선교 구조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공유되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선교사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학교육 기관, 곧 토착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규 신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신학교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초대 교장에는 사무엘 마펏이 임명되었고, 학교의 이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로 정해졌다(후에 “대한”이 “조선”으로 변경). 캠퍼스는 마펏의 주택과 선교 건물이 있던 평양 대동문 옆

4) 박용규, “평양 장로회 신학교(1901-1910),” 『신학지남, 267집』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년 여름호), 32, 33.

5) 조경현, 『초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평양장로회 신학교 교수단을 중심으로』, 197.

‘술막골’ 일대에 자리 잡았다.⁶⁾ 입학생은 1901년 김종섭과 방기창 2명으로 당시 두 사람은 모두 마펏이 담임목사로 있는 평양장대현교회 장로들이었고 평양공회위원들이 이들을 목사 후보생으로 추천한 것이다. 김종섭은 마포삼열에 의해 전도받고 평양장대현교회의 제직이 되었다.⁷⁾

그리고 마펏은 1901년 평양공의회 의원들과 논의하여 자신의 신학반에서 공부하던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 방기창, 김종섭을 목사 후보생으로 추천하였다. 이후 1902년에 교과과정 위원들이 제출한 신학 5년 과정 교과과정을 채택하여 교육키로 하였다. 이미 교육을 받고 있던 두 명 외에 양전백, 길선주, 이기풍, 송린서 등이 입학하여 1903년 1월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의 규모가 잡혀갔다.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 평양신학교의 설립 이념은 실천적 목회자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학교는 학문적으로 탁월한 신학자를 양성하는 연구 중심 기관이라기보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천적 사역자를 배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⁹⁾ 따라서 교육 내용도 성경 원어 학습이나 고급 조직신학 연구보다는, 성경 이해와 설교, 목회 행정, 교회 정치, 예배 인도, 전도와 심방 등 목회 실무와 교회의 실제적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특징은 평양신학교가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목회자 양성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단체로 체조하는 평양신학교 학생들(사진=평양대부흥)

3. 평양신학교의 학제와 발전

3.1 평양신학교의 학제 및 신학사상

1902년 평양에서 열린 신학교육 위원회에서는 세운 신학교 교과 과정은 조사를 위한 3년 과정과 신학생을 위한 5년 과정으로 구분되었다. 교과목은 정식과목이나 열람과목을 통해 실천 목회를 위해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6) 전준봉, “한국장로교 신학교의 신학과 교육: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29권』 (개혁신학회, 2014년 봄호), 219.

7) 박용규, “총신 120년의 역사, 신앙, 평가(I): 평양장로회신학교 설립, 발전, 폐교(1901-1940),” 『신학지남 88권 2집』 (서울: 총신대출판부, 2021.6),

8) 김남식, 간하배 공저,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사(1)』, 109.

9)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종교교육부, 1956), 174 - 75.

따라서 해방 전까지만 하여도 신학교의 신학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 후보생들은 장로교공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들로서 대부분 교회에서 사역하며 교회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

1916년 국영문 요람에 나와 있는 “본교입학 할 자격”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노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 신학교의 입학을 거부하고, 학교는 학생을 선별할 때, 첫째, 입학지원자는 5개년 이상 된 세례교인이라야 할 것, 성경전부를 숙독한 자라야 가능하며, 셋째, 기독교대학 졸업생이 아니면 25세 이하의 입학을 허락지 아니하며, 넷째, 기독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생과 성경학원 졸업생으로 조사가 된 자 외에는 27세 이하인 자는 입학을 허락지 아니하며, 다섯째, 특별한 경우가 아니하면 40세 이상 된 자를 입학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그 입학 조건이 까다로웠다.¹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은 세례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자로 교회 출석에 신실하고 신앙의 깊이를 요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있었다. 이는 한국교회를 책임질 목회자들은 우선 신앙이 깊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전 길선주 목사는 신구약을 통틀어 100독 이상을 하였고 신약만 200독을 하였다. 그래서 그의 집회의 특징은 대부분이 성경이야기 였다. 더불어 1930년대 신유 집회로 이름을 날렸던 김익두 목사 역시 성경을 100독 이상하였다. 이렇듯 당시 신학교 입학생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독교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면 25세 이하의 입학은 허락되지 않았고, 기독교 중·고등학교 혹은 성경학원 졸업 후 조사로 시무한 경력이 없는 27세 이하 지원자도 제한을 받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0세 이상의 입학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은 평양신학교가 일반 청년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 검증된 신앙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후보들을 선발하여, 목회자로 최종 양성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에 이르는 학생 구성은, 교육 내용과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심화된 학문 연구보다는 실천적 목회 능력 함양에 더 큰 비중이 실리게끔 하였다.¹¹⁾

반면 평양신학교의 학적인 수준은 높지 않았다. 초기 한국교회의 특성상 입학생들은 3개월의 수업과 9개월의 현장 목회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한 이유

10) 전준봉, “한국장로교 신학교의 신학과 교육: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221.

11) 박용규, “평양 장로회 신학교(1901-1910),” 『신학지남』 267집(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47.

는 신학생들이 조사나 장로로서 교역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²⁾ 사실 3개월 동안만 수업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멀리서 오며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며 초창기 한국교회 형편상 목회자가 거의 없었던 점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당시 평양신학교의 설립 목적은 실천적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있었다.

이는 당시 평양신학교 교수진의 상당수가 맥코믹 신학교임을 볼 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맥코믹 신학교의 설립이념이 실천적 목회자의 양성이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대다수의 선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맥코믹 신학교 출신이었으며,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린 선교사들은 맥코믹 신학교 출신이었다. 초기 평양신학교 교수진은 북장로교·남장로교·캐나다·호주 장로교 등 여러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로 구성되었다. 교장 사무엘 마펏을 중심으로, 원두우, 전킨, 레이놀즈, 엥겔, 푸트 등이 교수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칼빈주의 신학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다.¹³⁾ 교과과정은 성경 과목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삼복음합, 창세기, 출애굽기,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히브리서, 묵시록, 다니엘서, 시편, 이사야서 등 성경 각 권에 대한 강해와, 구약·신약사기, 성경지리, 성경총론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조직신학(신도요론, 신도개요, 인죄학, 구원론 등), 교회사(상고·중세·종교개혁 전후), 교회 정치와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목사지법, 도덕학과 심리학, 전도회사기, 말세학 등이 추가되었다.¹⁴⁾ 특히 모든 학년에 음악과 국어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목회자가 찬송가를 인도하고 우리말로 설교를 작성·전달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다.

조직신학은 레이놀즈가 중국인 신학자 차유밍의 ‘조직신학개론’과 찰스 핫지·A. A. Hodge의 조직신학을 바탕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크레인 자신의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을 통해 칼빈주의 신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쳤다.¹⁵⁾ 이로써 평양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을 한국교회에 전수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평양신학교의 교수진에는 남장로교의 레이놀즈나 전킨, 크레인 그리고 북장로교의 찰스 알렌 클락, 그리고 스왈론, 마펏 사무엘 등이 있었는데, 이들

선교사들의 면모를 볼 때 이들은 미국의 프린스턴 구학파의 전통을 강하게 받은 자들로서, 성경의 무오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등 보수적이고 청교도적인 신학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이들의 종말론 역시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하였다.

3.2 평양신학교의 발전

평양신학교는 1901년 처음 학생을 모집하여 1907년 길선주, 한석진, 방기창, 이기풍 등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꾸준히 성장하였다. 또한 학기 운영도 처음 3개월간의 교육기간에서 1년에 봄·가을 두 학기로 나뉘었으며, 각 신학생은 선교사 교수들로부터 개별적, 직접적 지도를 받았고, 한국인 보조교사들은 실습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¹⁶⁾ 이 시기 평양신학교의 특징은 단순히 서구 신학을 이식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과 부흥운동의 영성을 교육 내용에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평양신학교의 발전과정은 편의상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평양장로회신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 새로운 교과과정이 이행되고 평양장로회신학교 전체 학생들의 숫자가 확보되기까지를 정초기(1901-1906년), 둘째, 제1회 평양장로회 신학교 졸업생이 배출되고 1920년 5년 과정에서 3년 과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시행하기 전까지 안정기(1907-1919),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 신사참배로 인해 강제적으로 폐교되기까지 발전기(1920-1938)로 나뉜다. 이후 1907년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03년 봄부터 평양신학교는 평양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채택한 교과과정으로 양전백, 길선주, 이기풍, 송인섭 등 4명과 기존의 방기창, 김종섭 등을 합해 도합 6명을 모아 1학년으로 하고 3개월을 공부시켰다. 이 당시 교수진은 마포삼열을 중심으로 베어드, 스와론, 헌트, 번하이젤, 그레이함 리 등 미 북장로교 소속 맥코믹 신학교 출신들이었다. 이로서 신학교육은 19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⁷⁾ 1904년에는 전 해에 공부한 6명의 학생이 2학년이 되고, 각 지방 공의회에서 추천된 신입생 17명이 지원하여 15명의 입학이 허락되었다. 이때, 새롭게 합류한 교수진으로는 북장로교 선교부 언더우드, 남장로교 선교부 전킨, 레이놀즈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 소속의 왕길지, 캐나다장로교 선교부의 푸트 등이 있었다. 이전에는 주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제 비로소 4개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평양장로회 신학교



1918년 신학지남 창간호

12) 김남식, 간하배 공저,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사(1)』, 110.

13) 『장로회 신학대학교 100년사』, 83, 85; 100년사 편찬위원회, 『총신대학교 100년사』(서울: 총신대학교, 2002), 228 - 29.

14) 이호우, 『관안연의 신학과 사상』(서울: 생명의 말씀사), 122

15) 조경현, 『초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평양장로회 신학교 교수단을 중심으로』, 207. 8.

16) 김철기, 『평양신학교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2), 142.

17) 조경현, 『초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평양장로회 신학교 교수단을 중심으로』, 200-1.

에서 교수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에는 50명의 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여 1, 2, 4학년에서 각각 공부하였다. 이때 1학년에 29명, 2학년에 14명, 4학년에 7명이 재학중에 있었다.

이후 1907년부터는 안정기로 1907년 7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였다. 그리고 그해 최초 7인의 목사가 탄생하였다. 이때 시카고의 맥코믹 여사가 5천 달러를 기부하여 신학교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1918년부터는 신학지남이라는 신학잡지를 최초로 발간하였다.¹⁸⁾ 다음 1920년부터 1938년까지는 발전기로 평양신학교 교과과정이 5년에서 3년으로 되었으며, 이때부터 성경만 강조하던 교과에서 탈피하여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그리고 심리학, 교육학 윤리학, 사회학 등 보조학문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이제부터는 선교사 교수를 벗어나 자국인 신학자를 영입해 자국인 신학자를 통한 교육으로 자리 잡았고, 명실상부한 장로교 신학교로 자리매김 하여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로 폐교하기까지 대략 누적인원 764명이 졸업을 하였고 이들은 한국교회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해방 이후, 이 평양신학교는 1959년 합동과 통합으로 분리되어 수천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여 목회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4. 나가는 말

평양신학교는 19세기 말-20세기 초 급격한 교회 성장을 감당하기 위해 자국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신학교육 기관으로 이후 한국교회가 자립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의 설립목적은 전적으로 실천적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있었다. 당시 평양신학교를 교수하였던 교수들은 청교도적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의 소유자들로서 현재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평양신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1938년 신사참배로 인하여 학교가 폐교되기까지 무려 7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이후 자국민 신학자들이 유학에서 돌아와 평양신학교 교수로 활약함으로써 명실상부 평양신학교가 한국의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양신학교는 한국교회의 자립과 성숙을 가능케 한 핵심적 기관이었고, 초기 한국 장로교 신학의 틀을 세운 신학적 모체였다. 그 결과 오

늘날 한국의 장로교회가 거듭 발전하기까지는 이 평양신학교의 졸업생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발전의 역사는 평양신학교의 발전의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민족의 고난과 그 맥을 같이하였으며 현재 한국의 장로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 길을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교회의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남식, 간하배 공저,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사(1)』, 베다니, 1997.
- 2)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종교교육부, 1956.
- 3) 김철기, 『평양신학교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2.
- 4) 박용규, “총신 120년의 역사, 신앙, 평가(I): 평양장로회신학교 설립, 발전, 폐교 (1901-1940),” 『신학지남 88권 2집』, 서울: 총신대출판부, 2021.6: 153-235.
- 5) 박용규, “평양 장로회 신학교(1901-1910),” 『신학지남 267집』,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년 여름호.
- 6) 이호우, 『곽안력의 신학과 사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 7) 전준봉, “한국장로교 신학교의 신학과 교육: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29권』, 개혁신학회, 2014년 봄호.
- 8) 조경현, 『초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그리심, 2011.
- 9) Samuel A. Moffett's Missionary Letters, 김인수 역, 『마포삼열 목사의 선교편지(1890-1904)』, 서울: 장신대학교 출판부, 2000.

18) 조경현, 『초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평양장로회 신학교 교수단을 중심으로』, 204-5.

여성 목회자의 산실,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

김일환 (서울장신대학교 객원교수)

1. 들어가는 말

해방 이전 한국장로교회에는 2개의 여자신학교가 있었다. 원산의 마르다월슨여자신학원과 평양의 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가 그것이다. 마르다월슨여자신학원은 1910년 함흥에서 선교사 루이스 매컬리(Louise H. McCully)에 의해 마르다월슨기념성경학원으로 시작하여 1915년 원산으로 옮긴 후 1934년에 마르다월슨여자신학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1944년 8월 일제에 의해 폐교당할 때까지 졸업생을 배출했다.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는 1923년 평양에서 여자고등성경학교로 시작하여 1937년에 학교 이름을 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Presbyterian Women's Biblical Seminary)로 변경한 후 1940년 5월에 폐교하기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일명 '평양여자신학교'라고 부르기도 했다. 남성 목회자를 배출하던 평양장로회신학교(평양신학교)는 많이 알려졌다지만,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본 글에서는 이 여자신학교의 설립과 발전 과정, 교수진과 학생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연구 논문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의 설립과 운영(1923-1940)"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2.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의 설립 과정

1923년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의 설립은 여성 선교사 마가렛 베스트

(Margaret Best)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베스트는 1897년 7월에 내한하여 1936년에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39년 동안 평양에서 활동했다. 그는 여성들을 위한 순회 전도와 다양한 사경회 개최, 송의 여학교, 평양여자성경학원,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를 통한 교육 활동을 펼쳤다. 베스트는 평양여자성경학원을 운영하면서 성경학원의 상급 기관인 고등성경학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전도사로 사역하는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신학교육의 필요성은 빠르게 변하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관련되어 있었다. 여성 사역자들에게도 성경학원에서 가르치는 이상의 고등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베스트는 여자고등성경학교의 이사회를 먼저 조직한 후 1922년 6월에 열린 미국 북장로회 한국선교회 연례 회의에서 학교 설립 허락을 받았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한국선교회의 지원을 받았다. 물론 이 학교에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장로교 총회 산하 각 지역 노회의 교회와 목회자들로부터 학생들을 추천받았다. 설립 당시 이사는 앨리스 버츠(Alice M. Butts), 마리온 하트니스(Marion E. Hartness), 제인 새뮤얼스(Jane Samuels), 윈 부인(Mrs. Rodger E. Winn), 안나 매키(Anna M. McKee), 마사 스와이처(Martha Switzer), 베스트 등 6명이었다. 초대 이사장과 교장에는 베스트가 임명되었고, 이사회 서기는 스와이처 선교사가 선임되었다. 『조선예수교복장로선교회 여자고등성경학교 요람』(1934)에서는 학교의 설립 목적을 “조선예수교장로회가 관할하는 지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유익한 사역자를 배양하고 교육하고 준비함에 있다”고 밝혔다.

3. 학교의 발전 과정

초대 교장 베스트는 1932년 7월까지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로즈 베어드(Rose M. F. Baird)에게 교장직을 물려준 후에는 명예 교장으로 베어드 교장을 도와주며 학교를 위해 수고했다. 후임 교장이 된 로즈 베어드는 1932년 가을 학기부터 교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1940년 5월에 일제에 의해 폐교될 때까지 재직했다.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는 1937년 5월에 개교 15주년을 맞이하여 학교 이름을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로 변경했으며, 5월 5일을 개교기념일로 정하고 학교 배지와 교가(校歌)를 만들었다. 또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한 매쿰과 한영신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신학교가 되면서 교계의 인식이나 학생들의 자부심도 커졌다. 다만 '신학교(Theological Seminary)' 대신에 '성경신학교(Biblical Seminary)'라고 한 것은, 남자신학교인 평양장로회신학교에 비해



마가렛 베스트 선교사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의
기숙사(왼쪽)와 본관(오른쪽)

낮은 단계의 학교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건물은 개교할 당시부터 1931년까지 평양여자성경학원의 건물을 같이 사용했는데,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를 통하여 미국 동부와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이 모금한 기부금으로 1930년 12월 13일에 경창리에 벽돌로 지은 3층 건물을 완성하고 1931년 가을에 완전히 이전했다. 신축 교사는 교장실, 교수실, 교실 3개, 응접실, 기도회실, 개인전도 예비실, 등

사실, 수예실 3개, 풍금 연습실 6개, 도서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교사 외에 필요한 건물은 기숙사였는데, 이를 위해 1934년부터 학교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국내외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여 후원을 요청했다. 로즈 베어드 교장은 국내외 교회에 계속 후원을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습농장까지 처분하여 결국 3층으로 된 기숙사 건물을 완공하고 1939년 5월 5일에 봉헌식을 거행했다. 신축한 기숙사에는 식당과 세탁실, 친교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4. 학교의 교수진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가 개교할 당시의 교수진은 교장인 베스트를 비롯하여 앨리스 버츠, 제인 새뮤얼스, 마펏 부인, 베어드 부인, 윤필성 등 6명이었다.

이후 교수진은 계속 증가해서 1934년에는 교직원인 18명으로 늘어났다. 교장과 명예 교장을 포함하여 17명이 과목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했고 1명은 기숙사 사감 겸 보모의 일을 담당했다. 전체 교직원 현황과 담당 과목은 다음과 같았다. 베스트(명예 교장, 성경 해석), 베어드 부인(교장, 성경 해석), 윤필성(성경 해석, 교회사), 김우석(성경 해석, 주일학교 공과), 캐서린 매쿰(성경 해석), 박기희(성경 해석), 김성락(조직신학), 최선택(개인 전도부 담임), 루츠 부인(성악부 담임), 임성익(피아노, 합창), 송도신(오르간), 라이너 부인(수예부 담임), 임종호(수예, 운동부 담임), 앨리스 버츠(성경 해석), 마펏 부인(영어), 힐 부인(성경 해석), 한영신(학생감, 성경지리), 나창석(기숙사 사감, 보모) 등이었다. 교수 중에는 한영신(1회), 박기희(7회), 최선택(8회), 나창석(8회) 등과 같이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의 졸업생들도 있었다.

5. 교육 과정과 학생

1923년 3월 개교 당시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의 학제는 3년 2학기 제였다.

1학기는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였고, 2학기는 10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까지였다. 입학 자격 중에 나이를 23세부터 35세까지로 정하였는데, 이처럼 젊은 사람들의 입학을 권장한 것은 교과 과정과 내용을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과 졸업 후 사역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입학 자격을 중학교와 성경학원에서 10개월 이상 수업한 자로 정한 것은, 설립 당시 입학생 모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후에는 지원자의 학력을 전문학교, 고등보통학교, 성경학교 5년 졸업생으로 상향 조정했다.

1934년 학교 요람에 따르면 이즈음에 학제가 3년 3학기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1학기(춘기)는 4월부터 6월까지, 2학기(추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3학기(동기)는 1월부터 3월까지였다. 학기 중 휴강일은 주일(일요일)과 부활절, 성탄절 등이었으며, 봄학기에는 부흥회를 개최하고 가을 학기에는 특별 헌신회(獻身會)를 개최했는데, 유명한 신학자를 초청하여 2-3일간 진행했다.

학년별, 학기별 교육 과정은 다음 [표 1]와 같다. 학년별 강의 시간 수는, 각 학기에 19시간씩 배정하여 학년별 57시간, 전체 3학년까지는 171시간을 배정했다. 학생들은 시수에 계산하지 않은 개인 전도와 음악 과목을 제외하고도 171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봄학기	가을 학기	겨울 학기
1 학 년	창세기, 출애굽기, 누가복음, 사도행전, 주일학교 조직, 성경요리문답, 성경 지리, 교회사기, 개인전도, 음악	민수기, 신명기, 고린도전서, 레위기, 마태복음, 교회사기, 변증론, 조직신학(신론, 기독교론), 구약총론, 개인전도, 음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공관복음, 성경 지리, 신약총론, 주일학교 초등과목, 조직신학(성령론), 사무엘상, 고린도전후서, 개인전도, 음악
2 학 년	도덕학, 비교 종교, 교수법, 교리(인간, 죄, 회개, 중생),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욥기, 야고보	이사야, 교회사기, 사회학, 심리학, 강도학, 교회헌법,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유다서, 개인전도, 음악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애가, 주일학교 공과, 조직신학(의, 거룩, 양자, 기도), 개인전도, 음악
3 학 년	요한복음, 요한1·2·3서, 히브리서, 빌립보서, 베드로전후서, 에스겔, 조직신학, 주일학교, 장년 공과, 개인전도, 음악	에베소서, 아가, 시편, 강도학, 소선지서, 골로새서, 스가랴, 다니엘, 교회사기, 개인전도, 음악	잠언, 전도서, 주일학교, 장년 공과, 소선지서, 성경 교수법, 데살로니가전후서, 요한계시록, 고고학, 선교사기, 개인전도, 음악

[표 1]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의 교육과정

1934년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매 학기에 개인전도 과목을 정규 교육 과정에 개설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은 베스트와 로즈 베어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과정으로 1928년에는 개인전도 사역부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전도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교육했다.

1923년 3월 개교 당시 첫 입학생 11명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출신 지역은 서울 출신 2명, 대구 출신 1명, 재령 출신 1명, 선천 출신 1명, 평양 출신 6명이었다. 비정규 입학생 3명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평양 출신이었다. 정규 입학생 중 6명은 중학교 졸업생이었고 5명은 성경학원 졸업생이었다. 3명의 비정규 입학생 중 2명은 성경학원 졸업생, 1명은 중학교 졸업생이었다. 정규 입학생 중 6명은 35세 미만이었고, 2명은 35세가 넘었고, 3명은 40세가 넘었다.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은 45세였다. 1922년 11월 22일 자 「기독신보」에 게재한 학생 모집 광고에서 “특별 예외가 아니면 35세 이상은 불허”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졸업생은 1926년에 처음 배출되었는데, 안신덕(安信德), 김성희(金聖姬), 한영신(韓永信), 송복희(宋福喜) 등 4명의 학생이 1회로 졸업했다. 그 후로 2회는 8명, 3회 12명, 4회 7명, 5회 5명, 6회 5명, 7회 7명, 8회 10명, 9회 21명의 학생이 졸업하여 1934년까지 전체 78명이 졸업했다. 졸업생의 노회 소속을 살펴보면, 경남노회 3명, 경북노회 6명, 평양노회 16명, 전남노회 3명, 경안노회 2명, 평북노회 2명, 안주노회 3명, 제주노회 1명, 동만노회 1명, 전북노회 1명, 남만노회 1명, 황해노회 2명, 경기노회 1명, 충북노회 2명, 함중노회 2명, 산서노회 1명, 일본 오사카 2명, 감리교인 2명 등으로 일본과 만주를 포함한 한국 전 지역의 학생들이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에 입학한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 마지막 졸업생과 교사

1935년부터 1940년까지 졸업생 명단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35년에는 20명, 1937년에는 17명, 1938년에는 12명, 1939년에는 17명, 1940년에는 21명이 졸업한 것을 알 수 있다. 졸업생 중에는 한영신, 박기희, 최선택, 나창석 등과 같이 모교에서 교수로 강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전도사나 병원 전도인, 학교의 사감, 생도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또한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1931년 1월에 평양에서는 부인사역자회(婦人使役者會)가 조직되었다. 이 부인사역자회는 기존의 여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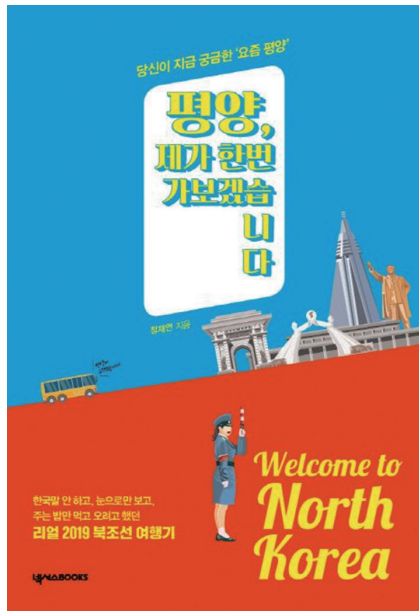
회와는 다른 조직으로 여성 전도사나 전도인 등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조직이었다.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를 통하여 전문적인 사역자가 계속 배출되는 상황에서 사역자 사이의 협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과 활동을 지원하고, 또 교회와 연계하는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6. 나가는 말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도 다른 기독교 계통 학교와 마찬가지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1938년 9월에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에는 폐교와 신사참배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938년 가을 학기는 10월 14일에 개학했는데, 재학생 수는 80명 정도로 줄었으며, 1939년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총독부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결국 겨울 학기가 끝나는 1940년 3월에 21명의 학생이 졸업식도 하지 못하고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 졸업한 후에 봄 학기 중인 5월 말에는 기숙사에 있던 재학생들도 퇴거하면서 학교는 문을 닫았다. 이때까지 배출한 전체 졸업생은 약 180명이었다.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의 의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성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장로교회 안에서 여성 지도자들에게 전문적인 신학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필요에 따라 평양장로회여자성경신학교가 설립되었고 17년 동안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18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 이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전국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었다. 

『평양,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은이: 정재연
출판사: 넥서스BOOKS
출판년도: 2019년

평양을 다룬 도서로는 평양 출신 탈북민들의 수기, 평양 주재 경험이 있는 서구 출신 작가들의 기록, 그리고 유명 인사들의 평양 방문기가 주를 이룬다. 이들 책의 대다수는 평양의 겉 모습뿐 아니라 그 이면, 이른바 ‘속살’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저작들은 모두 평양을 이해하는 데 나름의 도움을 주지만, 그중에서도 여행기는 평양이 외부에 가장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부분, 즉 평양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북한 정권이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떤 평양의 이미지를 추구하는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작가는 평양공항과 시내의 정연한 건물들,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의 야경을 마주하며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평양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념적 평가보다는 관찰과 놀라움의 시선으로 평양의 풍경을 담아내고, 낯선 역양 속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도 조심스럽게 드러낸다. 한편 평양식

돌솥비빔밥과 상점에서 맛본 요거트(신젃) 같은 소소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추상적인 이미지 너머에 존재하는 북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상을 그려낸다. 이러한 체험은 통일이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상상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압도적인 규모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기를 자세히 기록한다. 엄격한 통제와 각종 주의 사항 속에서 마주한 김일성 주석의 시신, 그리고 강요된 묵념을 통해 북한 체제가 개인의 신념과 감정까지 통제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북한 지도층의 묘역인 대성산혁명열사릉에서는 과거에 받았던 반공 교육을 떠올리며 묘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만수대 동상과 이념을 선전하는 지하철역에서는 개인의 삶 깊숙이 침투한 사회주의 체제를 목격하고, 한국전쟁

을 둘러싼 북한의 왜곡된 역사 의식 앞에서는 분단이 만들어 낸 깊은 인식의 간극을 실감한다. 그러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먹은 소박한 ‘치맥’은 무거운 사유 속에서도 일상의 숨 고르기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류경호텔을 중심으로 한 세련된 거리 풍경은 평양과 지방 사이의 뚜렷한 격차를 드러낸다. 작가는 김일성 주석의 생애를 각인한 주체사상탑에서 개인에 대한 신격화가 투영된 모습을 실감한다. 이어 방문한 광복백화점의 높은 물가는 이곳이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 공간임을 시사하며, 서구식 커피숍에서 이어진 통일 담론은 여행의 사유를 더욱 깊게 만든다. 대한민국에서는 점차 희미해져 가는 통일의 문제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절실한 바람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작가에게는 신선한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돌아오는 기내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장난기 어린 버스 기사, 다정한 가이드, 스스럼없이 인사를 건네던 주민들까지, 짧은 시간 동안 쌓인 정과 동포애가 작가의 마음을 적신다. 작가는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먼 나라, 북한 역시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임을 깨달으며 평양과 애뜻한 작별을 나눈다. 작가는 북한을 설명하거나 단정적으로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과 표정, 침묵, 그리고 거리의 공기를 차분히 기록한다. 직접 보고, 듣고, 걷고, 먹은 경험을 통해 독자 스스로 사유할 여지를 남긴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어 온 북한은 과연 얼마나 실제에 가까운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평양을 ‘혁명의 수도’, ‘공화국의 심장’,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도시’로 선전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북한의 의도대로,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평양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필자가 만나본 탈북민들 가운데 평양 중심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할 때의 행동 요령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교육받았다고 증언한다. 이런 맥락에서 평양을 ‘극장국가’에 비유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 극장의 절대적 관객은 최고 지도자이며, 또 다른 관객은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 세계다. 이 책의 저자를 포함해 북한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 역시 관객의 위치에서 북한이 연출한 장면들을 바라보며 그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방문객들은 곧 이 거대한 극장이 지닌 부자연스러움을 감지하고, 무대 장치보다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배우 개개인에게 시선을 옮긴다. 그 과정에서 방문자와 독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북한이라는 극장의 배우들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며, 그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다. 결국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또한 화려한 연출보다 그 연출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 

평양 출신의 유명인

□ 평양 출신 귀순 인사들

평양 출신 탈북자들은 교육·문화적 환경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에서 성장해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고, 문화어 사용으로 언어 표현이 안정적이며 예술·체육·외국어 교육 경험도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당·행정·군 중심의 조직 문화에 익숙하고 수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자부심과 거리감을 동시에 보이기도 하며, 체제에 순응해 온 경험 속에서도 그 한계와 모순을 비교적 분명히 인식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조명철(사진=한국경제신문)

조명철은 1959년 평양에서 태어나 1994년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이미 핵무기 5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5기를 더 개발한 뒤 이를 국제사회와 미국에 알릴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탄두 개발과 함께 이를 탑재할 로켓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할 유일한 수단으로 핵무기 완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핵개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추가 개발이 어려워질 것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1년 통일교육원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에게 당선되었다. 2022년에는 제19대 명예 평안남도지사를 역임했다.



태영호(사진=중앙일보)

태영호는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해 대한민국에 귀순한 뒤 정치인이 된 인물이다.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중국과 북한에서 외국어·외교 교육을 받았고, 국제관계대학과 베이징외국어대학을 졸업해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했다. 이후 덴마크·스웨덴·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북한 대사관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뒤 정치에 입문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탈북 직후 한동안 ‘북한 주민을 구한다’는 뜻의 태구민이라는 이름을 활도했다. 저서로는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의 서울생활」이 있다.

강명도는 평양 칠골 출신으로 북한에서 최고 특권층인 이른바 ‘로열 패밀리’에 속한 인물이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욱이 강명도의 할아버지 강선욱과 6촌이고 강명도의 아버지 강영겸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8촌이며 큰 외삼촌인 강진석과 8촌이다. 김일성의 창덕소학교 담임선생이자 부주석을 지낸 강량욱은 강명도의 작은 할아버지이며 강영섭은 당숙이다. 강명도의 아버지 강영겸은 평양시 건설 부총국장, 어머니 심계생은 당 역사 강사였다. 그는 평양외국어학원과 평양외국어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뒤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청년동맹, 당 국제부 등 핵심 기관을 두루 거쳤고, 1986년에는 김정일의 승인으로 인민무력부 보위국 대좌까지 초고속 승진했다. 1990년 외국인 무단 접촉 문제로 18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가, 칠골 강씨 일가의 강력한 반발로 복권되었다. 이후 김일성 주석궁 산하 외화별이 조직 간부로 호화 생활을 하다, 1994년 해외 출장 중 탈북을 결심해 망명했다. 귀순 후 국정원 산하 연구 기관에 배정됐으나 곧 사직했고, 이후 방송 출연을 통해 북한 내부 권력·외화별이·핵 문제를 증언하며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종교 활동에도 헌신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활동했으며, 한때 ‘대동강오리불고기’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다.



강명도(사진=크리스천투데이)

강철환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이다. 1968년 평양에서 태어나 재일한국인 가정 출신으로 비교적 특권적인 생활을 했으나, 1977년 할아버지가 ‘민족반역죄’로 체포되면서 가족 전체가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약 10년간의 수용소 생활 후 1987년 출소했으나, 김정일 비판 발언으로 재수감 위기에 놓이자 1992년까지 탈북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조선일보 통일문제연구소 기자이자 정치범 수용소 해체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저서로는 《대왕의 제전》, 《평양의 어항》(Aquariums of Pyongyang) 등이 있다.



강철환(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이애란은 평양 출신으로 대한민국에서 요리 연구가·교수·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 수학에 재능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할머니의 월남 이력으로 출신 성분 차별을 받아 가족과 함께 량강도 삼수군으로 추방되었고 대학 진학이 좌절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실 아버지는 1947~1949년 평양성화신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한때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이애란(사진출처:뉴스시스)

YMCA 회원, 목사 지망생이었다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되었다. 이후 제도 변화로 신의주경공업대학 발효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1997년 해산시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주류공장 품질감독원으로 근무했다. 1997년, 친족의 해외 소설 활동이 문제 되어 정치범 수용 위기에 놓이자 아들 등 가족 9명과 함께 탈북해 같은 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정착 초기에는 보험설계사로 성공적으로 활동했고, 이후 북한 음식 연구·사업에 뛰어들어 사당동 ‘쌈바귀네’, 북한전통 음식문화연구원 설립, 북한 음식점 ‘능라밥상’ 운영 등으로 북한 음식 문화를 알렸다. 학문적으로는 2001년 이화여대 석사, 2009년 박사(식품영양학)학위를 취득해 탈북민 최초의 박사가 되었고, 교수·강사로 활동했다. 사회적으로는 탈북민 지원, 북한 인권운동, 유튜브 활동을 이어왔으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및 정당 대변인으로 정치에도 참여했다. 2010년에는 미국 국무부 ‘국제 용기 있는 여성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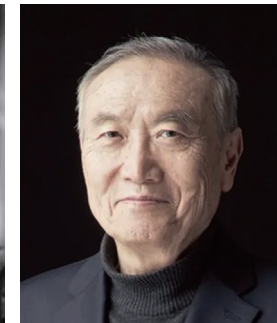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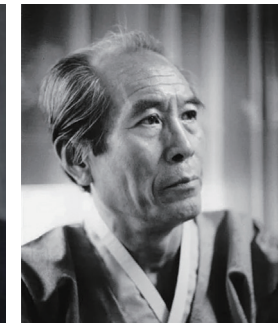


이순실(사진=나무위키)

이순실은 평양 출생의 대한민국 방송인·요리사·사업가·안보 강사로, 군관 가정에서 비교적 풍족하게 자랐으며, 1982년 입대해 조선인민군 2군단 15사단 간호장교로 11년간 복무하고 노동당에도 입당했다. 1990년대 북한 경제 붕괴 속에 전역 후 가족의 사망과 극심한 빈곤을 겪으며 꽃제비 생활을 했고, 총 9차례 탈북 시도와 8차례 복송, 고문을 경험했다. 결혼과 가정폭력, 임신 중 가출을 거쳐 해산에서 딸을 출산했으며,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딸을 잃고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강제결혼에서 탈출한 뒤 교회의 도움으로 2007년 몽골을 거쳐 한국 입국에 성공했다. 입국 당시 혹독한 삶의 흔적으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으나 군 복무 이력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개신교 신자로 간증 활동, 안보 강사, 방송·요리·사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형을 수집·장식하며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 문학 · 예술가

황순원(1915~2000)은 평양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시인이자 소설가로, 「소나기」를 비롯해 순수성과 시대의 아픔을 담은 작품들로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송실중학교와 오산학교를 거쳐 와세다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30년대 시로 등단한 뒤 1940년 「늪」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소설가의 길에 들어섰다.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 속에서도 한국어 소설을 집필해 숨겨두는 방식으로 조용한 저항을 이어갔고, 해방 후 월남해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 서다」 등 한국 문학사에 중요한 작품들을 남겼다. 또한 교사와 경희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며 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그의 문학 세계에는 3·1 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른 아버지 황찬영의 영향이 깊게 작용했다. 황찬영은 평양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며, 황순원은 소설 「아버지」를 통해 이에 대한 존경과 시대의 아픔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 황순원의 장남 황동규는 시인이자 영문학자로 문화훈장을 받았고, 서울대 명예교수로 활동하며 한국 문단과 학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손녀 황시내 역시 음악과 예술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집필하며 문학·예술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황찬영, 황순원, 황동규, 황시내 (사진=디지털인문연구소, 위키백과, 경향신문)

강홍식(1902~1971)은 평양 출신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배우·영화 감독·가수로, 예명 ‘진훈’을 사용했다. 일본에서 성악과 무용, 연기를 배운 뒤 1920년대 영화배우로 전향해 귀국 후 영화·연극계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했으며 연출과 가수 활동도 병행했다. 해방 후에는 평양에 남아 북한 영화계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국립영화촬영소 창립에 참여했고, 북한 최초의 극영화 〈내 고향〉을 연출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숙청되어 요덕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복권되었다. 그는 배우 전옥의 전 남편이자 강효실·강효선의 부친, 최무룡의 장인이며 최민수의 외조부이다. 딸 강효실

(1932~1996)은 평양 출신 배우로, 월남 후 남한 연극·영화계에서 활약하며 여러 연기상을 수상했다. 배우 최무룡과의 사이에서 최민수를 두었고, 말년에는 치매를 앓다 별세했다. 최무룡(1928~1999)은 배우·가수·감독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을 지냈다. 외손자 최민수는 3대째 배우로, 강렬한 카리스마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왼쪽부터 강홍식, 강효실, 최무룡, 최민수(사진=위키백과)

윤심덕(1897~1926)은 일제강점기 조선 최초의 성악가이자 대중가수로, 호는 수선(水仙)이다. 평양에서 태어나 진남포에서 성장했으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신교육을 받았다. 송의여학교와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했고, 이후 조선총독부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도쿄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최초의 조선인 학생이 되었다. 귀국 후 순회공연을 통해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로 명성을 얻었으나, 당시 성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경제적 곤란과 각종 사생활 스캔들에 시달렸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활동하던 중, 1926년 일본 오사카에서 대중가수로 전향해 「사의 찬미」를 포함한 여러 곡을 녹음했다.



윤심덕(사진=위키백과)

같은 해 8월 4일, 조선으로 돌아오던 배에서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실종되었고, 근거 없는 정사설이 퍼지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비극적인 생애와 함께 「사의 찬미」는 큰 인기를 얻으며 당대 문화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평양의 대표 음식

녹두지짐



녹두지짐(사진=뉴스페이퍼 블로그 <https://m.blog.naver.com/news-paper3859/222037034694>)

녹두를 갈아 부쳐 만든 전은 남한에서는 ‘빈대떡’, 북한에서는 ‘녹두지짐’이라 부른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는 녹두 반죽에 배추나 김치, 돼지고기를 넣어 부친 음식을 즐겨 먹었는데, 만들기 간단하면서도 맛이 뛰어난 별미로 여겨졌다. 북한에서는 조리 방식에 따라 음식의 명칭을 구분하는데, 호박·어류·고구마 등을 밀가루에 묻혀 부친 음식만을 ‘전’이라 하고, 파·감자·김치 등을 밀가루 반죽과 섞어 부친 것은 ‘지짐’이라 부른다. 북한식 녹두지짐은 돼지기름에 튀기듯 부쳐 걸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해 풍미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지짐은 평양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생일이나 혼례 등 각종 의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랐던 음식이었다. 김일성이 연희나 오찬 자리에서 빈대떡을 반드시 올리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또한 녹두에는 해독 효능이 있다는 인식이 함께 전해 내려온다. 이 음식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당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음식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대동강송어국



대동강송어국(사진=위키백과)

대동강 송어국은 평양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향토음식으로, 평양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대동강은 송어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강 인근 주민들은 예로부터 송어를 이용한 국물 요리를 즐겨 먹어 왔다. “평양에 가서 송어국 맛을 보았는가”라는 말이 인사로 쓰일 만큼, 대동강 송어국은 평양을 상징하는 별미로 여겨졌다. 이 음식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나 관혼상제의 큰상에 반드시 올리는 필수 요리로 자리 잡아 왔다. 전통적으로는 대동강에서 잡은 신선한 송어의 비늘을 벗기고 토막 내어 생강과 후추를 넣어 맑고 담백하게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도문대작』, 『규합총서』 등 여러 옛 문헌에도 평양 대동강 연안의 송어가 명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오랜 역사성과 명성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대동강 송어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만찬상에 오르며 평양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참고

주영하,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서울:열린책들, 2023)
김양희,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되구나」 (서울:폭스코너, 20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평양의 사람 사는 이야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 선교구역에서 살다가 25년 7월에 한국에 온 ○○○이라고 합니다.



〈평양 선교구역에 위치한 선교편직공장
(사진=노동신문)〉

평양에서 사시던 선교구역은 어떤 곳인가요?

선교구역은 중구역하고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방직공장과 방직기계공장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큰 기업소입니다. 아마 평양에서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선교구역일 겁니다. 공장에서 만든 옷을 중국에 판매하는데, 북한 상표는 인기가 없어서 한국 상표를 붙여서 판매합니다.

선교구역에는 공장 이외에 다른 특별한 기관은 없나요?

2018년도에 보위성 시 기동대가 조직되었는데, 그 본부가 선교구역에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도 찾아봤는데 탐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 기동대는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출동하는 기관입니다.

평양에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김정일이 집권하고 락랑구역에 통일거리를 만들고 많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제대한 군관들이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엄청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회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양에서 돈이 제일 많은 곳이 통일거리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통일거리 골목에서 일만 달러 정도는 쉽게 주고받고 합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돈 액수가 엄청날 겁니다. 아마도 평양에서 큰 포부를 가진 사업가들은 다 통일거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안성에서도 산하 기관이 통일거리에 건물을 사서 장사하는데 꽤 잘돼요. (락랑구역 '통일거리'는 최근 '락랑거리'로 개칭되었다 - 편집자 주)

주민들의 경제관념은 변화가 있나요?

과거에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스스로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합니다. 평양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라는 대로

안 해요.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북한, 특히 평양 사람들은 영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건이 안 되고 도무지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다 해냅니다.

통일거리에서는 어떤 돈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모든 돈 거래를 다 이뤄집니다. 한국처럼 은행거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죠. 작은 돈은 북한 내화로 거래하지만, 일정 이상 금액은 주로 달러로 거래합니다. 달러를 쓰는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도 있고요. 실제로 5달러, 10달러짜리는 지폐는 헤질 때까지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경대구역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면 만경대구역에 물이 좋았습니다. 사람도 좋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려고 했죠. 다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물이 아직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하하).



〈만경대 구역 대평지구 살림집 모습
(사진=SPN서울평양뉴스)〉

만경대구역에서 기억에 남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정확히 만경대구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있던 개수공사기념탑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일성 정권 때 보통강물이 계속 범람해서 한 지역이 물에 잠기곤 했어요. 김일성은 인민들을 위해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공사를 지시했어요. 나중에 그 공사를 기념하는 탑을 세웠는데 그게 개수공사기념탑이에요. 현재 그곳에는 우주과학개발국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데 매년 4월이면 꽃바다가 됩니다.



〈평양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평양 노동자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기업소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대동강 맥주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맥주집이 엄청 많습니다. 한 구역에 30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평양 전역에 아마도 1,000개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평양 사람들은 대동강 맥주 좋아합니다. 저녁에 가면 사람들로 가득해요. 평양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싫은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십니다. 그만큼 술을 좋아합니다. 일반 사람들



〈림흥거리에 위치한 '화성대동강맥주집' 전경(사진=서울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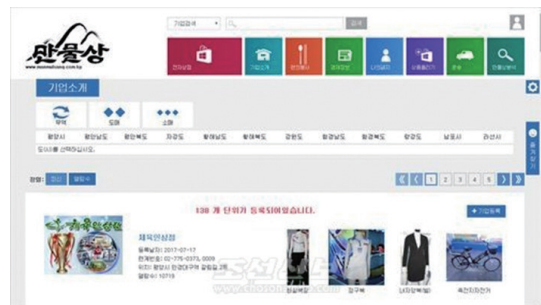
은 안주로 땅콩이나 건새우 먹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오징어를 먹습니다.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얼마나 큰가요?

차이가 큼니다. 제가 운전수라 지방에 많이 가봤는데 특히 황해도 지역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 껍데기 먹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당에서 배급을 못 주니까 주민들에게 못 쓰는 땅 나눠주고 있어서 개간해서 먹고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황해도가 쌀이 많이 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가 제일 힘듭니다. 추수하면 당에서 곡식을 다 가져가거든요. 쌀농사를 지어도 먹을 쌀이 없어요. 지방이나 농촌 같은 데서 하루에 5천 원 벌려면 손에 피가 나도록 일해야 하는데 평양에서는 물건 좀 날라주면 북한돈 5만 원, 10만 원은 벌어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몰래 평양으로 들어오려다 잡히기도 합니다. 만약 걸리면 단련대나 교화소로 끌려가죠. 평양에 살면 지방보다 돈을 벌 기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26년 3월 초 기준, 북한돈 환율은 약 4만원/달러로 알려진다 (참고: 데일리NK 북한시장동향))

평양 안에서도 지역 격차가 있나요?

물론 잘 사는 구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구역도 있습니다. 당 간부와 같은 엘리트들은 중구역, 대동강구역, 모란봉구역, 평천구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각종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입니다. 힘이 없으면 먹고살기 힘들어요. 장사도 못 해요. 치면 치는 대로 얻어맞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령 평양 중심에 살아도 권력이 없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사진=통일뉴스)〉

온라인 상거래는 많이 이용하나요?

손전화에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가면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일반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선 돈을 은행에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익숙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한다는 개념도 부족하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현금을 딱 손에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사람들은 은행 거의 이용 안 해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원할 때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돈이 없다고 다른 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항상 일정한 정도에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가 돈을 은행에 두겠습니까?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현금카드 (사진=통일뉴스)〉

평양의 상업지구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김정일 정권 때 상업중심이 보통강구역에 하나, 만경대구역 하나 세워졌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 이후로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 화성지구와 송화지구엔 몇만 세대 짓고 있잖아요. 보통 3층까지는 상점들 자리인데 작년 7월까지 봤을 때 여는 상점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뭘 해보려고는 하는데 잘 안돼요.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상점이나 회사마다 돈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숨어있어서 안 보이지만 진짜 권력자죠.



〈2024년 10월 한 러시아 여행객이 촬영한 평양 거리. 과일을 파는 북한 상인과 '강서약수'라고 적힌 상점이 보인다. (사진=유투브 캡처)〉

주민들은 주로 어디에서 물건을 사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투 같은 옷은 시장에 가서 사죠. 시장은 구역마다 다 있어요. 한국의 편의점과 같은 작은 상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수레에 생활용품 놓고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불법으로 장사했는데 지금은 장사하려면 정식으로 승인받고 세금을 내야 해요.

물건값은 주로 달러로 계산하나요?

20~30만원까지는 북한돈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텔레비전을 산다고 하면 500달러 정도인데 그걸 북한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돈 한 뭉치를 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러를 사용하죠. 물론 작은 물건 살 때는 북한 돈을 쓰기도 하지만 큰 금액은 다 달러로 사용합니다.



〈락랑구역에 위치한 금강시장(前 통일거리시장)(사진=이코노믹포스트)〉

주민들은 국가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요?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저도 꽃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업소마다 사람을 수 명씩 뽑아갑니다. 보통 기업소 지배인이 동원될 인원을 선택하는데 뽑힌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석 달 전부터 나와서 연습해야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꽃들고 서 있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참여하기 싫어해요. 돈 벌어야 하는데 뽑혀 가면 돈을 못 벌잖아요.

주민들은 당 정책에 잘 순응하나요?

보통 아무 힘도 없고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당이나 기업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있으면 돈 벌기 위해서 계속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하기도 싫은 사람들도 많죠. 오랫동안 평양 안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반면에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당의 지시가 나오면 순응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다보니 소상공인들은 당의 지시를 싫어합니다. 자기 사업하면 하루 5-10달러는 버는데, 계속 ‘일 나오라, 돌격대 나가라’ 이러니깐 좋아할 이유가 없죠.



〈북한의 젊은 청년들(사진=BBC 뉴스 코리아)〉

세대별로 생각의 차이가 있나요?

50대 이상, 김일성 세대 사람들은 공산주의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고 이겨내면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세대가 평양 사회의 분위기를 이끌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김일성 정권 때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산 경험도 있고, 고난의 행군 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철저히 교양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40대, 30대, 20대로 내려가면 내

려갈수록 공산주의 사상이 잘 교양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5~10년쯤 지나서 세대교체가 될 텐데 그러면 당은 다른 통치 방식을 꼭 생각해 내야 할 거예요.

젊은 세대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외부 정보를 접해서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 정보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내 친척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중국 영화 보고 한국 영화를 보면 재미도 있고 이해는 되지만 문화가 달라서 가치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벌려고 무슨 방법이라도 생각해 내야 하잖아요. 한국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다’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죽는다’고 말해요.

고난의 행군 때 평양도 힘들었나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고난의 행군을 겪었는데 제가 어릴 때 대동강변에서 자라는 미역같이 생긴 풀을 잘라서 쌀 한 줌 넣고 끓여 먹곤 했어요. 물론 평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힘들었어요. 이런 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은 당의 말이 잘 먹히지 않죠. 식구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 어떻게 당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어떤 문화생활을 하시나요?

평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중국, 러시아, 인도 영화 세 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드라마도 많이 봅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봤는데, 제 친구들을 잘 보더라고요. 간혹 한국 영화도 보지만, 특히 중국 영화 많이 봅니다. 중국 영화 중에는 국가에서 승인해서 들어온 영화도 있어서 아무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장기, 주패(카드놀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기업소에서 시간이 나면 배구도 하죠. 다들 배구 잘합니다. 한국은 족구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 와서 족구 처음 봤습니다.



〈상점에 진열된 중국영화 DVD와 VCD(사진=자유아시아방송)〉

평양이 지방보다 통제가 더욱 심한가요?

제 생각에는 지방 사람들이 국가 통제에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보안원은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평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안원하고 부딪히면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요. 그래서 파손된 거 있으면 변상받죠. 보안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 사람들은 다릅니다. 보안원한테 그렇게 못해요. 기업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방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도 기업소에 나갑니다. 속마음은 다른데 가서 돈 벌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지방에서는 만약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전원

서너 명이 가서 욕박지르면 말 잘 들어요. 그런데 평양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구류장에 넣고 비판서 쓰고 절차대로 하죠.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깐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중앙당 신소과에 가서 신고하면 금방 처리됩니다. 간부들도 주민들에게 함부로 안 합니다. 다 원칙대로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법대로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15일 직장 안 나오는 사람은 단련대 두 달 간다” 이런 법이 나오죠.

평양과 지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평양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간혹 지방에 가면 좀 느끼죠. 지방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하지도 않아요. 평양 사람하고 지방 사람하고 마주 세워 놓으면 딱히 말할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마치 저와 한국 사람들과 통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말도 차이가 있구요. 한국은 서울과 지방에 교류가 활발하잖아요. 그런데 북한 달라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말을 평생 쓰는 거예요. 다른 지역 말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죠.



〈25년 7월 첫 개장한 원산 갈마 해안 자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북한 주민〉

평양 시민들은 이동의 제제가 없나요?

평양 사람들은 웬만한 지방에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어디서 허가받는 거 없습니다. 저는 사리원, 개성, 남포, 함흥 다 자유롭게 다녔어요. 반면에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마음대로 못 옵니다. 물론 평양 사람들이라고 해도 일부 지역은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국경 지역 같은 곳은 정해진 구간 외에는 통행증이 있어야 해요.

가정 경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남자들은 계속 정부에서 끌고 다니니깐 아무것도 못해요. 기업소에 출근해야 하고요. 거의 다 여자들이 돈을 벌어요. 아까 말했던 통일거리 돈주 있잖아요. 거의 다 여자예요. 북한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편은 좋은 대학 나와 권력을 잡아서 아내가 부지런히 돈 벌 수 있도록 배경 역할을 해 주는 남편이에요. 남자 돌아다니면서 돈 번다는 것은 지금 북한 실정에 맞지 않아요.

평양의 물류업은 어떤가요?

북한에서 차를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제일 고급 노동자일꺼예요. 한국은 차가 많지만, 북한 차가 별로 없어요. 보행자 신호등도 없구요. 사고 날 위험도 적고, 당연히 편한 직업이에요. 다들 부러워합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계속 말합니다. “누구 누구네 집 아들이 러시아로 갔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문이 엄청나게 빨라요. 여기처럼 뉴스가 없으니깐요.

북한에서 종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그 안에서는 종교 관련된 것은 가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팔자 좋다”라는 말도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은 끔찍한 소리예요. 평양에 있는 종교 시설들은 다 일반 사람들이 못 가요. 외국 손님이 오면 보여주는 곳입니다. 노동당원들이 항상 경비를 서고 있어요.



〈평양봉수교회 찬양대(사진=SPN서울평양뉴스)〉

종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나팔수 강연”이라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민들을 통제하고 교양할 목적으로 각종 사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수요일 오후 1시에 하는데 의무적으로 다 봐야 해요. 아파서 빠지면 병원 진단서 받아와야 하고요. 무단으로 빠지면 경고받고, 경고가 쌓이면 다른 곳으로 전출가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방송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적발되어서 감옥에 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

언론에 비친 평양

최근 1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평양 소식

“평양을 세계적 도시로”...

北, 화성지구 5단계 조성 본격화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화성지구 5단계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건설장비 전시회와 차량 출동식이 김정관 당 비서와 건설 지휘부, 시공 단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전했다.

화성지구는 평양의 신도시 성격을 띠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단계 사업으로 약 4만 세대 주택이 건설됐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5단계 착공식이 진행됐으며, 이번 단계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경관과 기능을 현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화성지구를 정치·경제·문화적 기능을 갖춘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이번 개발이 주택 수요 해결에서 수도 전체 면모를 크게 바꾸는 단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최근 완공된 4단계 주택에는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참조: 연합뉴스, 2026.03.08)

국가의료전산망 확대 본격화...기초 인프라 부실에 ‘무용지물’ 우려도

북한 보건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해 온 ‘보건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의료 전산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평양 일부 중앙급 병원에서만 운영되던 디지털 의료정보시스템을 지방 병원까지 확대해, 중앙과 지방을 하나의 통합 의료체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환자의 진료 기록·처방·검사 결과 등을 디지털화해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전국 병원이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지능형 의료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병원의 지도 및 원격 협진이 가능해지고, 도농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의료진은 체계적 기록 관리와 전문적 지원에 기대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산 입력 등 추가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통신망과 안정적 전력 공급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참조: 데일리NK, 2026.02.23)



北, 평양 화성지구 4단계 뉴타운에도 자동차 판매점 및 게임 센터 건설

북한 평양 화성지구 신축 주택 단지에 들어설 자동차 판매점과 컴퓨터 게임 센터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이 지역에 두 번째 자동차 판매점인 ‘미산자동차동기술봉사소’와 컴퓨터 게임 센터 ‘새별컴퓨터오락관’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설들이 지난해 인근에 처음 문을 연 유사 시설에 이은 것으로, 평양 내 부유층 주민들에게 보다 현대적인 생활·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당국의 정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비서는 화성지구 4단계 사업이 약 99% 완공됐다고 밝혀, 조만간 공식 개장식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새로 들어설 게임 센터는 2025년 4월 개장한 화성 컴퓨터 게임장과 비슷한 형태로, 수백 대의 컴퓨터를 갖추고 이용 시간제를 통해 서양 슈팅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판매·정비 기능을 겸한 미산자동차동기술봉사소 역시 최근 평양에서 자가용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수요를 겨냥한 시설로 평가된다.

(참조: SPN서울평양뉴스, 2026.01.13)



평양 ‘노인건강원’ 본보기 삼아 전국 확대 지시…지방은 ‘난감’



북한 당국이 평양 화성구역에 개원한 ‘화성4노인건강원’을 모범 사례로 삼아 전국 각 도·시·군에 노인건강원을 확대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앙의 방침은 이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일환이자 ‘어른 공경 운동’으로 강조하며, ▲노인 편의 시설 확충 ▲지역 단위 후원사업 조직 ▲공경 분위기 조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평성·안주·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동마다 ‘노인건강지원소’를 설치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지 간부들과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기존 양로원조차 식사와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만 늘린다고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물자도 비누·치약 등 기초 생필품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건설 부담이 결국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방에서 평양 수준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냉소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노인복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당이 ‘노인 공경’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생계난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노인들이 장사에 나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참조: 데일리NK, 2025.11.24)

김정은, 강동군병원 준공식 참석...‘보건현대화 개념 새롭게 정립’



북한은 2025년 2월 착공한 평양 외곽 강동군병원을 약 8개월 만에 완공하고, 11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준공식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며, 기존 지방병원의 개념을 바꾼 모범 사례이자 지방 보건 현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착공 당해 준공을 이룬 속도를 ‘조선의 속

도’로 표현하며 만족감을 나타냈고, 보건 현대화를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핵심 국책으로 재확인했다. 또한 강동군병원이 지방 보건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재건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 지방 병원 건설을 본격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구성시병원, 룡강군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응급치료소 등이 준공되면 평양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6개의 현대적 의료시설이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당·행정 책임자들과 건설부대,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조: 통일뉴스, 2025.11.20)

북, 백두산·평양 호텔 곳곳 리모델링...관광 확대 노리나

평양시 중구역 오탄동에 자리한 ‘평양호텔’도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다. 1961년 문을 연 이 호텔에는 조선신보 평양지국이 입주해 있으며 매년 조총련 대표단 등이 방북할 때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해 외국 손님을 받지 못하는 동안 2~5층 객실의 출입문과 열쇠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1층 상가에는 전자은행이 들어왔다. 대동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식당도 지난해 문을 열었다. 북한이 관광 인프라를 속속 단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을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참조: 연합뉴스, 2025.10.13)



北평양 지하철은 공사중...리모델링하고 새로 장식도

북한 평양 지하철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부 환경과 편의시설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돔형 천장과 밝은 조명, 열차 정보 안내 화면, 의자 설치 등으로 과거보다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승객들은 스마트폰과 신문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인다.

개선역·모란봉역·전승역 등 여러 역이 이미 리



모델링을 마쳤고, 올해에도 추가로 영광역과 북성역이 새단장을 했다. 평양 지하철은 1973년 개통돼 지하 100~150m 깊이에 건설된 방공호 기능을 겸한 시설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5년 직접 지하철을 방문해 천장 높이 조정, 의자·TV·자동출입기 설치 등 세부적인 개선 지시를 내렸고, 새 전동차를 시승하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은 리모델링된 평양 지하철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러시아·중국 등 외국 대표단과 외교 인사들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참조: 연합뉴스, 2025.06.30)

주북中대사관 “北, 평양 근교 정방산 정비…中관광객 방문 기대”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외국인 관광을 제한적으로 재개했지만, 최대 고객층인 중국인 단체 관광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북 중국대사관은 북한이 평양 인근 관광지인 황해북도 봉산군의 정방산을 중국 관

광객 유치에 위한 핵심 관광지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전했다.

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황해북도 관광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정방산과 주변 관광 노선·시설을 정비·개선하며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방산은 평양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발 500여m의 산으로, 고려시대에 축조된 정방산성과 898년에 창건된 성불사, 북한의 국화인 함박꽃 등 역사·자연 관광 자원을 갖춘 지역이다. 특히 평양과 사리원, 개성을 잇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도 강점으로 언급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러시아 관광객을 시작으로 나선 특구에서 서방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6년 만에 평양국제마라톤대회를 재개하는 등 관광 분야에서 점진적인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동시에 한때 소원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던 북·중 관계는 최근 교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왕야천 주북 중국대사는 평양지하철 방문, 북한 외무성 고

위 인사 면담,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의 HSK 시험 재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교류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방산 관광 홍보는 향후 중국인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둔 사전 준비 및 관계 개선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참조: 연합뉴스, 2025.05.27)

북 평양정향건재공장, 특허기술 타기업과 공유해 새 제품 개발자금 확보

북한 평양정향건재공장에서 특허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025년 1월 7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철강과 콘크리트첨가제, 방수재를 비롯한 10여종의 건재품들에 대한 특허기술은 이곳 공장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공장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특허기술들을 다른 기업체들과 공유하는 데로 방향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관리방식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꼭 같은 건재품들을 생산하는 여러 단위들에서 기술개발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면서도 질 좋은 건재품을 다량생산하여 국가에 많은 이익을 주게 되었다. 신문은 “평양정향건재공장에서는 특허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들인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고 있으며 그 자금을 새 제품 개발기술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한편, 북한에서 발명권, 특허권의 신청원칙과 심의원칙, 기관, 기업소, 단체, 발명가의 명의로 할 수 있는 발명권, 특허권신청, 특허권자와 발명가의 권리 등은 발명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지적소유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발명법이 수정 보충되었다.

(참조: 통일뉴스, 2025.01.07)



北 평양시 인민위, 수도시민 민원 홈페이지 ‘호주’ 개발



북한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최근 수도시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한 인민생활향상지원체계 홈페이지 ‘호주’를 개발했다.

노동신문은 2026년 1월 11일 “평양시민과 시내의 정권기관 사이의 대화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는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주민들이 생활상 제기되는 의견을 인민생활향상지원체계 ‘호주’에 올리 적재(입력)하면 시 인민위원회와 가입자가 살고있는 구역 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들이 동시에 접수받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개월간 품들어 홈페이지를 처음 개발했을 때 어설픈 점들이 적지 않았지만, 일꾼(간부)들이 인민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능들을 부단히 수정갱신하고 새로운 기능을 첨부하면서 운영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인민생활향상지원체계 ‘호주’는 수도시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데 적으나마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참고: SPN 서울평양뉴스, 2026.01.11.) 🐼

북한지역연구 호별 자료 목록

2023년 여름, 창간호, 평안북도 신의주

- 권두언 - 북한지역연구지 발간의 의의와 연구 방향성, 김성태 이사장
- 북중 관문 도시로서 신의주의 특징과 도시 구조, 편집부
- 신의주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단동-신의주 초국경도시협력에 대한 단상, 예동근 (부경대)
- 북중 접경지역의 두 도시 개발 이야기, 김성배 (숭실대)
- 선교를 위한 신의주 연구, 하충업 (숭실대)
- 신의주의 경제 그리고 미래,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 북한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신의주, 강동완 (동아대)

2023년 가을, 통권 2호, 강원도 원산

- 권두언 -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분의 열매는 영속적이다. 김성태 이사장
- 해양관광도시 원산의 특성과 공간구조, 편집부
- 원산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관광도시 원산의 과거와 현재, 진화권 (부산대)
- 강원도정산과 원산의 기업,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 신 북음선교의 길, 북한 원산지역에서 찾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원산, 그리고 원산대부흥, 김철성 (목원대)
- 나의 아버지 조희렴 목사, 원산의 순교자, 조용구 (조희렴 목사 차남, 전 국회의원)

2023년 겨울, 통권 3호, 라선특별시

- 권두언 -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김성태 이사장
- 북-중-러 국경도시 라선의 공간구조, 편집부
- 라선(경흥, 경원, 온성)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라진 하산 프로젝트와 북러협력,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 조선장로교의 블라디보스톡 선교, 정호상 (전 블라디보스톡 선교사)
- 사회주의국가 경제특구에서의 비즈니스선교, 이찬욱(IBA 총무)
- 라선의 산업과 시장,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해방후 북한의 동이기독교와 라선의 교회들, 안희열(침신대)

표 2024년 봄, 통권 4호, 개성특별시

- 권두언 - 개성지역 교회의 신앙적 유산, 김성태 이사장
- 신해방지구 접경 도시 개성의 발전과 공간구조, 편집부
- 개성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만남과 교류의 장, 접촉 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성, 백일순 (서울대)
-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남북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친해졌나?, 김유연(한반도평화연구원)
- 개성시 공간구조와 공간 격차, 이시효 (숭실대)
- 소망의 언덕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개성협력병원, 김정옥(전 개성병원 원장)
-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와 윤치호의 모범촌 구상, 김영국(역사학 박사)
- 개성의 문화유산 연구, 박성진(문화재청)
-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개성의 로컬리티, 편집부

2024년 여름, 통권 5호, 양강도 해산

- 권두언 - 여호와 이레와 님시의 하나님, 김성태 이사장
- 북-중 국경도시 해산의 공간구조와 초국경 협력, 편집부
- 해산의 성결교회, 이한복 (서울신대)
- 해산시 기능적 중심지와 부동산 가치,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양강도의 관광지원 현황과 개발 가능성, 강동완 (동아대)
- 해산의 초국경 협력: 북-중 합작 백두산 생태관광특구 조성, 김성배 (숭실대)
- 코로나 이후 해산 농민시장의 변화, 강미진 (엔케이투자기발)

2024년 가을, 통권 6호, 남포특별시

- 권두언 - 하나님의 선교전략과 그분의 인도하심, 김성태 이사장
- 남포특별시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남포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남포의 도시 공간과 일상, 이시효 (숭실대)
- 남포의 산업시설 현황,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 서해 관문도시 남포시의 개발현황과 전망, 남근우 (인천연구원)
- 남포는 근현대사의 남포불,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 남포와 은재 신석구 목사,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2024년 겨울, 통권 7호, 함경남도 함흥

- 권두언 - 교회설립, 다음 세대 교육 및 의료선교의 모범 함흥지역 선교,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대표화학공업도시 함흥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함흥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1960-1980년대 북한의 함흥시 공간 개발전략, 박희진 (동국대)
-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 홍남의 기원, 형성, 발전, 위영금 (정치학 박사)
- 함흥시 건축물의 공간구조 형성과 산업시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함흥-홍남은 어떻게 마약 생산지가 되었는가? (함흥 출신 탈북민)
- 함경남도 함흥지역의 성결교회 이야기, 이한복 (서울신대)
- 북한 화학산업 대표기업, '홍남비료연합기업소' 김미연 (산업은행)
- 그리스도의교회 중심지 함경남도 북청과 동석기, 전인수 (강서대)

2025년 봄, 통권 8호, 황해남도 해주

- 권두언 -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김성태 이사장
- 황해남도 중심도시 해주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해주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해주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 (명지대)
- 북한 황해남도 중심도시, 해주시의 공간정보,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해주의 이 교회들, 있던 곳은 어디일까?,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 황해남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이한복 (정선교회)
- 셔우드 홀과 해주 구세요양원, 김철성 (목원대)

2025년 여름, 통권 9호, 함경북도 청진

- 권두언 - 섭리 신학과 청진의 교회,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중공업 도시 청진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청진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명지대)
- 철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청진시 공간구조, 김병욱(북한개발연구소)
- 청진시장의 어제와 오늘, 백명숙(숭실대)
- 닫힌 문 너머의 청진 - 다시 국제도시를 꿈꾸다, 전병길(예스이노베이션)
- 청진과 그 주변(함경북도 남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동이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안희열(침신대)

2025년 가을, 통권 10호, 함경북도 청진

- 권두언 - 섭리 신학과 청진의 교회,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중공업 도시 청진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청진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명지대)
- 철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청진시 공간구조, 김병욱(북한개발연구소)
- 청진시장의 어제와 오늘, 백명숙(숭실대)
- 닫힌 문 너머의 청진 - 다시 국제도시를 꿈꾸다, 전병길(예스이노베이션)
- 청진과 그 주변(함경북도 남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동이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안희열(침신대)

2025년 겨울, 통권 11호, 평양(平壤)직할시

- 권두언 - 한국교회의 요람으로 황해도 지역교회와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 김성태 이사장
- 사리원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사리원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 (명지대)
- 평양과 군사분계선을 잇는 황북의 도심, 사리원시 공간구조,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사리원 기행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황해도 중심부,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 사리원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한위럼(William B. Hunt) 선교사의 재령선교와 한국 장로교회, 박용규 (아신대학교)
- 황해북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이한복 (정선교회)
- 황해도 신천학살 사건의 진실, 한화룡 (백석대학교)

2025년 겨울, 통권 11호, 평양(平壤)직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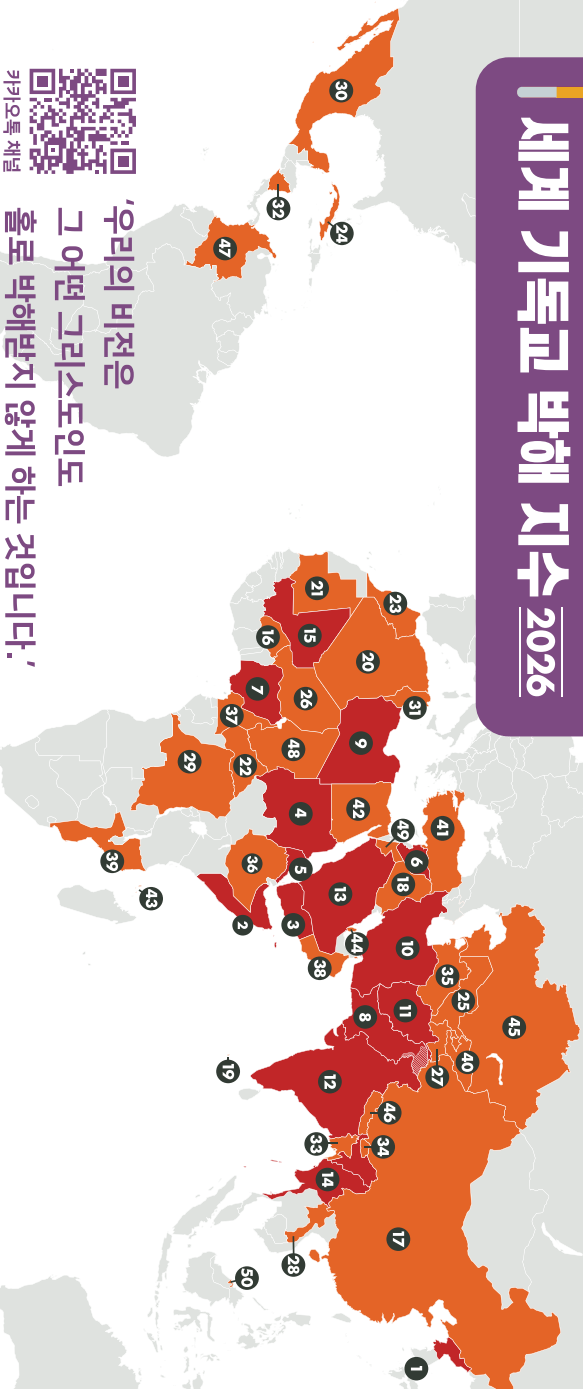
- 북한의 수도 평양의 역사, 편집부
- 대동강을 문화공간으로, 노현중 (서울대)
- 평양 공간격차와 도시민의 삶, 이시효 (명지대학교)

“위의 모든 자료는 오픈도어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 자료실 - 발행자료 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OpenDoors 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6



‘우리의 비전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홀로 박해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카키오희 채널



국가 목록에 대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이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신앙 생활의 5개 영역에서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한다.

- 폭력
- 개인 생활
- 가족 생활
- 공동체 생활
- 국가 생활
- 교회 생활

각 항목의 최대 점수는 16.7점이며,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총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각 국가의 순위는 100점 만점 중 해당 국가의 총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박해 정도

- 높음 41-60점
- 매우 높음 61-80점
- 극심함 81-100점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기독교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음' 또는 '극심함'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내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순위	국가	점수
1	북한	97
2	소말리아	94
3	에티오피아	93
4	수단	92
5	에리트레아	90
6	시리아	89
7	니제르	87
8	파키스탄	86
9	리비아	84
10	이란	82
11	아프가니스탄	81
12	인도	80
13	사우디아라비아	79
14	미얀마	78
15	말리	77
16	부룬디	76
17	중국	75
18	이라크	74
19	몰디브	73
20	알제리	72
21	모리타니	71
2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70
23	모로코	69
24	쿠바	68
25	우즈베키스탄	67
26	니제르	66
27	타지키스탄	65
28	라오스	64
29	튀니지	63
30	멕시코	62
31	튀니지	61
32	니제르	60
33	방글라데시	59
34	부탄	58
35	투르크메니스탄	57
36	에티오피아	56
37	카메룬	55
38	오만	54
39	모잠비크	53
40	키르기스스탄	52
41	튀르키예	51
42	이집트	50
43	코모로	49
44	카타르	48
45	카자흐스탄	47
46	네팔	46
47	케냐	45
48	차드	44
49	요르단	43
50	브루나이	42